

ISSN 1277-1489

KOREA

TEXTBOOK

RESEARCH

FOUNDATION

RESEARCH

TEXTBOOK

교과서 연구

2016. 3. 제 83호

특별기획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1-2학년군 교과서의 현장적합성 검토

한국교과서연구재단
KOREA TEXTBOOK RESEARCH FOUNDATION





Douclass 두클래스

두클래스는 동아출판이 선생님들께 무료로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교실 수업 지원 시스템입니다.



- ✓ 오직 선생님만을 위한 **무료 맞춤형 교실수업지원시스템**
- ✓ 70여 년간 축적된 **동아출판만의 방대한 수업자료**
850종의 스마트교과서, 10만종의 교수학습자료, 20만 문항 DB를 제공
- ✓ 20만 문항 DB를 제공하는 **문제은행 시스템**
선생님이 직접 출제할 수 있는 교사 맞춤형 문제지 만들기 서비스 (매년 업데이트)

2016년 두클래스 [자유학기제] 서비스 제공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른 공고 문서, 동영상상을 비롯한 핵심내용, 수업지도안, 활동지 등을 모아놓는 서비스

목 차



교과서 연구
계간지
2016년 봄
통권 제83호

권두언

- 04 '좋은 교과서' 개발을 위한 노력 / 박삼서
- 08 **특별기획 ·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1-2학년군 교과서의 현장적합성 검토**
- 10 초등학교 교과서 개발을 위한 현장적합성 검토의 방향 / 강순나
- 18 통합 교과서 현장검토본의 특징과 활용 / 정광순
- 33 국어 교과서 현장검토본의 특징과 활용 / 이재승
- 49 수학 교과서 현장검토본의 특징과 활용 / 김판수

연구논문

- 64 진학계 고교를 위한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기준 개발 연구 / 변자정

국제동향

- 84 카자흐스탄 교육 체제 현황과 발전 방향 / 정금배

현장교육

- 93 핵심역량 신장을 위한 '짝토론' 수업 사례 / 박상혜

명사 초대석

- 102 대한민국 5일 장터 이야기 / 이수길

교과서에 실린 작품 이야기

- 110 친구 무덤가에서... / 김원길

탐방 - 오늘의 교과서 출판인

- 115 상문사 대표 손해성
- 118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TIOS) 안내
- 120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 122 원고 모집
- 123 교과서정보관 원문 이용 안내

‘좋은 교과서’ 개발을 위한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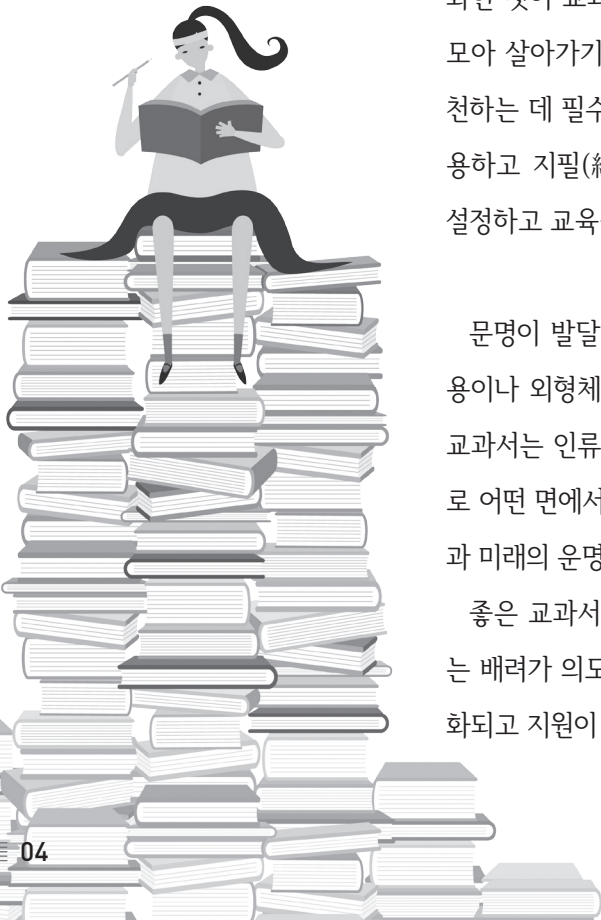
박삼서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회장

교과서의 질은 국가의 운명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기본 학습요소를 체계화한 것이 교과서이다. 교과서는 인류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지혜를 모아 살아가기 위하여 교육제도를 마련하고, 교육을 의도적으로 실천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인류가 문자를 사용하고 지필(紙筆)을 이용하여 서책을 만들면서부터,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교육을 계획적·체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교과서’라는 독립된 명칭을 사용하고, 내용이나 외형체제도 교육이론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되었다. 따라서 교과서는 인류의 실질적인 역사요 산 증거물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교과서의 질은 학교교육의 질을 좌우하고, 국가발전과 미래의 운명과도 직결된다고 하겠다.

좋은 교과서 개발을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 방향이나 이를 지원하는 배려가 의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책 방향이 어떻게 가시화되고 지원이 원활한가에 따라 교과서의 질도 달라지고, 나아가 교



육의 질적 변화도 획기적으로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교과서 정책 방향이나 지원의 원활함이 우리 교육의 성패와도 관계된다.

2015개정 교육과정의 고시되고 국·검·인정 교과서 개발이 한창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좋은 교과서 개발을 위하여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좋은 교과서 개발에는, 개발에 관계되는 많은 변인들이 상호 작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통합적 노력이 필요하다.

‘좋은 교과서’의 내재적 변인

‘좋은 교과서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해답에 대하여 학자들 간에 이론이 분분하지만, 다음 몇 가지 사항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교과서 자체 변인으로 교과서에 담는 내용이나 형태적 측면에서 이들을 찾아볼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학습내용이 교과목의 특성과 학습목표에 따라 균형 있게 선정되고, 이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이 자기 주도적으로, 아니면 공동적 상황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교수·학습 방법이 교과서에 효과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교육목표 달성에 실천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학습의 전략이나 과정이 드러나면 더욱 좋다. 더욱이, 학습 내용과 정보, 표현·표기 등에 오류가 없어야 하고, 설명이 정확하고 통일성을 이루며, 학습력 신장에 적합하게 지면이 효율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여기에 학습목표와 내용, 방법과 일치하는 평가가 적절한 위치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교과서가 갖는 교육적 효과나 활용 측면에서 고려되는 변인이다.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능력을 증진하고, 창의력, 사고력, 탐구력 향상에 적합하며,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수준별로 내용을 구성하였는지 등도 좋은 교과서와 관련된다.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현장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했는지, 학습자·교수자가 활용하기에 편리한 교과서 체제를 구비하였는지 등도 좋은 교과서의 필수적 요소이다. 여기에는 물론 수준을 고려한 교과서간의 합리적인 종적, 횡적 관계도 포함된다.

상기의 요소가 좋은 교과서를 제어하는 내적 변인의 총합(總合)은 아니다. 그러나 좋은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들 변인을 의도적으로 신장·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의 설정과 제도 확립이 필요함은 자명하다.

‘좋은 교과서’의 외재적 변인

‘좋은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여되는 외재적 변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우선되어야 한다.

먼저, 좋은 교과서를 개발하도록 교과서 내용과 형태를 제시하는 규범적 변인으로 교육과정, 편찬상의 유의점, 검·인정 기준 등이 있다. 이들 변인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하여 교과서 질을 제고하는 기본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며, 이들의 내용과 기준을 어떻게 제시하고 적용하는가에 따라 교과서 질이 바뀐다.

교과서 개발과 관계되는 사람들의 성향과 수준도 교과서의 질을 좌우한다. 교과서 정책 입안자, 연구·집필자, 심의 참여자는 직접적으로 교과서 질과 관련되어, 이들의 교과서관과 개발 능력은 교과서의 수준을 한층 높이는 중요 변인으로 작용한다. 교수자·학습자, 출판업자 등은 교과서를 직접 집필하거나 심의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배우고 가르치면서 ‘질 높은 교과서’의 개념을 검증하여 제시하는 등 교과서의 질을 평가하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므로, 간접적으로 교과서 질 향상에 관여한다고 하겠다.

또한, 질 높은 교과서 개발과 관계되는 중요한 변인의 하나는 편찬 제도적 측면이다. 편찬 제도는 앞에서 열거한 좋은 교과서 개발에 관여되는 여러 변인을 추장(推獎)하기도 제어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뒷받침하는 법률, 법령, 규정 등도 좋은 교과서 개발에 관여되는 변인이 된다.


결국, 교과서 정책은 좋은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좋은 교과서’에 대한 규범이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제도적·법률적으로 버팀목이 되도록 지원하는 요소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좋은 교과서’ 개발을 위한 지원

좋은 교과서의 개발은 ‘좋은 교과서 정책’의 수립과 그 역동적인 실천에 달려 있다. 그런데 좋은 교과서 개발에 관여되는 변인을 고려하여 교과서 정책을 수립하기는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그러므로 이들 변인을 추장하거나 제어하는 것도 정책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나아가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실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좋은 교과서 개발을 위한 정책방향의 설정과 관련한 논의는 ① ‘좋은 교과서’의 개념 정립, ② 교과서 개발 관련 인재 양성, ③ 제도적, 법적 지원 장치 마련, ④ 편찬제도 운영의 역동성 확보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질 높은 교과서의 편찬을 위하여 상기의 요소는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효율적인 제도의 도입과 운영, 합리적인 법률적 뒷받침과 예산 지원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좋은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한 효율적인 제도 모색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선행되고, 이에 대한 정책 입안자의 확고한 신념이 뒷따라야 한다고 본다.

교과서의 질은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 그러므로 좋은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한 교과서 정책의 방향은, 국가의 발전과 장래를 염두에 둔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설정·실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교과서 정책 담당 부서의 인적, 물적(예산) 확보를 강조하는 것은 그 자체가 책언(贅言)이라고 하겠다.

좋은 교과서 개발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이제부터는 더욱 필요하다. 2015개정 교육과정 적용 교과서는 앞서가는 교과서 정책을 배경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교과서’, ‘질 높은 교과서’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특별기획.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1-2학년군 교과서의 현장적합성 검토

- 초등학교 교과서 개발을 위한 현장적합성 검토의 방향 / 강순나
- 통합 교과서 현장검토본의 특징과 활용 / 정광순
- 국어 교과서 현장검토본의 특징과 활용 / 이재승
- 수학 교과서 현장검토본의 특징과 활용 / 김판수



초등학교 교과서의 현장적합성 검토는 개발 과정에 있는 교과서를 학교 현장에 직접 적용해 봄으로써, 교과서의 현장성을 높이고자 하는 교과서 개발의 한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고, 보완하여 새 교과서의 현장적용의 활용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부는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현장적합성 검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존의 교과서 현장적용에 따른 검토 방식의 개선을 통해 충실한 검토 내용을 도출하여 교과서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과서 개발을 위한 현장적합성 검토의 방향



강 순 나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장학관

1. 현장적합성 검토의 필요성

2015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됨에 따라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고시(2015.10.21)가 이루어졌고, 새 교육과정에 근거한 국·검·인정 교과서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15개정 교육과정은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을 목표로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설정하고 이를 기르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설계하였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정신을 반영하여 새 교과서의 개발도 학습자의 역량개발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가장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학습 자료라고 할 수 있으며, 학교 현장의 교수·학습 방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학습의 질이 상당 부분 결정된다. 그 동안 교과서에 대한 국가 사회적 요구는 매우 다양한 내용과 양상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실생활 중심의 교과서에 대한 요구의 증대, 학습수준과 학습량 적정화를 통한 학생들의 학습부담 감소 등에 대한 요구에서부터 교과서 무게 감축 요구,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집필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연구결과를 보면, 현행 교과서가 학생들의 학습을 촉진하고 흥

미를 유발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서에 대한 학생들의 주된 반응은 내용이 압축되어 어렵고,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이나 사고를 살려주지 못한다는 점, 내용이 너무 어렵거나 충분하지 않아 혼자 공부하기 어렵다는 지적들이 있다. 이러한 지적들은 새 교과서를 개발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학생들은 쉽고 재미있는 교과서,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는 교과서, 그리고 일상생활과 연계된 교과서를 원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교과서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실제로 구현하는데 필요한 과정 중의 하나가 현장적합성 검토이다. 현장적합성 검토는 초등학교 국정교과서 개발과정이 갖는 특징이기도 한데, 이는 최종 완성된 교과서가 아니라 개발과정에 있는 교과서를 학교 현장에 직접 적용해 봄으로써 과정을 통해 교과서의 현장성을 높이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개발 단계에 있는 교과서에서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보완함으로써 새 교과서의 현장적합을 높이게 된다. 또한, 현장적합성 검토 과정 역시 교과서 개발 과정의 한 단계이므로 이 과정이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적합성 검토 기관이나 참여자, 교과서 편찬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에서는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현장적합성 검토가 지니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존의 현장적합성 검토과정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충실한 검토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현장적합성 검토 방식을 개선하였다. 개선된 방식은 기존 연구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검토를 확대하여 연구학교 및 현장적합성 검토 교사연구회를 운영하고 더불어 교과 내용전문가의 검토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확대된 검토과정을 거쳐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학습수준에 적합한 교과서를 개발하게 된다.

2. 기존 현장적합성 검토 현황 및 문제점

앞서 말했듯이 학교에 보급할 교과서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이전에 학교현장에 직접 적용해 봄으로써 교과서의 현장 친화성, 활용의 용이성, 교육과정과의 정합성 등을 검토하는 과정은 질 높은 교과서 개발의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현장적합성 검토에 활용하는 교과서를 ‘현장검토본’이라고 부른다. 그 동안 현장적합성 검토 과정을 거침으로써 교과서의 내용 오류 및 표현·표기 수정, 활용성 제고 등 교과서 개선에 많은 시사점을 얻었다. 다만, 현장적합성 검토 운영 과정에서 사용된 ‘실험본’이라는 명칭에 대한 오해, 학생과 교원들의 부담 가중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현장적합성 검토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학교, 교사, 학생 등의 입장에서 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학교 입장에서는 현장적합성 검토를 실시함에 따라 학사운영의 부담이 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교육과정·교과서와 동시에 새로운 교육과정·교과서를 적용하게 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 학사운영에 이중 부담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두 번째로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사용하는 교과서와 현장검토본 교과서를 이중 적용함에 따라 수업 부담이 늘게 되었다. 동일한 수업 시간에 두 가지 교과서로 수업을 진행하게 됨에 따라 교사의 교재 연구 시간 부족, 학습 진도 관리 등 수업 부담 가중과 더불어 수업운영의 충실도 역시 일부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학생도 역시 현재 사용하는 교과서와 현장검토본 교과서를 동시에 학습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학습부담이 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현장검토본(이전 ‘실험본’) 교과서로 학습하게 됨으로써 학생이 실험대상이라는 부정적 인식과 더불어 개발과정에 있는 완성도 낮은 교과서의 학교 수업 적용에 대한 대외적 우려가 늘어나기도 하였다.

3. 현장적합성 검토 추진 방향 및 세부 추진 계획

교육부는 위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학교 현장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현장검토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현장검토 방식 개선과 더불어 현장검토본에 대한 감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장검토본에 대한 내용 오류, 표현·표기의 정확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감수를 실시하고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장적합성 검토 방식의 개선은 연구학교 운영방식의 개선, 교사연구회 운영, 내용전문

가 검토로 요약할 수 있다. 각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3-1. 교사중심 연구학교 운영으로 학생의 학습부담 감소

기존에는 국립 상설 연구학교와 시·도교육청 지정 연구학교에서 현장적합성 검토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많은 수의 연구학교 지정·운영에 따른 연구학교 운영 관리 인력의 부족, 현장적합성 검토본에 대한 관리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현장적합성 검토 연구학교를 국립대학 부설학교로 한정하고, 동시에 검토방식도 학생중심에서 교사중심으로 변경하여 현장 검토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그리고, 현장검토본 교과서를 모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일부 단원을 학생들에게 직접 적용하도록 하여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어내는 검토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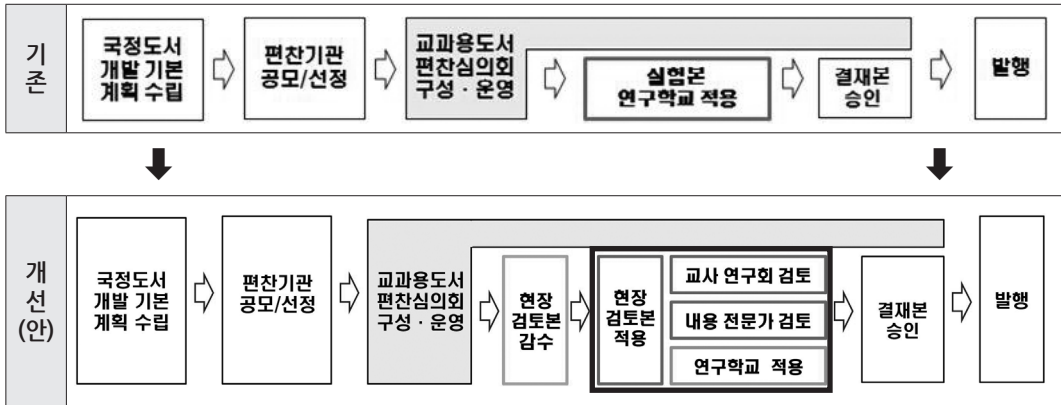
3-2. 교사연구회 운영으로 교과서의 현장성 강화

현장검토본 연구학교의 수를 줄이고, 교사중심의 현장적합성 검토를 지향함에 따라 검토의 충실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적합성 검토 교사연구회를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검토 교사연구회는 각 시·도교육청별로 2개의 교사연구회를 공모하도록 하여 다양한 학교 여건과 학생 수준을 고려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연구회는 초등 1~2학년 담임교사 중심으로 구성하여 실제 수업과정에서 필요시에 현장검토본을 적용하여 봄으로써 그 효과와 현장 반응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장검토 교사 연구회 소속 교사의 학교와 동료교원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편찬기관에 전달함으로써 교과서 개발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3. 내용전문가 참여로 현장검토본 완성도 제고

이번 현장적합성 검토의 특징 중의 하나는 교육과정 연구진, 관련 전문기관 연구원, 교과 내용학 전문가 등 외부의 내용 전문가가 검토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교과서 내용 상의 오류를 줄이고, 기술의 충실도를 높이고자 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내용 전문가는 각 교과별로 10명 내외로 구성하게 된다. 각 교과와 내용전문가들은 현장검토본의 내용을 검토하고, 정기적인 협의를 통하여 검토결과를 상호 공유하고, 발전시켜 그 결과를 편찬기관에 전달하게 된다. 내용전문가의 검토는 특히, 교과별 세부 영역 전공자들의 감수가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교육과정과의 정합성, 성취기준 반영도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수행함으로써 새 교과서의 내용 충실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초등학교 교과서 현장적합성 검토 방식 개선 〉



4. 현장적합성 검토 관점

교육부에서 제시한 현장적합성 검토 기준에 따라 검토 참여자들은 과목별로 교과서와 지도서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교과서의 경우는 교육과정과의 정합성, 교과서 계열성, 교과서 내용 구성, 표현표기의 정확성, 그리고 교과서 외형체제에 대하여 검토를 하게 된다. 그리고, 지도서의 경우는 교육과정 정합성, 지도계획, 지도과정, 표현표기 정확성, 지도서 외형체제 등을 검토하게 된다.

위와 같은 기준을 고려할 때, 현장적합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참여자들이 사전에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우선, 현장적합성 검토에 참여하는 교사나 내용전문가들의 해당 과목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과정 개정의 의도, 개정 중점 사항 등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교과서가 교육과정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충실한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편찬상의 유의점 등 관련 편찬준거를 살펴봐야 한다. 새 교육과정에 따라 새롭게 개발되는 교과서의 개발 방향을 이해하고, 공통 편찬상의 유의점 및 과목별 편찬상

의 유의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현장적합성 검토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과서 현장적합성 검토에 참여하는 교사들은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장적합성 검토는 전문가들이 개발한 교과서를 현장에서 직접 적용해 보고 여러 가지 개선점을 찾고자 하는 교과서 개발의 한 과정이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학생 수업에 직접 적용하여 보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세심하게 청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장적합성 검토 연구회 교원의 소속 학교의 교원들과도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적극적인 의견 수렴 노력이 요구된다.

5. 현장적합성 검토 지원체제 마련

초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현장적합성 검토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는 현장적합성 검토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초등 국정교과서의 현장적합성 검토와 관련된 각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검토 실시에 따른 예산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교과서 현장적합성 검토의 총괄부서로서 관련 기본계획 수립, 연구학교 및 연구회 운영 등에 대한 예산 지원과 더불어 교과서 활용 및 분석 방법에 대한 전국단위 권역별 연수를 지원한다. 아울러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상시적인 수정·보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교육청 및 각급학교에 우수한 현장검토 컨설팅 위원 인력풀을 제공하는 등 국가 수준에서 현장적합성 검토를 지원할 계획이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지원방안을 토대로 교육청 차원에서 소속 교사 연구회 등이 추진하는 현장적합성 검토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우선 각 교육청에서는 소속 교원을 대상으로 현장적합성 검토 교사 연구회를 구성·운영하고, 이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게 된다. 그리고 교육청별 교과서 핵심요원 인력풀 정비, 교사연구회 컨설팅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현장적합성 검토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우수인력의 현장적합성 검토 참여 등을 위하여 다양한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질 높은 교과서의 개발과 함께 교과서를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역시 중요하다. 따라서, 현장적합성 검토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만큼 검토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연구학교, 교사연구회 및 내용전문가를 통하여 수합된 현장적합성 검토 결과는 각 교과서 편찬기관에 제공되고, 각 편찬기관에서는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현장검토본을 수정·보완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내용 오류 없는 교과서,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교과서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과정 적용일정을 감안하여 교과서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교과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과서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하는 등 교원의 교과서 재구성 및 활용역량을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표 2 > 초등학교 국정도서 개발 추진 일정(안)

구분	국정도서 개발 기본 계획 수립	편찬기관 공모/선정	발행사 선정	교과서 편찬 및 심의회 운영		발행·공급	사용
				현장검토본 개발 (원고본, 개고본)	현장적합성 검토		
	→	→	→	→		→	→
1~2학년군	'15. 9	'15. 10	'15. 12	'15. 10 ~ '16. 3	'16. 3 ~ '16. 12	'17. 2	'17. 3
3~4학년군	'15. 11	'15. 11		'15. 11 ~ '17. 3	'17. 3 ~ '17. 12	'18. 2	'18. 3
5~6학년군	'16. 5	'16. 6		'16. 6 ~ '18. 3	'18. 3 ~ '18. 12	'19. 2	'19. 3
				심의, 감수 등 병행			학교


6. 현장적합성 검토에 거는 기대

교육부에서는 2015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 실생활과 연계한 이해하기 쉬운 학습자 중심의 교과서를 개발하고자 한다.

초등학교 국정도서의 경우, 기본 생활 습관 형성과 풍부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교과서, 생활 속 문제해결에 필요한 기초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과서, 바른 심성과 서로 돕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르는 교과서로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역량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교과서 편찬을 위탁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교과용도서심의 회를 운영하고 있다. 심의회에서는 집필 단계별로 최종본 결재 이전까지 내용에 대한 심의와 수정·보완 을 권고한다. 또한, 연구학교·연구회·전문가 검토 등 현장적합성 검토를 강화하고, 표현·표기, 내용 등 에 대한 전문기관(전문가) 감수를 실시함으로써 오류 없는 교과서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초등학교 교과서는 학생들이 처음 접하는 공식 교재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고 중요한 책이다. 학생들은 교과서를 통해 학교를 만나게 되고, 교과서를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학습활동에 참 여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초등학교 교과서의 현장적합성 검토는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스스로 학습 할 수 있는 교과서의 개발의 중요한 과정이며, 그 핵심적인 역할을 현장적합성 검토에 참여하는 교원 들이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현장적합성 검토에 참여하는 연구학교의 교원이나 교사 연구회 소속 교 원들은 이러한 현장적합성 검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좋은 교과서를 개발한다는 책무성을 가지고 검 토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교과서를 직접 개발하고 있는 편찬기관에서도 현장의 의견, 전문 가의 검토 의견 하나 하나를 무겁게 여기고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학습자 중심의 실용적이고, 자기주 도적인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현장적합성 검토가 교과서 개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현장적합성 검토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적극적으로 검토 과정에 참여하고 소통하여 오류 없고 질 높은 학습자 중심의 교과서 개발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교육부(2015),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개발 기본 계획
- 홍원표 외(2015), 실용 교과서 모형 개발 연구, 교육부 정책연구과제 결과보고서, 교육부.

필자소개

교육부에서 교장공모제, 교원 신규채용 제도 개선 등 교원정책을 담당하였으며, 주영국한국교육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영국내 한글 학교 지원 등 재외동포교육과 해외 한국어 보급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금은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에서 장학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통합 교과서 현장검토본의 특징과 활용¹⁾



정 광 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새 교과서를 통해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드는 학교의 주제 중심 통합 수업을 돕고자 합니다.

국가수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등학교 1, 2학년군 내의 교과는 모두 다섯 개(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이다. 학교에서는 다섯 개의 교과를 주당 시수에 기반하여 작성한 수업시간표에 따라 교과별 교과서를 활용하여 국어 시간에 국어 교과서의 진도를 나가고, 수학 시간에 수학 진도를 나가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초등학교 1~2학년 수업은 ‘주제별 교과서’를 도입하여 학교 수업이 교과별로 수업하는 ‘교과분과형 수업’과 더불어 ‘교과통합형 수업’의 풍경을 하나 더 얻었다. 주제별 교과서는 하나의 학습 주제를 중심으로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에서 공부할 내용을 통합해서 개발한 교과서이다. 학교에서는 이에 하나의 주제로 구성된 교과서를 통해서 교사와 학생이 한 주제를 중심으로 한 달 동안 수업하고, 학생들의 기본경험 기반을 확산시켜 왔으며, 나아가서 ‘테마가 있는 학교 수업 풍경’을 정착시켜 왔다.

1) 이 글은 2015개정 교육과정의 의거 개발 중인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과의 주제별 교과서 편찬위원회의 편찬 연구 자료를 요약 한 내용임(교육부, 2015 참조)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1교시	바른 생활	국어	수학	수학	국어	국어
2교시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수학	슬기로운 생활
3교시	수학	즐거운 생활	국어	국어	즐거운 생활	즐거운 생활
4교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슬기로운 생활	국어	즐거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구분	월	화	수	목	금
1	수학	수학	국어	국어	수학
2	국어	국어	수학	국어	국어
3	학교/나/봄/가족/여름/겨울/이웃/가을/우리나라/겨울				
4~5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에게 공부란 ‘친숙하지 않은 것을 친숙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Langeveld, 1984, 215). 이에 학생에게 학습 교재로서 교과서는 학생에게 친숙한 것을 매개로 친숙하지 않은 교과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제별 교과서’는 학생에게 친숙한 주제를 앞세워 친숙해야 할 교과를 만나도록 하였고, 그 결과 학생의 입장에서 분절적인 학교 수업을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도록 만들었다. 결국 주제별 교과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에 적합한 주제 중심 통합 수업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경험을 보편화할 수 있도록 기여하며, 나아가서 『국어』, 『수학』교과의 수업 또한 통합교과의 주제 학습에 기능적으로 연계하면서 학교 수업의 분절성을 다소 해소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그럼 2017학년도부터 전국의 초등학교 1, 2학년 교실에서 새로 사용하게 될 새 교과서는 어떤 모습을 띄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 2015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개정된 교육과정을 구현을 돕기 위한 새로운 교과서를 개발하고 있고, 개발 중인 새 교과서에 대한 현장적합성 검토를 앞두고 있다.²⁾

새 교과서는 지금처럼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을 통합한 주제별 교과서이며, 이런 관점에서 무엇을 왜 유지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새 교과서를 미리

2) 한국교원대학교 통합교과 편찬위원회는 2015년 10월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교과를 통합한 주제별 교과서 연구 개발 기관으로 공모 선정되었다. 이에 2015년 새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하여, 적용 전 현장적합성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 현장적합성 검토는 새로 개발한 교과서가 현장에 더 적합하도록 만들기 위해 마련한 교과서 개발의 한 과정으로, 새 교과서는 상설 연구학교 10개 및 교사연구회 60개, 내용전문가 30명의 검토를 통해 질 높은 학습자 중심의 교과서로 수정, 보완된다.

만나 보자. ‘현장검토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공개하는 교과서는 편찬기관에서 개발 중인 교과서이며, 단위 학교 적용을 앞두고 모든 학교에 일반화하기 위한 중간 점검의 단계를 거치고 있다.

1. ‘주제별 교과서’를 유지한다

2015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 주제별 통합 교과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처럼 ‘주제별 교과서’ 체제를 유지하는데, 주제별 교과서는 다음과 같은 교육적 의미가 있다.

첫째,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의 발달 단계적 특성과 배움 방식에 맞다(강충열, 2011; 정광순, 2010). 이 시기의 학생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 경험한 것, 친숙한 것에서부터 학습이 시작되어 잘 모르는 것, 경험하지 못한 것, 낯선 것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주관적인 것에서 객관적인 것으로, 심리적인 것에서 논리적인 것으로, 개인적인 것에서 사회적인 것의 순서로 삶의 세계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은 경험의 세계를 통해야만 교과 세계의 입문이 용이하기 때문에 교과 분과적으로 접하기보다는 교과 통합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에 주제별 교과서는 주제 적합성을 1차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교과 영역은 내용 자체의 위계보다 학생의 보편적인 흥미 위계에 맞춰서 개발하였다.

둘째, 주제별 교과서는 학교수업의 구심점을 교과보다 학생에 두고, 교과교육의 일관성보다 학생의 학교 학습의 일관성을 회복시킨다. 전통적으로 학교 수업은 교과를 중심으로 종적인 계열성을 따르는 일관성을 중시해 왔다. 그러나 학생은 모든 교과 수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고 시간표에 의해 교과를 분절적으로 만난다. 이런 분절의 문제는 학생이 학교 수업을 일관성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이에 주제별 교과서는 초등학교 1, 2학년에 주어진 3개의 교과를 횡적으로 연계하여 하나의 주제를 한 달 동안 지속시키고자 하였다. 동시에 국어와 수학에서 배운 교과 내용과 기능들을 주제 학습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어와 수학 수업도 기능적으로 연계를 도모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주제별 교과서는 한편으로는 학생의 입장에서 하루, 일주일, 한 달 동안의 학교 수업을 보다 일관성 있게 만들어 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과별 교과서와 교실 수업 시간표에 의

해 학교학습의 분절 문제를 완화·해소한다. 5개의 교과 중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3개의 교과를 통합한 주제 중심 통합 수업은 학생들의 학교 수업을 좀 더 의미있게 일관성과 지속성을 살리고 있다. 나아가서 주제별 교과서를 도입하여 적용한 지난 3년 동안 초등학교 수업에 ‘테마가 있는 수업 풍경’이 등장했고, 이를 안착시킨다는 점에서 그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셋째, 주제별 교과서의 실용성은 지금 현재 다루는 교과 수를 축소하는 효과와 함께 교과서의 물리적 수량의 축소를 운영상 여러 가지 편리성을 도모한다.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3개의 교과를 마치 하나의 교과처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교과 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고, 학생이 들고 다니는 교과서 수를 실질적으로 줄여주어서 책가방 무게를 줄여주기 때문이다.

2. 새 교과서는 주제 중심 통합 학습의 통합성을 강화하였다

주제중심통합학습을 발전시켜야 한다. 새 교과서는 현행 교과서에 머무는 것을 넘어서 개선 발전시켜야 한다. 이에 새 교과서는 현재의 주제 중심 통합 학습을 유지함으로써 이를 현장에서 주제 중심 통합 학습의 기반 경험을 다지는데 기여하고, 나아가서 주제를 중심으로 교과를 통합해서 학습하는데 필요한 통합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교과서를 개선하였다.

첫째, 주제 학습을 더 긴 호흡으로 할 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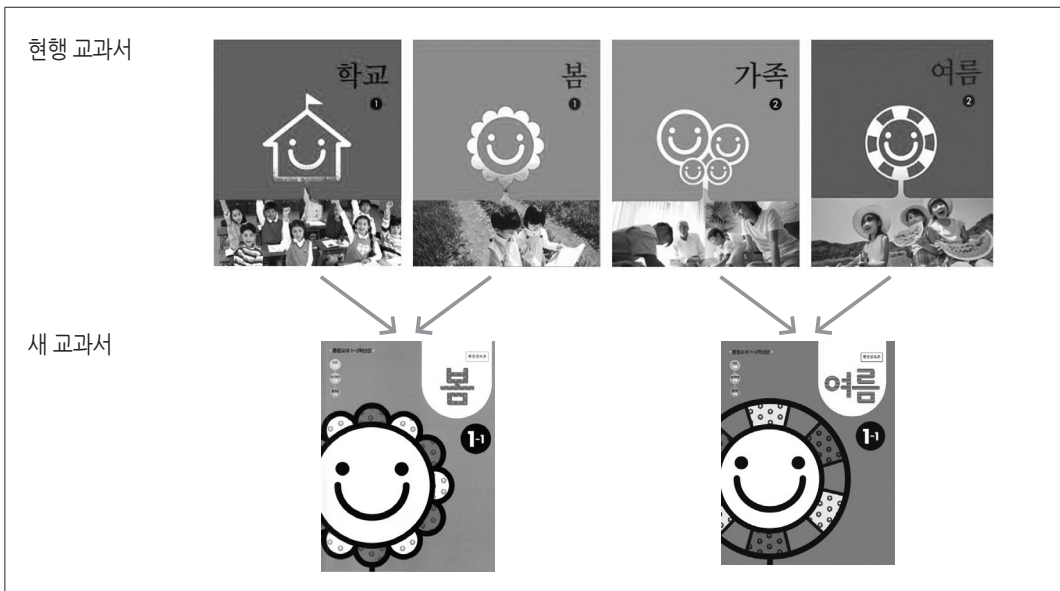
이를 위해서 교육과정에서는 두 가지 변화를 주었다. 하나는 대주제의 수를 8개 유지하면서 대주제의 의미를 명시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학습주제의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국가교육과정에서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교과에서 가르칠 것을 예전대로 주제를 중심으로 성취기준으로 제시하는데(대주제/소주제/성취기준), 공부의 범위를 규정해 주는 대주제를 조정하였다. 특히 시계열 주제(봄, 여름, 가을, 겨울)에 비해 공간 계열의 주제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하였다.

- | | | |
|-------------------|----------------|----------------|
| 1. 학교와 나 ----- 학교 | 2. 봄 ----- 봄 | 3. 가족 ----- 가족 |
| 4. 여름 ----- 여름 | 5. 이웃 ----- 마을 | 6. 가을 ----- 가을 |
| 7. 우리나라 ----- 나라 | 8. 겨울 ----- 겨울 | |

교과서의 대주제가 주제 학습의 범위를 규정해 주는 역할을 한다면, 소주제는 세 가지 역할을 한다. 하나는 단원의 학습 주제이고, 단원의 수를 결정하며,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과의 성취기준을 통합하여 실로 꿰는 역할을 한다.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소주제를 33개에서 16개로 줄였고, 이에 새 교과서는 하나의 주제학습을 2개 단원으로 구성하던 것을 1개 (통)단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주제학습 시간을 2주에서 4주로 확대하여 주제 중심 통합 학습의 호흡을 길게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학습하는 주제에 대한 통합성을 강화하고, 몰입 및 심화를 통해 주제 중심 학습을 충실하게 전개하도록 돕는다.

새 교과서는 학기당 4권씩 제공되던 책의 수를 학기당 2권으로 줄여서 제공한다. 현재 1학년 1학기 교과서의 경우, 「학교」(3월), 「봄」(4월), 「가족」(5월), 「여름」(6, 7월) 으로 구성되었는데, 새 교과서는 학습 주제 ‘학교’와 ‘봄’을 「봄(가칭)」(3, 4월), ‘가족’과 ‘여름’을 「여름(가칭)」(5, 6, 7월)으로 구성하였다.



8개의 대주제를 주제별 교과서 이름으로 사용하였던 것에서 공간 계열의 주제를 시계열의 주제에 넣어 1학기는 ‘학교’ 주제를 「봄(가칭), ‘가족’을 「여름(가칭)에 넣어서 개발하고, 2학기는 ‘마을’을 「가을(가칭)’, ‘나라’를 「겨울(가칭)에 넣어서 개발하였다.

초등학교 1, 2학년 주제별 교과서 구분[1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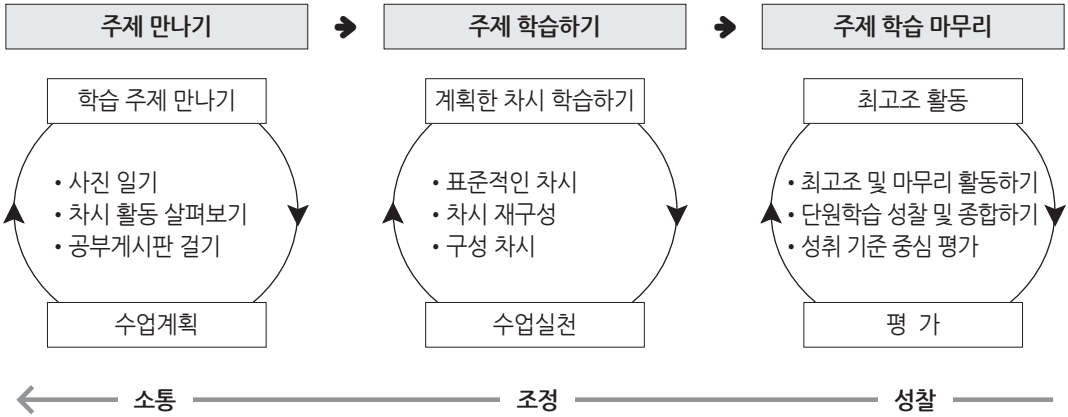
교육과정		교과서						
대주제		1학년			2학년			권장하는 운영시기
		교과서		지도서	교과서		지도서	
		책명	단원명		책명	단원명		
학교	학교와 친구 나	봄1-1 (가칭)	학교에 가면	통합교과1-1 (CD)	봄2-1 (가칭)	알쏭달쏭 나	통합교과2-1 (CD)	3월
봄	봄맞이 봄 동산		시끌벅적 봄 동산			봄이 오면		4월
가족	가족과 친척 다양한 가족	여름1-1 (가칭)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름2-1 (가칭)	이런 집 저런 집		5월
여름	여름맞이 여름 생활		여름 나라			초록이의 여름 여행		6-7월

주제별 교과서 각 책은 2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 단원을 한 달 학습하도록 편성하였다. 가령, 1학년 1학기 「봄」 책의 1단원, ‘학교에 가면’은 3월 한 달 동안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고, 2단원 ‘시끌벅적 봄 동산’은 4월 한 달 동안 ‘봄’을 주제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개의 학습 주제를 한 권의 책에 합본한 것은 1, 2학년 학생이 매일 교과서를 바꾸어 사용하면서 사소하게 교과서 관리 문제를 일으킨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둘째, 2개 이상의 교과를 통합하는 교과통합형 학습을 위한 기반을 강화했다.

교과별 수업과는 다르게, 교과를 통합한 주제별 학습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로 하는 요소가 있는데, 특히 통합을 준비하는 활동을 충분히 주는 것이다.

새 교과서는 주제 학습 모형에 의거하여 ‘주제 만나기→주제학습하기→주제 학습 마무리’로 전개한다.



주제 만나기는 교과들을 통합한 학습 주제를 만나는 시간으로 주제에 대한 공유 활동을 통하여 학생 개인 간 경험의 격차를 줄이고, 집단 학습이 가능한 수준으로 주제의 내용을 표준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즉 학생들로 하여금 단원의 학습 주제와 연관이 있는 개인적인 경험을 다른 학생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공유하는 활동을 통하여 배우고자 하는 학습 주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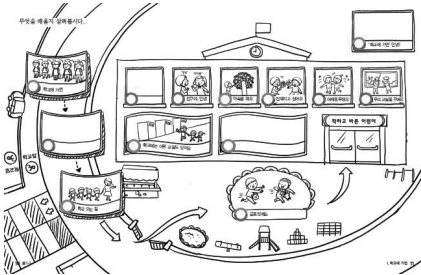
교과서는 ‘사진 읽기’, ‘단원 읽기’, ‘공부게시판’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사진 읽기 : 사진보며 주제에 대한 경험나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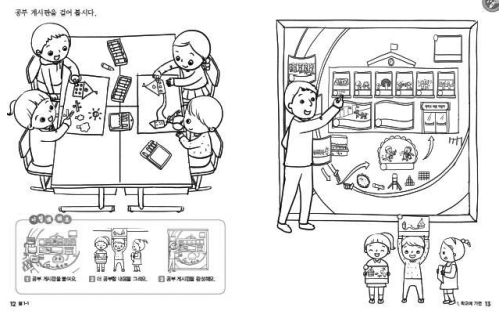
단원의 학습 주제를 표현하고 있는 사진을 학생들과 함께 보면서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교사는 학생 개인의 경험과 단원의 학습 주제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킨다. 이 때 교사는 학생들이 가지고 온 주제와 관련된 사진을 활용하면 더 효과적이다.

단원 읽기 : 차시 활동 살펴보기



학생들과 함께 단원에서 공부할 것을 살펴보도록 단원의 학습 주제만을 제시하였다. 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교과서에 만들어 놓은 수업을 수정, 확대, 축소, 변경, 제거, 재배치하면서 재구성할 수 있다. 특히 구성차시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추가할 수 있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수업을 계획할 수 있도록 교과서에 장치를 마련하였다.

공부 게시판: 학습의 전체 모습을 한 그림으로 조망하기



단원 읽기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교실에서 실제로 할 학습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공부 게시판을 만들어서 건다. 공부게시판은 학습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도록 해 주고, 과정 중 수업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초기의 계획은 늘 과정 중에 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동적인 공부 게시판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주제 학습하기에서는 교사와 학생은 ‘공부 게시판’에 계획한 수업(Lessons)을 하나씩 조정하면서 해 나가며 주제 학습을 진행한다.

• 표준 차시

교과서에 만들어 놓은 수업은 성취기준을 수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특히 교과서 개발자, 심의자 검토자 등 여러 관련자들이 참여하여 내용 검토를 하여 비교적 오류가 없는 표준적인 수업으로서 장점이 있는 반면, 구체적인 개별 교실 및 학생 개개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교과서에 만들어 놓은 수업은 교실에서 재구성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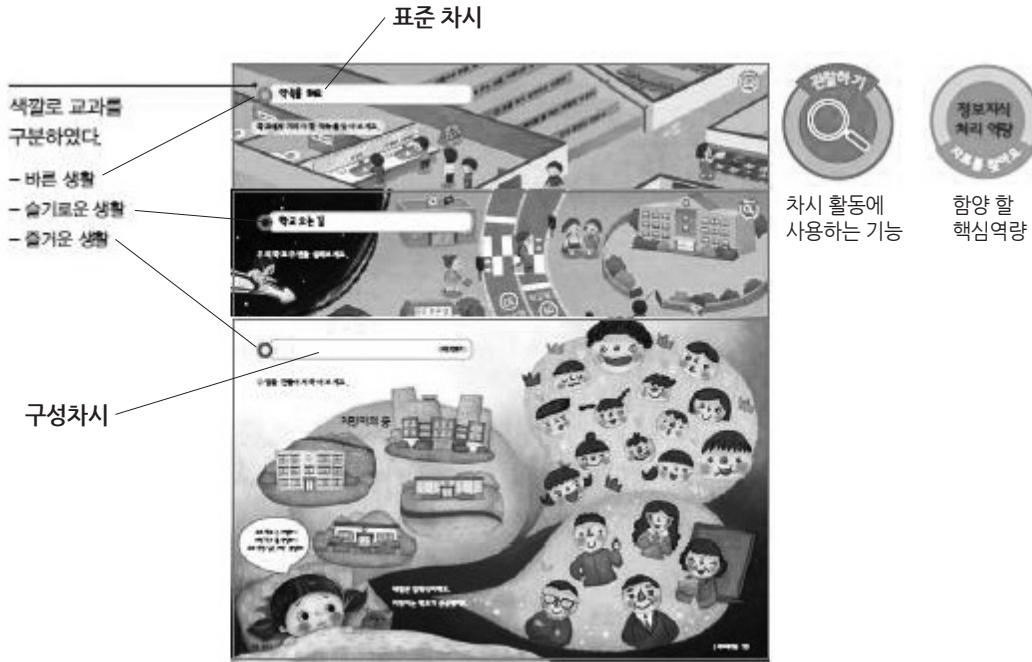
• 재구성 차시

교사는 교과서에 만들어 놓은 수업을 자신의 교실 학생, 학교 및 교실의 여건을 고려하여 재구성해서 수업할 수 있다. 가령, 교과서 차시의 순서, 활동, 소재 등을 적절하게 바꾸어서 할 수 있다.

• 구성 차시

교사와 학생이 일부 차시를 만들 수 있다. 교사는 교실에서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반영하면서 성취기준 범위를 고려하여 교실에 최적화된 수업을 만들어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새 교과서에서 표준차시는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단독 교과 차시도 있고, 2~3개 교과를 통합한 차시도 있다. 차시명을 표기하고, 교과를 색깔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차시 활동에 활용하는 기능과 핵심 역량을 표시하여 내용과 함께 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 가는 구성차시는 차시명을 비워 두고, 그림과 이야기를 넣어 차시 만드는 아이디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통합교과는 기본적으로 학생이 주제 및 교과 내용을 활동을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하게 한다. 이에 차시에서 학생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차시 수업을 40분 단위에서 80분 단위의 블록 차시 위주로 개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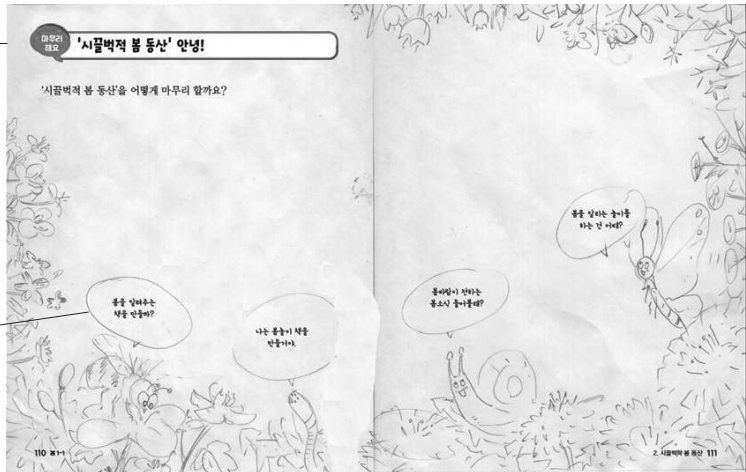
주제 학습 마무리하기는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학습한 주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단계로 단원 학습 전체 과정과 결과에 대한 성찰을 하면서 평가 및 종합한다. 그리고 새로운 학습 주제로 이동할 태세를 갖춘다.

- **최고조 및 마무리 활동하기**
 - 분위기를 최고조로 이끄는 활동을 통해서 단원의 주제 학습을 마무리한다.
- **단원 학습 성찰 및 종합하기**
 - 단원에서 한 활동들을 돌아보면서 성찰하고, 성찰한 것을 공유한다.
 - 단원의 학습을 종합 정리한다.
- **성취기준 중심의 평가하기**
 - 단원에서 학습한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학생의 성취 정도를 평가한다.

- 평가는 평가할 내용, 평가하는 사람, 평가 시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를 적절히 활용한다.

교과서에서는 단원의 학습 주제를 마무리하는 활동을 열어 두고, 지도서에 가능한 활동들을 제시하였다.

단원학습을 마무리합니다



가능한 활동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제 만나기와 주제 마무리는 주제 중심 통합 학습에서 통합의 기반을 튼튼히 해 준다. 이에 주제 만나기와 주제 학습 마무리 시수를 80분에서 120분으로 늘임으로써 교사와 학생이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함께 수업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구성차시를 활용하여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이 수업을 만들어서 추가하도록 하였다

구성차시란 2015개정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한 주제별 교과서에 도입한 교과서의 차시 중 하나이다. 즉 기존의 교과서 차시가 각 단원에 배정한 '성취기준'에 학생이 도달하도록 만든 전형적인 '표준적인 차시'라면, '구성차시'는 각 단원에 3-4개의 표준 차시를 교사와 학생이 수업을 만들어 추가할 수 있는 차시이다. 새 교과서는 교과서에 만들어 주는 수업을 교실 여건에 맞춰 재구성하는 교사의 자율권을 권장하는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차시 일부를 비워 두었다. 이렇게 비워 둔 차시는 교실에서 교사가 학

생이 학습하는 주제에 대해 학생이 하고 싶어 하는 요구를 받아 들여 수업으로 만들어서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구성차시를 둔 것은 무엇보다 주제 중심 통합 학습이 교실과 학생에게 친화적이면서 최적화된 방식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 교실에 최적화된 수업을 만들어서 추가함으로써 교실마다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교실마다 다양한 수업이라고 하더라도 교사가 주어진 주제와 성취기준을 가지고 구성차시를 활용하여 만든 수업을 판단하기 때문에 의미상 동일한 수업이다.

국가 수준에서 학교의 수업을 점차 학생이 참여하는 활동중심 수업으로 전환을 추구하고 있는데, 구성차시는 교사가 이런 변화요구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통해서 돕고자 한 것이다. 변화의 방향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교사의 실천이 동반되지 않으면 소용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가 지향하는 변화를 향해서 교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실천 방안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교과서를 활용한 지원 방식은 교사에게 무엇보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다.

두 번째 구성차시는 학교 수업에 학생이 참여하는 방식을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학교 수업 자체를 교사 중심, 강의식 및 설명식 수업 주류에서 학생 및 배움 중심, 학생 활동이 살아나는 수업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도 학교 수업을 협동학습, 토의 토론 학습, 프로젝트 학습, 주제 중심 통합 학습 등을 권장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학생의 수업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구성차시는 수업 자체에서 학생 활동의 비중을 높이는 식으로 학교 수업에서의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 수업 계획하기 및 수업을 만드는 데 학생을 참여시킴으로써 수업에서의 학생 참여 방식을 확대하고 있다. 즉 학생 활동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학생이 직접 수업을 만드는데 참여시킴으로서 학교 수업에 대한 주인의식, 책임감을 더 적극적으로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 활동 중심 수업을 지향하고 있지만 설명 중심 수업을 활동 중심 수업으로 전환하는 방식 외에는 교사가 수업에 학생을 참여시키는 방식은 그리 다양하지 못하다. 활동 중심 수업 외의 다른 형태에 대한 경험은 그리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교과서는 이런 교사와 학생을 도울 필요가 있다. 새 통합 교과서는 학생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교과서 자체

에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차시 수업을 학생 활동 중심으로 전환을 도모하는 일반적인 안내와 차시 순서 정하기에서 학생을 참여시키는 방안과 더불어 학생이 원하는 활동을 수업으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을 함양 시키는데 기여 할 것이다.

새 교과서에서는 교사가 구성차시를 활용해서 학생과 함께 수업을 만들어서 해 볼 수 있도록 2중의 장치를 하였다.

[구성 차시 활용 안내]

새 교과서는 구성차시를 단원마다 3개의 차시를 배치하고, 각 차시는 바른 생활 40분, 슬기로운 생활 40분, 즐거운 생활 40분을 배정하였다. 그렇지만 실제로 교실에서는 구성차시를 운영할 때는 2-3개의 교과를 통합할 수 있으며, 시간 또한 40분에서 120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장치1. ‘주제 만나기’에서 구성차시 반영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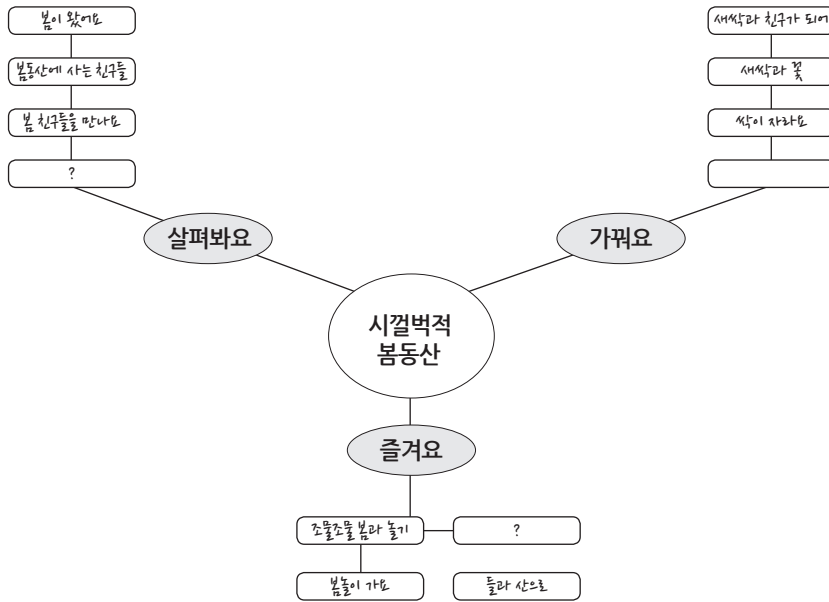
교사는 학생들이 하고 싶어 하는 차시 목록을 만들 수 있다. 이 목록은 구성 차시로 사용할 수 있는 후보 차시들이다.



즉 구성차시는 주제 만나기 차시에서 단원의 학습 주제망을 작성 과정에서 ‘공부 게시판’에서부터 반영할 수 있다. 또 수업이 진행 되는 과정에서 적절한 곳에서 임의 반영할 수도 있다.

[장치2. ‘구성 차시’ 페이지에서 차시 추가하기]

주제별 교과서는 각 단원에 주어진 주제학습을 위해서 하위 주제를 설정하여 학습 주제망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하위 학습 주제별로 학생들이 하고 싶어 하는 차시들을 추가할 수 있도록 3개 정도의 ‘구성차시’를 두고 있다. 여기서 교사는 수업을 추가 할 수 있다.



가령, 봄1-1 2단원 ‘시골벽적 봄동산’의 주제망은 ‘살펴봐요’, ‘가꿔요’, ‘즐거요’라는 하위 주제로 구분할 수 있다. 이 하위 주제별로 학생들이 하고 싶어 하거나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차시를 만들어서 적절한 위치에 추가해서 할 수 있다.

교과서에서 구성차시는 차시명을 비워두었다. 그리고 구성차시 페이지에서는 동화나 그림을 넣어서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구성차시를 만드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교사는 학생과 함께 교실에서 만든 차시명



을 만들어 넣고, 적절한 교과를 배정하고, 시간도 최소 40분(1차시)에서 최대 120분(3차시)까지 융통성 있게 배정하여 수업 한다.

4. 새 교과서에 대한 현장 및 교사 검토에 바란다

2015개정 교육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연구·개발하여 보급하는 새 통합교과용 도서로서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는 첫째, 현행 주제별 교과서를 유지하는 방향에서 개선하는 방식으로 개발하였다. 둘째, 이에 새 교과서는 주제 중심 통합 학습을 강화하였다. 가령, 소주제를 정비하여 학습하는 주제에 대한 몰입과 심화를 강화하고, 주제 만나기와 주제 학습 마무리하기를 활용하여 교과 통합형 주제 학습에 필요한 활동과 시간을 확대하고, 주제 학습 하기의 차시 시량을 학생 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80분 단위로 확대하였다. 셋째, 구성차시를 도입하여 교과서 자체에서 학교수업에 학생 참여 방식을 확대 도모 하였다. 수업 자체를 활동 중심으로 전화하는 것을 넘어서 교실에서 학생에게 최적화된 수업을 만들어서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수업에의 학생 참여 방식과 정도를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서 주제 만나기에서 학생이 하고 싶어 하는 수업 후보목록을 만들도록 하고, 학습 주제망의 하위 주제별로 구성차시를 두어 교실에서 만든 수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2중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에 새 교과서에 대한 현장 적합성 검토에서 기대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현장검토본을 학교 현장에 미리 적용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학습 주제를 한 권으로 묶어서 편찬한 주제별 교과 ‘봄(가칭), 여름(가칭), 가을(가칭), 겨울(가칭)’의 이름에 대한 좋은 의견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기존에 학기별 ‘한 주제 1권’으로 총 4권 교과서를 제공하던 방식을 ‘두 주제 1권’ 총 2권으로 변경하였다. 매달 교과서가 바뀌는 것이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에게 무리라는 의견과, 교과서 관리 문제를 야기한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학기당 2권으로 구분하였는데 두 가지 주제 ‘학교와 봄’, ‘가족과 여름’, ‘마을과 가을’, ‘나라와 겨울’을 묶어서 표현할 수 있는 주제별 교과의 이름을 현장에서 고민해주시기를 바란다.

둘째, 구성차시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기대한다.

새 교과서는 구성차시를 도입하여 한편으로는 주제학습 만나기에서 교과서 차시 순서를 조정하는 등 재구성을 넘어서 차시를 추가할 수 있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 구성차시를 배치하여 학습 하는 하위 주제별로 3개 정도의 차시를 만들어서 실제로 교실에 적절하고 학생이 원하는 차시를 추가해서 수업 하도록 하였다. 이에 새 교과서에서 도입한 구성차시가 학교 수업과 교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현장의 검토 의견을 기대한다. 그리고 교실에 적합한 수업을 교사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교과서 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어떤 방안이 있는지 여부 등 현장에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의견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셋째, 기타 고유한 현장 검토에 기대하는 의견은 다음과 같다.

- 교과서에 만들어 놓은 차시들이 학생의 흥미와 활동을 충분히 보장하는가?
- 보편적인 교실에서 하는 수업으로서 표준적인 차시들인가?
- 차시에 배정한 시량과 교과는 적절한가?
- 교과서 재구성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 유지해야 할 것, 보완해야 할 것, 폐지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등등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한국교원대학교 비슬출 주제별교과서 초등통합 편찬 위원회(2015). 초등학교 1, 2학년 통합 교과용 도서 개발. 편찬위원회 workshop 자료집.
- 강충열(2011). 2009개정 초등 통합교과 교육과정, 왜 탈학문적 접근인가: 발달적 관점에서 본 배경.
- 2009개정 초등통합교과 교육과정(시안) 공청회 자료집(pp. 1-25). 한국통합교육과정학회.
- 교육부(2016) 통합교과1-1 지도서(현장검토본). (주)지학사.
- 정광순(2010). 교육과정에 기초한 초등통합교과 지도. 양서원.
- Langeveld, M.J. (1984). How Does the Child Experience the World of Things? Phenomenology+Pedagogy. 2(3), 215-223.

필자소개

초등학교에서 10년간 교사로 살다가, 초등학교교육과정과 수업 분야의 연구자로 살고 있음
2007 개정, 2009개정,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1, 2학년 통합교과용 도서 개발에 참여해 왔음

국어 교과서 현장검토본의 특징과 활용



이 재 승

서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2015년 국어과 교육과정이 개정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가 개발되기 시작했다. 2017년에 1-2학년군을 투입하는 것으로 2018년에는 3-4학년군, 2019년에는 5-6학년군의 교과서가 전국의 초등학교에 보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2학년군 1학기 국어 교과서 현장검토본 개발이 사실상 완료된 상황이다.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편찬위원회에서는 그 동안의 풍부한 교과서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의 국어 교육 관련 교수나 교사 중에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현재 심혈을 기울여 교과서를 개발 중에 있다. 이전 교과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새 국어 교육과정의 정신을 교과서에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쉽고 재미있는 교과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과서, 학생들의 삶에 의미 있는 교과서를 개발하려고 노력 중이다.

여기에서는 1-2학년군 1학기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여 국어 교과서의 특징을 살펴보고, 학교 현장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국어과 현장검토본은 무엇이 바뀌었는가?

1) 국어 교과서의 외형 체제

- 학기별로 “국어” 2권, “국어활동” 1권으로 구성한다.
- 학기별로 “국어”를 가권, 나권으로 편찬한다.

2) “국어”와 “국어활동”의 관계

- “국어”는 주 교과서이며, “국어활동”은 보조 교과서이다.
- “국어활동”은 “국어”에서 배운 것을 연습을 통하여 내면화, 생활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 “국어”와 “국어활동”은 단원 학습 내용과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구성한다.

3) 국어 교과서의 개발 방향

- ① 핵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과서
- ② 자기 주도 학습을 강조한 교과서
- ③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하는 교과서
- ④ 통합적 언어 활동을 강조한 교과서
- ⑤ 실제 언어생활을 반영한 교과서
- ⑥ 텍스트의 생산과 수용을 강조한 교과서
- ⑦ 과정 중심 언어 학습을 강조한 교과서
- ⑧ 학습량을 적정화한 교과서
- ⑨ 다양한 학습 방법을 제시한 교과서

4) 국어 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제

(1) “국어”의 단원 구성 체제

단원 전개	성격	주요 내용														
<p>준비하기</p> <table border="1"> <tr> <td>차시</td> <td>2</td> </tr> <tr> <td>개발량</td> <td>4~6쪽</td> </tr> </table>	차시	2	개발량	4~6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원 도입 • 단원 학습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원 목표 관련 상황 제시(삽화, 사진) • 단원명 • 단원의 학습 목표 • 단원 도입 상황 질문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시 주요 활동명 제시 • 단원 학습을 위한 준비 활동(자기 점검, 단원 내용 요소인 지식·기능·태도 등 안내, 학습의 필요성 및 중요성 확인, 학습 계획 설계 등) • 언어 사용 상황 설정 • 단원 학습 내용 경험하기 										
차시	2															
개발량	4~6쪽															
<p>기본 학습</p> <table border="1"> <tr> <td>차시</td> <td>4~6</td> </tr> <tr> <td>개발량</td> <td>12~18쪽</td> </tr> </table>	차시	4~6	개발량	12~18쪽	<p><내용 요소 학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 학습 • 기능 학습 • 태도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시 주요 활동명 제시 • 차시 목표와 내용 특성에 따라 차시 내 전개 유형 및 차시 간 전개유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구성 <p>• 차시 내 전개 유형</p> <table border="1"> <thead> <tr> <th>학습내용</th> <th>교과서</th> <th>활동구성</th> </tr> </thead> <tbody> <tr> <td>지식</td> <td>[습득 중심 학습] 직접 교수형, 지식 탐구형 등</td> <td rowspan="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고→하기 • 하고→알기 </td> </tr> <tr> <td>기능</td> <td>[활용 및 수행 중심 학습]</td> </tr> <tr> <td>태도</td> <td>문제 해결형, 창의설 계발형, 반응 중심형, 역할 수행형, 가치 탐구형, 토의·토론형 등</td> </tr> </tbody> </table>	학습내용	교과서	활동구성	지식	[습득 중심 학습] 직접 교수형, 지식 탐구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고→하기 • 하고→알기 	기능	[활용 및 수행 중심 학습]	태도	문제 해결형, 창의설 계발형, 반응 중심형, 역할 수행형, 가치 탐구형, 토의·토론형 등
차시	4~6															
개발량	12~18쪽															
학습내용	교과서	활동구성														
지식	[습득 중심 학습] 직접 교수형, 지식 탐구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고→하기 • 하고→알기 														
기능	[활용 및 수행 중심 학습]															
태도	문제 해결형, 창의설 계발형, 반응 중심형, 역할 수행형, 가치 탐구형, 토의·토론형 등															
<p>실천 학습</p> <table border="1"> <tr> <td>지식</td> <td>2</td> </tr> <tr> <td>개발량</td> <td>2~6쪽</td> </tr> </table>	지식	2	개발량	2~6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학습 내용 요소의 심화, 확장, 새로운 맥락에서 활용 • 국어 핵심 역량 반영 학습 • 정리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시 주요 활동명 제시 • 국어 핵심 역량 반영 활동 • 단원 목표, 내용 특성, 국어 핵심 역량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과정 중심 활동, 통합적 국어 활동, 수준별 활동, 프로젝트 활동 등) <p>정리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원 학습 내용 정리, 평가, 피드백(되돌아보기) • 단원 학습 내용의 실천적 방안 제시(생활속으로) 										
지식	2															
개발량	2~6쪽															

<준비하기>

- ① 단원을 도입하면서 단원에서 학습할 내용을 확인하고, 단원의 주요 학습 내용과 단원 핵심 역량을 파악한다.
- ② 도입 면은 2쪽으로 구성하고, 1쪽에 단원명과 삽화 또는 사진을 이용하여 단원에서 다루는 언어 사용 상황이나 목적을 부각하여 구성한다.

- ③ 2쪽 하단에 단원에서 다루게 되는 언어 사용 상황과 주요 학습 내용에 대한 질문을 제시한다.
- ④ 단원 학습을 위하여 학생들의 준비도를 점검하고 학습을 계획하도록 한다.
- ⑤ 학생들이 단원과 관련된 배경지식을 확인하고 활성화하도록 하고, 자기 점검 질문을 통하여 학습을 위한 출발점을 이해하고 학습에 흥미와 필요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⑥ 단원 핵심 지식이나 개념을 제시하고 이해하는 활동과 단원 전체 학습을 계획하는 활동을 통하여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 ⑦ 학생이 자신의 주변 상황을 관찰하고 경험을 상기하면서 교육 내용을 인식하는 활동을 제시한다.

<기본 학습>

- ① 단원의 성취 기준 도달에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등의 기본적인 학습 내용 요소를 익히기 위한 학습이다.
- ② 학생의 생활과 다양한 경험을 학습과 연계하는 활동으로 동료와 함께 하는 협동 활동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인지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 ③ 단위 차시 학습 내에서 이해, 연습 및 적용이 이루어짐으로써 학습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 내면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
- ④ 차시 내 전개 유형은 개념, 규칙, 기능을 확인하고 이를 습득하는 형태의 학습(습득 중심 학습)을 하거나, 다양한 경험이나 자료 등에 대하여 탐구하고 개념, 규칙, 기능을 활용하고 수행하는 형태의 학습(활용 및 수행 중심 학습)으로 구성한다.

<실천 학습>

- ① 기본 학습에서 공부한 지식, 기능, 태도 등의 학습 내용을 통합하여 실제적인 국어 생활에서 심화, 확장함으로써 풍부하고 효율적인 국어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국어과 핵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지식, 규칙, 기능, 맥락 등을 통합적으로 적용하며 한 편의 텍스트를 이해하거나 산출하도록 한다.
- ③ 태도 관련 학습 내용이 학습자의 삶에 내면화되도록 한다.
- ④ 언어 사용의 과정을 중심으로 제시하며 통합 활동, 프로젝트 학습, 과정 중심 학습 등으로 구성한다.

- ⑤ 실제적이고 통합적인 언어 사용 능력을 길러 주며 언어 활동 결과물을 다양한 형태로 발표할 수 있게 한다.
- ⑥ 언어 사용의 과정을 중심으로 제시할 때 말하기와 쓰기의 경우에는 ‘내용 생성→내용 조직→표현→수정’의 순서로 제시하고, 듣기와 읽기의 경우에는 ‘읽기(듣기) 전 활동→읽기(듣기) 활동→읽기(듣기) 후 활동’의 순서로 제시한다.
- ⑦ 한 편의 작품을 읽고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성화하여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감상 활동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활동을 하여 정서적인 반응을 활성화하며 학습자의 삶에 내면화하도록 한다.
- ⑧ 재미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놀이를 통하여 실제적이고 통합적인 언어 사용 능력 향상에 기여한다.
- ⑨ 단원의 핵심인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평가한다.
- ⑩ 학생은 자신의 단원 학습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받을 수 있다.
- ⑪ 핵심 역량 학습 활동 및 태도 점검 활동으로 내용 단원 학습을 마무리한다.
- ⑫ 실천 학습의 특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천경록, 2015).

※ 실천 학습의 특성

특징	내용
수행성	지식이나 기능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맥락에 전이하여 수행함.
실제성	학생들이 학교 안과 밖에서 경험할 수 있는 국어 생활의 경험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현실의 흥미나 관심을 반영한 주제나 소재의 활동, 다양한 유형과 주제의 텍스트를 사용함.
통합성	국어 사용 기능과 문법, 문학적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학습함.
비판성	텍스트에 구현된 삶의 문제와 관련하여 현실의 문제를 개선하는 기회를 가짐.
장기성	학생들이 기본 학습에서 배운 내용을 중장기적으로 실천함.

- ⑬ 정리하기: 단원 전체 학습에 대한 정리 및 평가, 피드백 활동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
에 대하여 제시한다.
 - 되돌아보기: 단원 학습에 대한 정리 및 평가를 한다.
 - 생활 속으로: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활동을 한다.

(2) “국어활동”의 단원 구성 체제

단원 구성	성격	주요 내용
기본학습 연계활동 개발량 3 또는 5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어”의 ‘기본 학습’ 후 단원 연계 활동으로 확인, 연습, 자기 정착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 텍스트성 활동 감상 표현 활동 차시 평가 활동 쓰기 연습장 듣기·말하기 기록장 학습 내용 연습장 기초 어휘 학습 어휘 확장 활동 문장 쓰기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어 창의 인성 활동(공통)
기초 다지기 개발량 1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적인 국어 학습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음 학습 활동 글씨 바르게 쓰기(경필) 활동 어휘를 포함한 기초 언어 학습 활동

<기본 학습 연계 활동>: “국어” 교과서 연계 활동

- ① “국어”에서 학습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읽기 자료, 감상의 표현 활동, 차시에 대한 평가, 쓰기 연습장, 듣기·말하기 기록장, 학습 내용에 대한 연습장, 기초 어휘의 이해와 확장, 국어의 기초 능력 확장을 위한 학습 자료를 제시한다.
- ② “국어”의 제재, 작가, 주제 등 상호 텍스트성을 가지는 더 읽을거리를 제공한다.
- ③ 자신의 감상을 표현할 수 있는 활동과 학습한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여 단원 학습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스스로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④ “국어”의 제재에 제시된 어휘의 반의어나 유의어뿐만 아니라 감정을 나타내는 말, 색깔을 나타내는 말 등을 학습할 수 있게 구성한다.
- ⑤ 고유어나 우리말의 조어법 등으로 어휘력을 향상시키고, 문장 쓰기를 통하여 배운 어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기초 다지기>

- ① 학습의 기초를 다지기 위하여 그 학년에서 꼭 익혀야 하는 학습 내용을 제시한다. 그리고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구성한다.

- ② 글씨 쓰기, 소리 내어 읽기, 발음 학습 등을 지속적으로 학습함으로써 국어의 기초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글씨 쓰기의 경우 집필 자세, 필순, 낱자 모양, 낱자 간격, 글자 모양, 글자 간격, 문장 부호 등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발음 학습은 모음과 자음의 발음, 소리의 길이, 받침의 발음, 소리의 동화, 된소리되기, 소리의 첨가 등을 포함한다.
- ③ 다양한 차원의 통합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학습자가 국어과 핵심 역량(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자료·정보 활용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문화 향유 역량, 자기 성찰·계발 역량)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국어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서는 핵심 역량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학습 기능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학생들의 통합적인 활동과 관련을 맺도록 구성하고자 한다. 또 학생들이 스스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놀이 활동으로 구성하여 놀이를 통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국어과 현장검토본, 어떤 점이 바뀌었는가?

2009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교과서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단원 구성 체제의 변화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09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처음으로 적용된 ‘국어활동’ 교과서의 변화로 볼 수 있다. 물론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변화도 많이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크게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교과서 변화의 이유를 알아보도록 한다.

첫 번째로 논의할 것은 단원 구성 체제이다. 지금까지 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제는 5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이해→적용’의 틀로 굳혀진 이래, 그 단원 구성 체제가 변화된 적은 없다.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도입학습→이해학습→적용학습→정리학습’이라는 틀은 국어를 학습하는 데 가장 안정된 틀로 생각되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적용’의 틀에 대한 여러 가지 반론이 제기되어 왔고, 교과서 구성에서도 이러한 단원 구성 체제가 어울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틀에 맞추어 교과서를 무리하게 작성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2009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교과서도 이러한 단원 구성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교

과서 외형적인 질은 상당히 좋아졌으나 교과서 내 학습에서의 큰 변화는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것은 국어 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제가 ‘이해→적용’학습의 틀만 유지한 것이 큰 이유로 작용했다.

이러한 ‘이해→적용’학습의 틀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은 그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국어 교과서의 목표는 2015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국어 활동과 국어(문법)와 문학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국어 활동의 맥락을 고려하여 국어를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 문화를 누리면서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라고 설정하고 있다. ‘이해→적용’학습은 수렴적 성격이 강하지만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려면 학습자가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 하지만 ‘이해→적용’학습의 획일적인 틀에서는 그러한 창조할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하고, 인지적 활동, 즉 지식만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성취기준에서는 ‘이해→적용’학습을 통해 달성하기 불가능한 성취기준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독서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을 일상화하는 사람을 기르고자 하는 성취기준에서는 ‘이해→적용’학습의 형태를 가지고 이것을 달성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성취기준은 일상의 실제 언어 사용 상황에서 서로가 경험을 나누는 실천적 행위를 통해 그것의 가치와 요령을 체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성취기준을 달성하기에 훨씬 더 적합한 방법이 있음에도 ‘이해→적용’학습의 일괄적인 틀의 사용으로 그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해→적용’학습에만 맞추려고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실제 상황에서 언어를 사용할 때 그 원리는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고 모호하다. 학생들이 이러한 언어 사용 상황을 스스로 발견하고 체득해나가기 위해서는 ‘이해→적용’학습이라는 하나의 틀보다는 실제로 학생들이 그 상황을 경험해보는 실제 언어 활동을 통해 익히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업모형 차원에서 ‘이해→적용’학습의 문제점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이해→적용’학습에 가장 적합한 수업모형은 ‘직접교수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국어 교과에서 ‘직접교수모형’은 매우 필요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모형만 가지고 국어 교과 전체의 수업을 다 할 수 없다. 국어 교과에서는 직접교수모형 외에도 문제해결학습모형, 창의성계발학습모형, 지식탐구학습모형, 반응중심학습모형, 역할수행학습모형, 가치탐구학습모형, 전문가협동학습모형, 토의·토론학습모형이

있다. 이 학습 모형은 실제로 하나의 단원 구성 틀에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실제 언어 사용 상황에서 자유롭게 적용되어야 하는 수업모형들이다. 그러므로 이 수업모형들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괄적인 단원 구성 체제보다는 각 단원마다 적합한 단원 구성 체제에서 교사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해→적용’학습 구성에서 좀 더 개방적이고 실질적인 단원 구성 체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15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도입된 학습이 바로 ‘기본학습’과 ‘실천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본학습’과 ‘실천학습’은 2009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교과서의 ‘이해→적용’학습의 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기본학습’과 ‘실천학습’은 단순히 단원 전개 시 이루어지는 각각의 차시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기존의 ‘이해→적용’학습은 ‘기본학습’에서 쓰일 수 있는 하나의 학습 전개 유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실천학습’은 실제 언어 사용 상황에서 학생들이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실어 놓은 차시라고 볼 수 있다.

‘기본학습’은 학습해야 할 ‘지식, 기능, 태도’를 단 한 가지 유형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학습 유형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영역이다. 단원의 성취 기준 도달을 위해 본래와 같이 ‘이해→적용’학습의 형태로 할 수도 있지만 그것과 다르게 먼저 학생들이 언어 사용 상황을 경험해 보고 이러한 즐거운 활동을 통해 학생 스스로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학습 형태로 구성도 가능하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습득 중심 학습’은 개념, 규칙, 기능을 확인하고 이를 습득하는 형태의 학습으로 알고 하기라는 활동으로 구성되고 지금까지의 ‘이해→적용’학습의 틀과 같다. ‘활용 및 수행 중심 학습’은 다양한 경험이나 자료 등에 대하여 학생들이 개념, 규칙, 기능을 실제로 활용하고 경험하고 수행하는 형태의 학습으로 하고 알기라는 경험 중심의 학습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실천학습’은 2015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실제 언어 사용 상황’이라는 맥락에서 학습자들이 학습해볼 수 있는 경험을 줄 수 있도록 구성한 차시라고 할 수 있다. 기본학습에서 공부한 지식, 기능 태도 등의 학습 내용을 통합하여 실제 국어 생활에서 심화, 확장함으로써 풍부하고 효율적인 국어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에서는 실제적이고 통합적인 자료가 제시되며 언어 사용의 과정을 실제로 제시하여 체험해볼 수 있는 많은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단원 구성 체제를 통하여 지금까지의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좀 더 실생활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으며 재미있는 국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국어활동’ 교과서의 변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국어활동 교과서는 2009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최초로 등장했다. 역사적으로 처음 만들어진 교과서 이니만큼 문제점도 많이 제기되었다. 현장 교사의 인식이나 사용 실태를 중심으로 국어활동 불만족의 원인이 여러 가지로 나타났다. 그 이유 중 국어활동으로 인한 학습량 부담 증가 문제가 컸다. 이는 ‘국어활동’ 교과서의 실천학습이 배정된 차시에 비해 교과서에서 요구하는 학습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그리하여 2015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국어활동’ 교과서에서는 학습량 감축과 ‘국어’ 교과서와의 유기적 관련성에 초점을 두어 변화를 꾀하였다. 우선, 교과서의 쪽수를 예전 국어활동 교과서에 비하여 상당히 줄였다. 학기별로 2권씩 편찬되었던 국어활동 교과서를 학기 당 1권씩 나오고 그 한 권의 쪽수도 예전에 비해 삼분의 일 수준으로 감축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어 교과서와의 연계성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기본 학습 연계 활동’ 부분 코너를 두어 국어 교과서에서 ‘기본 학습’을 마치고 난 후에 국어 교과서에서 학습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읽기 자료, 감상의 표현 활동, 차시에 대한 평가, 쓰기 연습장, 듣기·말하기 기록장, 학습 내용에 대한 연습장, 기초 어휘의 이해와 확장, 국어의 기초 능력 확장을 위한 학습 자료 중 선택하여 워크북 형태로 제시하였다. 2009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국어활동 교과서에서는 ‘생활 속에서’ 코너를 제외하고 다른 여러 코너에서 국어와 연계되지 않은 자기 주도적 학습 코너를 만들었지만 2015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국어활동 교과서는 국어 교과서와의 유기적 관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과서를 구성한 것이다.

또한, ‘기초 다지기’ 코너를 신설하여 학습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그 학년에서 꼭 익혀야 하는 학습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학습 부담이 거의 없는 1쪽 정도 구성으로 단원 관련 학습을 먼저 끝마친 학생이 수업 시간 중에 간단하게 학습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구성된 양이다. 여기에서는 글씨 쓰기, 소리 내어 읽기, 발음 학습 등을 지속적으로 학습함으로써 국어의 기초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이외에도 기초 다지기 코너에는 다양한 차원의 통합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학습자가 국어과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국어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놀이를 통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번 2015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가장 중요시한 점은 텍스트의 수용과 산출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활동을 구성하고 학생들의 실제 언어 사용 상황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를 위해 반복되는 성취 기준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학습 내용과 방법을 다양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해·적용’학습의 일괄적인 단원 전개 방식에서 벗어나 실생활과 계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단원 구성 체제를 적용하고, 국어활동의 불만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쪽수를 과감하게 줄이고 워크북 형태로 변화를 주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 학생들이 지금까지의 국어 교과서보다 실질적으로 국어과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이다.

3. 국어과 현장검토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1) 국어 교과서의 활용 방안

(1) 교과서 활용의 원칙

- ① “국어”와 “국어활동”의 관계는 주 교과서와 보조 교과서의 관계이다. “국어활동”은 “국어”의 보조 교과서로서 “국어”에서 공부한 것을 생활(학교, 가정, 사회) 속에서 내면화하고 실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 ② “국어”와 “국어활동”은 국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사와 학생의 사용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어 시간에는 원칙적으로 한 교과서로 수업하도록 하였다.
- ③ 각종 학습 도우미나 학습 기호 등의 역할을 익혀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교사 학습 도우미: 활동 과정에서 익혀야 할 지식이나 개념을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학생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 원리를 이해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일종의 단서를 제시한다. 학습 원리를 상위 인지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의 활동을 점검하여 보도록 안내하는 질문을 제시한다.

- 학생 학습 도우미: 학생들 간의 적극적인 상호 작용을 통하여 의미를 구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기능을 한다.
- ④ 국어 교과서는 언어 활동의 통합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학습 단위로 두 차시 이상의 수업을 구성하고 있다. 즉, 하나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데 두 차시 이상의 분량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 수업을 반드시 연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사는 국어 수업을 하루에 연이어 할 수도 있고, 하루에 한 차시 수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나머지 한 차시 수업을 할 수도 있다. 두 차시 이상의 수업일 경우 “국어 교사용 지도서”의 ‘이렇게 운영해 봅시다’의 수업 운영 방안을 반드시 숙독하여야 한다. 단위 차시에 해당하는 학습 내용을 진술하여 두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수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⑤ 교과서에 실린 제재나 학습 활동 등은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안하였지만 모든 학급의 수준을 반영하는 것은 무리이다. 열린 국어 교과서관을 가지고 난이도와 흥미 면에서 우리 반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적절히 재구성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 ⑥ 지면 관계로 작품 전체를 실을 수 없는 경우, 가능하면 학생들에게 작품을 찾아 전체를 읽어 보도록 권장하는 것이 좋다.
- ⑦ 국어과 핵심 역량은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자료·정보 활용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문화 향유 역량, 자기 성찰·계발 역량이다. 이러한 핵심 역량을 “국어”의 단원별 특성을 감안하여 단원별로 반영하였으며, 이를 “국어”의 단원 도입 면에 제시하였다. 따라서 단원을 공부할 때 해당하는 국어과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⑧ 2015 교육과정에 따르면 1~2학년군 국어과의 기준 시수는 448시간이지만, 그중 5 퍼센트 내외의 시수는 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교과서 수업 시수를 줄여서 개발하였다.

(2) “국어” 교과서 활용 방안

- ① 국어 학습의 순서는 일반적으로 “국어”의 준비하기, 기본 학습, 실천 학습의 순이다. “국어활동”의 ‘기본 학습 연계 활동’, ‘기초 다지기’는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 한다. 물론 “국어활동”에 있는 이 내용을 “국어”수업 시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 ② “국어”의 한 단원을 학습하고 이와 연계하여 “국어활동”을 학습한다.
- ③ “국어”의 차시 학습 목표의 성격과 차시 분량을 파악하고 수업하여야 한다. 준비하기인지, 기본

학습인지 구분하도록 시각적인 기호로 명시하였다. 준비하기는 주황색 차시 아이콘으로, 기본 학습은 초록색 차시 아이콘으로, 실천 학습은 보라색 차시 아이콘으로 제시되어 있다. 또, 차시 분량은 차시 아이콘의 오른쪽에 있는 별의 수로 파악하면 된다.

(3) “국어활동” 교과서의 활용 방안

① 국어활동” 교과서가 필요한 까닭은 다음과 같다.

- “국어”에서 학습한 것을 자기 주도적으로 실천, 적용, 연습하여 봄으로써 공부한 것을 내면화, 습관화한다.
- 한 단원으로만 해결할 수 없고 수시로 해야 하는 활동들(발음, 글씨 쓰기, 우리말 이해)을 꾸준히 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국어 사랑의 정신을 기르고 국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기본 학습을 강화한다.

② “국어”의 기본 학습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국어활동”의 ‘기본 학습 연계 활동’을 학습할 수 있다. “국어”의 기본 학습이 시작하는 시점에 “국어활동”의 ‘기본 학습 연계 활동’에 해당하는 쪽을 명시하였다.

③ “국어활동”의 활동은 주로 국어 수업 시간에 활용하되, 자율 학습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④ “국어활동”에 대한 답안은 “국어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되어 있다.

2) “국어 교사용 지도서” 활용 방안

“국어 교사용 지도서”는 교과서의 학습 내용을 안내하고, 학습 내용의 지도에 필요한 교수·학습 과정의 예를 제시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편찬하였다. 따라서, 해당 차시의 교수·학습 모형, 교수·학습 과정, 교수·학습 기법이나 전략, 교사의 발문과 예상 반응 내용을 고정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따라야 할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국어 교사용 지도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국어 교사용 지도서”의 첫 부분인 ‘국어과 교육의 이해’는 국어 교육 전반에 대한 이해를 위한 것으로 반드시 숙지하도록 한다.

② ‘교수·학습의 실제’에 제시된 내용을 숙지하여 해당 단원이나 차시의 학습 목표와 내용을 왜 가

르쳐야 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며,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하여야 하는지 명확히 파악한 뒤에 수업을 한다.

- ③ ‘교수·학습의 실제’에 제시된 교수·학습 과정은 하나의 예를 제시한 것으로 교사가 학급 상황에 알맞게 변형하여 사용한다.
- ④ ‘단월별로 특정한 교수·학습 모형을 하나 정도 예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차시에서도 다른 모형을 적용할 수 있고 특별히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지 않은 차시에서도 특정 교수·학습 모형을 적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⑤ ‘교수·학습의 실제’의 ‘교수·학습 활동’에 적용한 교수·학습 모형은 교사 주도의 교수·학습 모형으로 대체할 수 있다. 교수·학습 모형을 선택할 때에는 차시의 성격, 차시의 학습 목표, 학습 내용의 난이도, 교수·학습 능력, 교수·학습 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 ⑥ ‘교수·학습의 실제’의 ‘교수·학습 활동’에 적용한 교수·학습 모형은 그 적용 단위가 반드시 40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면 배치 문제와 현장 활용성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40분 단위로 하나의 모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하나의 학습 문제를 두세 차시에 걸쳐 다루는 연속 차시의 경우 각 차시마다 별개의 교수·학습 모형을 적용하기보다는 하나의 교수·학습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연속 차시의 경우에는 학급의 교육과정 운영 형편에 맞게 적절하게 재구성하여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 ⑦ ‘교수·학습의 실제’의 ‘교수·학습 활동’에 적용한 교수·학습 모형은 수업을 보다 짜임새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교수·학습 계획 시에 각 모형의 단계별 절차와 수업 내용 및 활동을 상호 부합되게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수·학습 모형의 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실제로 수업을 짜임새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 ⑧ ‘부록’의 내용은 평소 여러 차례 읽어 숙지한 뒤에 필요한 곳에서 적절히 활용한다. 부록의 내용 항목은 학년별로 차이가 있는데, 해당 학년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4. 맺음말 : 국어과 현장검토본을 통해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1, 2학년 저학년 수준에 적합한 학습활동이 구현되는 것이다. 지식을 가르치고 적용하는

일률적인 패턴과 고정적인 활동을 지양하고 학생들이 실제 언어생활과 비슷한 맥락에서 직접 즐겁게 경험하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재밌게 언어를 사용해서 놀면서 지식 학습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언어 사용 상황을 중심으로 학습을 해 나갈 것이며, 무엇을 꼭 배워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사용 상황을 직접 경험해나감으로써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배워야 할 것을 놀이를 통해 학습하는 것이다.

또한, 텍스트에서 학습이 이루어질 때도 텍스트에서 단편적인 지식만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중심으로 학생들이 제시된 글의 종류와 특징을 학습하고 글을 읽도록 구성했다. 이는 텍스트의 수용과 산출 기능이나 전략의 습득뿐만 아니라 텍스트 장르에 이를 활용하여 이해와 표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텍스트를 겹핥기식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완결된 텍스트를 수용하고 산출하는 활동을 통하여 실제 언어 사용 맥락과 관련된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제대로 된 한글 학습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2015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한글 학습이다. 2009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본래 자음자와 모음자를 한 번에 가르치고 한글 학습 단원이 두 단원이었던 것을 이번에는 따로따로 가르치고, 학습 단원도 늘렸다.

학생들은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서 한글 해득이 이미 된 학생들과 한글 해득이 되지 않은 학생들로 갈라진다. 이번 2015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한글 해득이 됐든 되지 않았든 학생 모두가 즐겁게 한글을 공부할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글 해득이 된 학생들에게는 한글 자모음 체계나 음가에 대해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구성되었고 한글 해득이 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한글의 기본적인 기초를 익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이것을 서로 나누어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실제 언어 사용 상황과 비슷한 맥락에서 즐겁게 활동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2015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한글 학습을 많이 늘린 이유는 실제 생활 속에서 학생들이 우리 글자 자체에 대해 즐겁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이다. 글자의 모양과 소리에 관심을 갖고 이후의 글자 학습과 많은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기대하는 바가 현장에서 국어 교과서를 통해 완전히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의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 문화를 충분히 누리면서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창원 외(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1,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신현재 외(2014).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개발 과정과 전망. 미래엔.
- 이재승(2013). 초등학교 새 국어 교과서의 특징과 활용 방안. 청람어문교육 47. 청람어문교육학회.

필자소개

대구교대 국어교육과 교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 한국교원대, 연세대, 고려대 강사, 2011년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개발 책임을 역임, 지은책: 좋은 국어 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 글쓰기 교육의 원리와 방법

수학 교과서 현장검토본의 특징과 활용



김 판 수¹⁾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수학 1-2학년 군 1학기 교과서 작업이 지난 해 겨울의 문턱에서 출발하였지만 겨울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미 중반을 넘어섰다. 초등학교 수학 교과용도서 편찬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집필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짧은 기간에 과연 책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많이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 걱정이 채 가시기도 전에 중간 결과물인 현장 검토본이 나왔다. 그 동안 이루어졌던 수많은 아이디어 회의와 검토 작업이 이루어졌음에도 이 도서를 접하게 될 학생과 교사의 반응이 어떨까하는 기대와 우려가 필자의 마음속에서 빠르게 교차한다. 수학과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대학 입시와 진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수학과 학생, 교사, 학부모, 여러 단체와 언론기관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는 교과이다. 뿐만 아니라 교과서는 현직 교사, 교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예비 교사, 교육자, 그리고 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연구자에게는 탐구의 소재가 된다. 초등수학 교과서가 한 종류뿐이라는 점 때문에 교과서가 갖는 무게를 쉽게 느낄 수 있다.

국정 교과서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분야로 구성된 관련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엄정한 검토와 심의를 받는다. 지금 개발되고 있는 초등수학 교과서도 집필자가 처음 의도하였던 여러 가지 새로운 교수방법의 시도

1) 2015개정 초등학교 수학 교과용도서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연구 집필진, 편집·삽화진, 검토·협의진 등을 자체 구성하여 편찬하고 있다.

와 개선 방향이 처음보다는 무디고 과거의 우리에게 익숙하였던 그리고 검증되고 공인된 기존 방법으로 회귀되었다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 교과서 체제에서는 집필자 개인의 철학이나 특이한 교수기법이나 도구의 도입이 제한되었다.

현장검토본은 임시 교과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그 모습을 세세히 소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다만 교과서 개발의 방향이나 그 의도는 내년에 나올 새 교과서에도 거의 그대로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여러분들이 새 교과서 개발의 방향과 미래 교과서의 모습을 그려보는 흥미를 제공하고, 또한 이러한 방향성에 대한 독자의 조언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1.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개발의 필요성

2015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비전은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개정의 방향은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균형 잡힌 인재의 양성이다. 2015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총론이 추구하는 방향성을 반영하고, 수학과 교육과정의 국제적 동향을 반영하여 개정 방향을 ‘수학 교과 역량의 구현’, ‘학습 부담 경감 추구’, ‘학습자의 정의적 측면 강조’, ‘실생활 중심의 통계 내용 재구성’, ‘공학적 도구의 활용 강조’의 다섯 가지로 선정하였다(한국과학창의재단, 2015). 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마지막 두 가지는 초등학교 1-2학년에서 다루기 힘든 내용이므로 논의에서 생략한다.

가. 학습 부담 경감 추구

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작업이 교과서 개발이다. 특히 각 학년에서 다루어야 할 학습 내용의 이동, 추가, 삭제를 반영한 교과서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2015개정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교육과정 역사에서 10번째 개정이다. 수학교과에서는 한 두 번의 개정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개정에서 내용의 축소가 이루어졌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현재 3학년에서 6학년 사이에 배치된 학습 내용이 삭제되거나 상위 학년으로 이동되었다. 뿐만 아니라 학습 내용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거나, ‘평가’방법 및 유의‘사항’을 통한 평가의 가이드라인,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통해

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 교과 역량의 강조

이번 교육과정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이 ‘교과 역량’의 등장이다.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이 수학 내용 지식과 더불어 ‘문제 해결’, ‘추론’, ‘창의·융합’, ‘의사소통’, ‘정보 처리’, ‘태도 및 실천’의 6가지 수학 교과 역량을 길러야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이를 교과서에 반영시켜야 한다.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수학적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문제해결, 추론, 의사소통이 강조된 바 있다. 과거에는 수학적 내용 자체가 학습의 목표가 될 수 있었지만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의 인지적 능력을 기르도록 하였다. 다시 말해서, 아이즈너와 밸런스(Eisner, Vallance, 1974)가 제시한 교육과정의 지녀야 할 철학의 차원에서 본다면, 이는 전형적으로 학교교육과정에서 중시해 온 ‘학문적 합리주의’에서 ‘인지적 과정 발달’이라는 관점의 중시로 볼 수 있다.

다. 학습자의 정의적 측면 강조

TIMSS(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와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 :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와 같은 기관에서 실시한 학업 성취도 국제비교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의 점수는 최하위 권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내적 동기, 수학에 대한 자아 효능감, 수학에 대한 자아 개념, 자신감, 즐거움, 가치인식 등에서 낮은 순위에 있으며, 수학 학습에서는 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 인성, 자신감, 즐거움, 성공 경험을 통해서 수학에 대한 가치와 의지를 갖게 할 필요가 있다.

2009개정에서는 스토리텔링이 그 대안이었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스토리텔링이 학습 동기유발과 의사소통, 수학내용의 학습지도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그리고 학생들 역시 ‘스토리텔링은 재미있다’, ‘학원공부와 다르다’ 등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안병곤, 2014). 한편 스토리텔링의 문제점으로는 학생들이 수학적 내용보다 이야기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스토리에 치우쳐 기본 연산 훈련이 부족, 또한 도입과정에서만 흥미를 유발한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권종겸 외, 2013). 따라서 스토리텔링의 장점을 살리고 개선할 것이지만 하나의 스토리로 한 단원 전체를

이끌어가거나 자연스럽게 못한 스토리텔링은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방법과 표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라. 기타 요구 사항

개정의 주요 현안은 아니지만 현행 교과서와 관련된 연구나 여론 조사 등에서 나타난 개선점은 다수 있다.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에서부터 학습자의 수준과 현실 맥락을 고려한 소재 선정의 필요성, 기본 연산의 연습 강조, 용어 정의에 대한 적절한 표현 마련,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어휘 및 문장 사용 등이 제기되었다.

2. 새 교과서의 개발 방향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 현재 1~2학년군의 초등수학 교과서를 개발하면서 현 교과서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의 변화와 시대적 요구, 그리고 현장 적용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궁극적으로 수학을 더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집필자가 설정한 교과서 개발 방향을 크게 6가지로 요약해 본다. 이들 방향은 학년에 따라 강조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가. 교육과정에 충실한 교과서

새 교과서는 2015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이므로, 2015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담겨 있는 성격,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을 반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특히 앞서 제시한 교육과정의 개정방향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나. 흥미롭고 쉽게 배울 수 있는 교과서

수학은 그 특성상 쉽게 배울 수 있는 교과가 아니지만 교수방법의 개선을 통해 학생들이 수학을 더 쉽고 그리고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교과서 체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다. 가볍고 친근한 교과서

현재 사용 중인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는 상당히 무겁다는 지적이 있다. 보충 차시가 있어 교사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놀이마당과 창의마당이 있어 좋은 면이 있지만 페이지가 많고, 특히 부록에 실린 준비물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는 불평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교과서적이라는 말이 있듯이 전통적으로 교과서의 문장이 아동들에게는 딱딱해 보일 수 있다. 문장과 그림 등 교과서의 내용이 학생의 입장에서 표현될 필요가 있다.

라. 타 교과나 영역의 연계성을 강화한 교과서

수학적 연결성은 NCTM(미국, 캐나다 수학교사협회: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Mathematics)(1989)에서 강조하는 주요한 수학적 기준 중 하나이다. 여러 가지 개념을 통합하고 적용하는 창의 융합을 강조하는 최근의 교육 방향과도 일치한다. 또한 우리나라 교과서는 2쪽 1차시 형태의 차시별 구성을 중시한다. 예를 들면 ‘자료와 가능성’ 영역에서 자료의 조사와 분류까지를 두 개의 개별차시로 두기보다는 통합차시로 두어 학습활동의 이해를 높일 수 있고 학습 효과도 높일 것이다. 외국 교과서의 경우, 곱셈구구의 2, 3, 4단 등을 차시별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학습하기도 한다.

마. 자기 주도적 학습을 이끄는 교과서

이성섭 외(2015)는 현행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를 외국 교과서와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교과서가 전반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기에 적합한 교과서이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였다. 선수 학습요소의 부족, 교과서 또는 익힘책에 목표 달성을 위한 안내 부족, 충분한 연습의 기회 부족, 단원의 초입과 말미에 다른 단원이나 내용과의 연계성을 설명해 주는 내용 부족 등이 그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저학년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바. 풍부한 보조 자료를 제공하는 지도서

지도서는 일반적으로 수학과 교수-학습 제반 이론에서부터 학기별 지도계획, 차시별 지도 계획에 이르기까지 수학 교수-학습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한다. 2009개정 교과서에서는 교과서 파일이 공유되지 않아 수업을 할 때 불편함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교사가 이

용하기 편리하며 활용성이 높은 지도서를 추구하며, 추가적으로 교과서, 익힘책, 그리고 지도서 내용, 다양한 평가 자료, 활동에 필요한 자료집이나 전자 저작물 등의 자료제공이 요구된다.

그 외에도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충실히 반영하는 내용 선정, 단원의 성격에 따라 융통성 있는 차시 구성, 본 차시 학습에 앞서 선수학습을 확인할 수 있는 코너 마련, 단원에서 학습한 수학 개념을 연결하여 통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코너 마련, 창의마당 활동에 대한 활용도 제고, 학생들이 연습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교과서 지면 확대, 교사와 학생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높일 수 있는 친숙한 캐릭터의 지속적 사용 등이 지적되었다.

3.1-2학년군 초등 수학 1학기 현장검토본 소개

현장 검토를 위한 교과용도서는 내년에 나올 새 도서의 초안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현장검토본의 특징을 통해서 새 책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교과서, 익힘책 및 지도서의 순서대로 그 특징을 기술한다.

가. 교과서

현장검토본 교과서의 외형적 특징으로 경량화를 들 수 있으며, 내용적 특징으로는 아동 친화적 표현 사용, 학생중심 활동의 강화, 쉽게 배울 수 있는 내용과 전개를 들 수 있다.

1) 경량화

외형적으로 페이지 수와 무게 면에서 그리고 학습할 내용 면에서도 경량화가 이루어졌다. 판형은 국배변형판(210×270)으로 기존 교과서와 동일한 크기이지만 현장검토본 교과서는 150 페이지 내외로 기존의 교과서에 비해 가벼워졌다. 그리고 붙임딱지, 카드 등의 수업 보조 자료를 꼭 필요한 경우에만 넣기로 하여 준비물 꾸러미를 대폭 줄였다.

한편 2009개정 교과서에서는 20%까지 차시를 증감 운영할 수 있도록 보충차시를 개발하여 제공하였으나, 2015개정 현장검토본 교과서에서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문항의 난도를 낮추고, 보충

차시를 개발하지 않고, 기존차시보다 적게 개발하였다. 실제로 약 6% 축소한 64차시(1학년 1학기는 49차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학급의 연간 시수 운영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또한 집필진을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함으로써 지역 학생들의 수준을 반영하고 보편적인 소재와 난이도가 구현되어 보다 편안하게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 두 교과서의 페이지와 개발 차시 비교

개정 도서	학년-학기	교과서 페이지	준비물 꾸러기(장)	개발 차시
2009개정 교과서	1-1	180	17	52
	2-1	239	21	68
2015개정 현장검토본 교과서	1-1	123	2	49
	2-1	149	5	64

2) 교과역량 구현을 위한 단원의 구성과 특성

교과서의 체제 면에서 가장 큰 특성이 단원의 구성과 각 단원 내에서 차시의 구성이다. 1학년과 2학년에서 단원의 수와 배열에서 기존 교과서와 큰 차이가 없지만, 1단원 시작 전과 마지막 단원을 마친 후에는 한 차시 분량으로 수학 활동을 배치하였다. 각 학기의 수업 시작 전에 수학에 대한 흥미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일종의 마음 열기인 ‘수학은 내 친구’를 구성하였다. 이번 학기 수학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가볍게 위밍업을 하면서 공부할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이다.



[그림 1] 교과서의 체제구성

마지막 활동인 ‘수학으로 세상 보기’를 그 동안 배웠던 수학 내용을 토대로 다양한 실생활 연계 활동, 주제 중심 활동으로 구성하면서, 학년 수준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재밌는 활동으로 만들려고 했다. 이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수학의 유용성이나 수학을 배우는 이유를 알게 함으로써 수학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기대하며, ‘수학적 태도와 실천’을 함양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제 단원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자. 단원 도입은 단원 전체의 학습 성격을 처음 보여주면서, 동시에 학생들이 단원 학습의 흥미와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단원이 시작되는 첫 두 페이지에는 단원명과 동기 유발 자료, 큰 질문(Big Question)이 제시된다. 동기 유발 자료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활용하여 기존의 이야기나 생활 주변의 이야기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스토리텔링 방식을 사용하거나, 단원 학습 내용과 관련된 수학사나 일화 등 다양한 방식을 이용하였다. 2015개정에서는 기존 교과서에서 우수한 스토리텔링 자료를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지만 하나의 스토리로 단원 전체를 구성하는 현행 방식은 적합한 단원에만 선택적으로 적용하였다.

놀이수학을 개별차시의 중간에 넣으므로 개별차시에서 배운 내용을 확인하고 연습하는 기회로 삼았다. 특히 저학년에서는 수 연산 영역의 내용이 많고 단순 반복 연습을 통해 개념숙달과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또래 협력을 통해 재밌게 숙달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필자는 수학에 대한 역량은 능숙한 기초·기본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그림 2] 교과서 단원 구성 체계

단원평가 후 맨 마지막 차시에서 다루어지는 탐구수학은 그 단원에서 배운 내용이나 타 영역과 연계한 소재로써 의사소통을 강조한 협력학습이나 프로젝트, 문제해결 등을 수행하면서 개별차시에서 다루기 힘들었던 심화문제나 사고를 요구하는 활동을 하면서 교과역량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각 단원의 탐구수학에 대해 6개의 교과 역량 중 어떤 역량이 더 많이 강조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육각형 아이콘에 6가지 색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저학년임을 감안하여 문제의 설명이나 활동방법을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3) 아동 친화적 도서

객관적이고 엄밀하며, 가치중립적이며 비감성적 주제를 다루는 수학에서 흥미로운 수업은 학습자의 오랜 바램이었다. ‘수학에는 왕도가 없다’는 유클리드의 일화 그리고 2009개정 교과서의 특징인 스

토리텔링의 도입도 그러한 취지이다. 이번 교과서 작업에서 딱딱한 교과서의 전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는 표현이나 형식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의도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첫째, 캐릭터의 사용과 언어적 표현이다. 현행 교과서에서도 전체 교과서에 나타나는 ‘뽀미’와 ‘뽀우’가 있지만 다양한 등장인물로 인해 캐릭터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장 검토를 위한 교과서에서는 2명의 남학생과 2명의 여학생, 그리고 남녀 선생님 한 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학생들이 등장하는 수학적 상황이나 문장에서 이들 학생들의 이름(수일, 도일, 수영, 도영)은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두 명의 남학생 중에서 한 명은 다문화 가정의 학생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그림3] 1-2 학년 교과서에서 사용되는 캐릭터




[그림 4] 말풍선과 구어체

둘째, 언어 수준의 적절성과 아동 친화성을 지향하고 있다. 저학년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언어 사용과 그 표현 방법에서의 변화이다. 예를 들면, 각 단원에서 차시명을 ‘~까요’와 같이 의문형으로 바꾸었으며, 각 활동은 ‘~봅시다’, 하위 문장에서는 ‘~보세요’로 두었다. 또한 잦은 말풍선과 구어체 사용인데, 이번 현장검토본에서는 학급에서 아동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구어체 표현을 말풍선 형태로 처리하여 교과서와 아동과의 친밀도를 높여 주었다.

4) 규격화된 형식 탈피로 학습 효율 강화

2015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예민하게 논의된 것이 ‘수학 학습에 대한 학생의 부담’과 그리고 그에 관련된 사회적 문제였을 것이다. 과거에도 수학은 배우기 힘들고 학습할 내용이 많다는 불평은 끊임없었다. 과도한 교과 내용을 담은 교육과정도 지양하지만 국제 수준의 수학과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번 교과서 개발에서는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수 학습 방법을 채택하고 개발하는 데 방해가 되는 일률적 형식을 탈피하고자 하였다.

- 다소 억지스러운 스토리텔링 내용을 축소하거나 개선하였다. 우수한 스토리텔링을 유지하지만 페이지 수나 내용을 축소하고 대신 학습 내용을 보완하였다.
- 모든 개별차시에서 ‘생각열기’, ‘활동1’, ‘활동2’, ‘마무리’ 등으로 지칭했던 것을 각각의 활동이 지나치게 단계적 의미를 지니지 않고 교사가 융통성 있게 수업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아이콘 방식인  으로 대신하였다.
- 두 차시 분량의 연차시 도입을 권장하였다. 분절화된 차시별 수업의 단점을 보완하고 개념이나 절차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1학년에서 선수학습이 요구되지 않는 단원에 대해서는 단원도입을 하나의 차시로 두지 않고 그 다음차시와 묶어서 1차시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 ‘놀이 수학’이 개념 확인이나 기술의 숙달에 초점을 두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학습의 전환을 위한 동기유발이나 분위기 전환으로 활용할 수 있고, 위치도 개별 차시 중간쯤에 넣지만 각 단원의 성격에 맞게 단원평가(얼마나 알고 있나요) 바로 앞에 넣어서 협력학습이나 창의·융합을 위한 차시로 두었다. 또한 ‘탐구 수학’도 그 단원의 성격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수업 방법을 도입했다.

5) 구체적 조작물이나 교구의 활용

이번 현장검토본 교과서에는 준비물 꾸러미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화하였다. 준비물 꾸러미보다는 학생들이 실제로 해 볼 수 있는 교구를 각 단위 학교가 갖추도록 편찬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수학교구의 보급과 표준화는 수학교과 선진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수학교구에 대한 인식을 높일 때이다.

6) 아동 중심의 활동 강화

‘직접해보기, 학생중심, 자기주도’는 이번 교과서에 등장하는 키워드 중의 하나이다. 창의성이나 고차원적 사고력이나 문제해결력은 기초 개념이 형성된 후에 고려할 항목이다. 이번 현장검토본 교과서는 학생이 스스로 해보고, 발견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의 수준과 배열을 고려하였다.

나. 익힘책

정규 수업시간과 교과서의 활동만으로 개념이나 기술을 숙달시킬 수 없다. 익힘책에서는 교과서에

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수학 교과 역량 및 교육과정 영역별 성취기준과 관련된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에 기술된 학습 요소를 반영하면서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을 준수하며, 선택형, 단답형, 서·논술형 등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제시하며,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80% 정도의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문제가 기본문제이지만 마지막 두 문제는 교과서의 개별 차시와 관련된 심화문제이거나 타 영역의 내용과 연계한 창의·융합 문제로 두어 도전감을 가지고 탐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림 5]와 같이 문제의 번호 앞에 연결성을 강조하는 아이콘 **5**로 표시했다. 익힘책의 마지막은 단원 마무리를 만화로 처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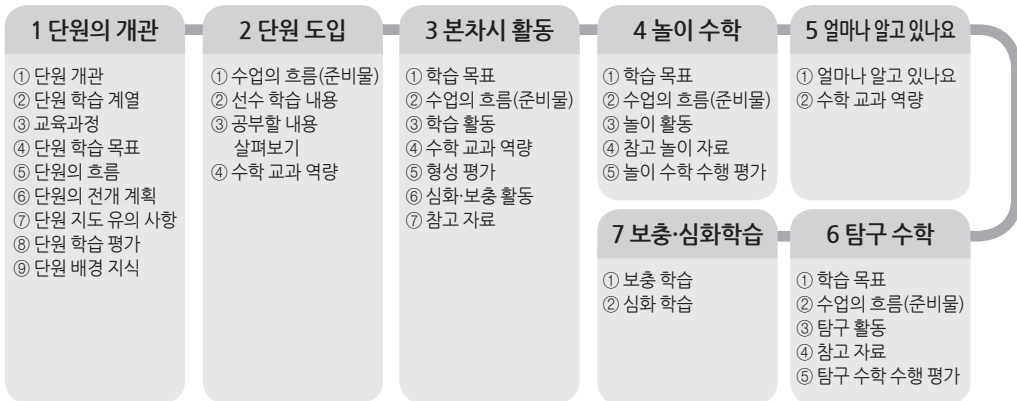
익힘책을 가정에서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였기 때문에, 익힘책 문제풀이 동영상상을 제작하고 학생들이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고민하고 있다.



[그림 5] 수학 익힘책의 교과역량 문제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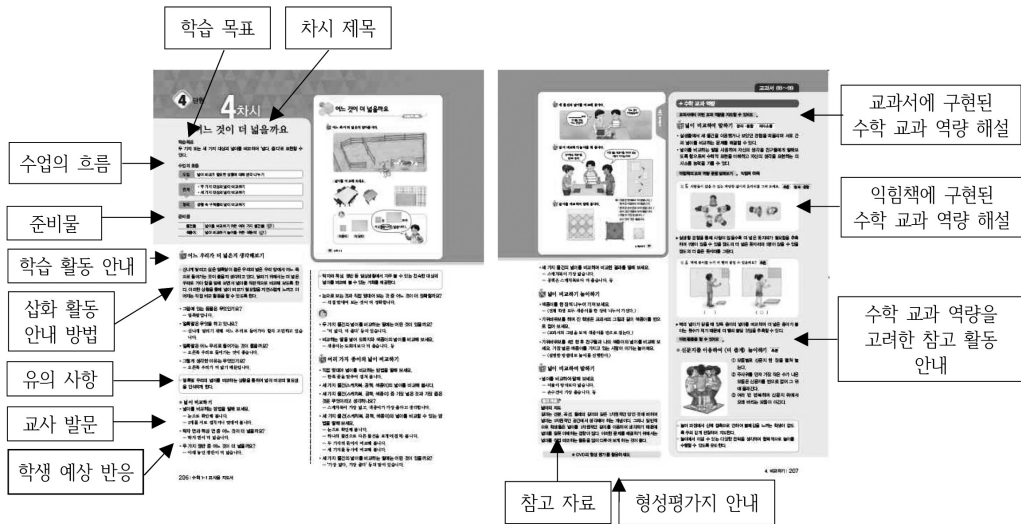
다. 지도서

교과 지도를 위한 안내서인 교사용 지도서에는 대개 교과서와 익힘책, 그리고 관련 내용을 총망라 하듯이 담고 있다. 먼저 이번 지도서는 각 단원에 대한 개관, 단원 도입과 개발 차시, 얼마나 알고 있나요(단원평가), 탐구 수학 그리고 보충 심화 학습의 순서로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순서가 큰 맥락에서는 2009개정과 일치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지도서의 특징을 살펴보자.



[그림 6] 지도서의 단원별 구성 체제

지도서에서 나타난 가장 큰 외형적 특징은 지도서의 크기가 교과서와 동일하다는 점이다. 그런데, 서체가 작아 읽기가 다소 불편한 점이 있지만 휴대성 및 활용성을 높여려 했다. 현장 검토를 통해 그 적절성이 확인되기를 기대한다. 각 차시별로 지도서가 안내하는 내용은 아래 그림의 왼쪽과 같이 차시 제목, 학습 목표, 수업의 흐름 등 기존의 지도서와 거의 같다. 그리고 여기에는 형성 평가를 제공하지 않고 평가지 안내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기] 지도서와 교과 역량

교과서에서 이런 교과 역량을 지도할 수 있어요,
넓이 비교하여 말하기 창의·융합 의사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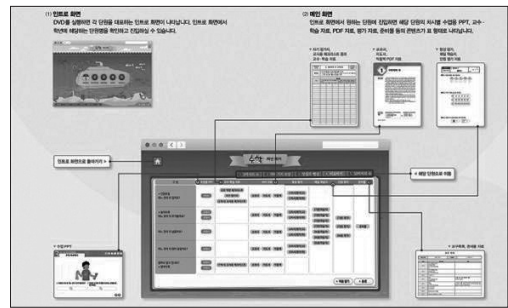
위 그림의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옆에서 우리는 교과서에서 ‘수학 교과 역량’ 구현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왼쪽 그림은 1학년 1학기 4단원 중 4차시 넓이 개념을 도입하는 ‘어느 것이 더 넓을까요’ 차시에서 4번째 활동 ‘넓이 비교 말하기’에서 교과서 활동 외에도 ‘창의·융합과 의사소통’을 길러주는 추가 하위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두 번째로 하이라이트 된 **익힘책의 교과 역량 문항 살펴보기**, 익힘책 58쪽은 익힘책에서 나왔던 마지막 교과 역량 두 문제에 대한 답과 해설이다. 학생들의 질문에 대비할 수도 있고, 선생님과 함께 풀어볼 수 있는 문제이다.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어요 ,
 ● 신문지를 이용하여 <더 좁게> 놀이하기 **추론**

그 외에도 교과서 활동의 하위 활동은 아니지만 본 차시와 관련된 그리고 안배를 고려한 교과 역량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교과 역량 외에도 심화 보충을 위한 활동을 **+ 심화 · 보충 활동** 에서 제공하고 있다. 지도서의 구성과 체제는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지도서와 유사하지만 이번 지도서의 내용적 특징을 한 마디로 말하면 ‘교사가 교과 역량을 이해하고 수준별 지도에 초점을 둔 안내서’라 할 수 있다.

4. 전자 저작물(CD) 제공

수업시간에 교사가 빠르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수업 보조 자료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15개정 교과용 도서와 함께 전자 저작물을 제공하고 있다. 전자 저작물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아래 표와 같이 교과서와 지도서를 바탕으로 실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PPT자료, 교과용 도서 자료, 다양한 형태의 평가자료, 준비물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8] 전자 저작물의 보기

<표 2> 전자 저작물의 내용 목록

순서	구분	형태	설명
1	각 차시별 수업용 자료	PPT	각 차시별 교수·학습용 자료
2	교수학습 자료	한글파일	수행평가에 활용 가능한 교과 역량 체크리스트, 자기 평가지, 교사용 체크리스트
3	PDF 자료	PDF	교과서, 익힘책, 지도서 총론과 각 단원별 내용 자료
4	차시별 형성평가 자료	한글파일	지도서에 제공되지 않는 차시별 형성평가 자료
5	매일 학습지	한글파일	수학 개념과 기능 숙달, 문제해결 등을 위한 일일 학습지
6	기본 및 심화 학습지	한글파일	각 단원의 지도서에 수록된 평가 자료
7	단원별 성취도 평가자료	한글파일	총괄 평가용으로 사용 가능한 10~20 문항의 문제
8	준비물	한글파일	수카드, 놀이판 등 프린터로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료

5. 마무리

위에서 언급한 교과서의 특성을 요약해보면 첫째로 ‘수학 교과 역량의 구현’을 들 수 있다. 교과용 도서에서 그러한 6가지 교과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주로 교과서의 놀이수학에서는 ‘의사소통’, ‘태도와 실천’을, 탐구수학에서는 ‘문제해결’, ‘추론’, ‘창의·융합’을 실현시키려 했다. ‘정보처리’ 역량의 하위요소 중에서 ‘공학적 도구’에 해당하는 내용은 2009개정 교과서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익힘책에서는 마지막 두 문제에서 교과 역량을 명시하였고, 지도서에서도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교과 역량 문제를 수록하고 있다.


둘째는 교과서의 체제 개선으로 교수-학습의 효과를 증가시킨다. 차시 내용에 따라 지면의 수를 늘리거나 한 가지의 학습 요소를 한 차시에만 다루도록 구성된 분절적 차시를 연 차시로 통합하거나 놀이수학을 차시 중간에 배치하여 개념 확인과 숙달을 피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해볼 수 있는 활동을 증가시킴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향상시키고자 했다.

셋째는 교과용 도서의 학생 활용도 제고이다. 캐릭터 도입과 아동 친화적 언어 표현 등으로 교과서에 대한 아동의 친밀도와 흥미를 높이며, 교과서와 익힘책을 통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풀어보고 확인할 수 있는 문제를 보다 많이 다루게 함으로써 교과용 도서의 학생 활용도를 높이고자 했다. 또한, 익힘책에서도 기본문제 외에도 교과 역량을 강조한 심화 문제를 다루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시킨다.

그 외에도 교과서의 경량화, 아동 친화적 도서, 수학의 내적 및 외적 연결성 강화, 교구활용의 적극성 등을 들 수 있겠다.

이러한 목적으로 교과서를 집필하고 있지만 현장검토에서 그러한 점들이 잘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개선할 점이 없는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 집필자들은 현장검토본 도서의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반응조사(아동용, 학부모, 교사, 전문가)를 할 것이지만 특히 아래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 현행 교과서에 비해 더 쉽게 가르칠 수 있도록 구성되고 다루기에 편리한가?
- 현행 스토리텔링 방식이 아니어도 동기유발이나 학습에 대한 흥미가 잘 유지되는가?
- 차시 제목과 본문 발문 방식이 학생중심으로 변화되었는가?
- 교과 역량을 이해하고 그것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구성되었는가?
- 준비물 꾸러기 대신 실물교구의 활용을 통한 수업이 무난하게 이루어지는가?
- ‘수업은 내 친구’, ‘수학으로 세상보기’ 등의 코너는 특징이 잘 드러나는가?

좋은 교과서는 많은 사람들의 지성과 협력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바 현장검토본 도서를 접하는 독자들이 발견하게 될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제언 또는 충고를 환영하며 여러분의 의견을 검토한 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참고문헌

- 권종겸, 이영혜, 이봉주 (2013). 초등학교 1 2학년 스토리텔링 기반 수학교과서 적용을 통한 교사의 인식 변화. *학교수학*, 15(4), 683-699.
- 안병곤 (2014). 초등 수학교과서에서 스토리텔링에 대한 효과.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지*, 19(1), 19-35.
- 이성섭, 김연재, 이승현, 김선민, 이수영, 강은애, 김선희, 김부미, 최인숙, 전종호, 이수연 (2015). 핵심역량에 근거한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의 국제 비교 연구. *대교 그룹 세계청소년문화재단*.
- 한국과학창의재단(2015). 2015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II. *한국과학창의재단 연구보고서 BD15120005*.
- Eisner, E., & Vallance, E. (eds.) (1974). *Conflicting conceptions of curriculum*. Berkeley, CA: McCutchen

필자소개

부산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 알버타대학교 이학박사, 부산대학교 이학석사 및 교육학 석사, 전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장
한국영재학회 감사, 한국창의정보문화학회 감사

진학계¹⁾ 고교를 위한 과학- 예술융합 교육과정기준 개발 연구²⁾

변 자 정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조사연구부장



요약

이 연구는 그동안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진학계 고등학교의 비예술전공자들의 보완적 예술교육에 관한 내용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융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과학기술과 예술 간의 융합교육을 교육과정기준 개발의 시각에서 다루었다. 연구의 목적은 진학계 고교의 과학기술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학습에 대해 보완적인 예술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습자 집단에게 필요한 과학-예술융합교육의 목표, 내용과 방법, 교육과정 운영 기준을 제시하는 가교적인 교육과정기준 개발에 있었다.

1. 들어가며

우리 정부는 과학-예술융합 교육의 효과성에 주목하여 2011년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창의적 상상력과 예술적 감성을 고루 갖춘 융합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융합인재교육(STEA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and mathematics) 교육을 도입하여 초·중·등 예술교육 활성화 기본 방안을 내놓는 등 과학-예술융합 교육을 빠른 속도로 학교교육에서 적용·실천해 오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 2010; 이은형 외, 2012). 그러나 현재 과학-예술융합교육을 포함한 융합교육 전반의 실태 및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들은 그 준비와 실천과 운영에 있어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학-예술융합 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과학기술 학습에 대해 보완적인 예술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습자 집단에게 예술융합교육의 내용과 방법, 적용 기준에 대한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교육과정

1) 진학계 고교(academic/general high school),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크게 직업계와 진학계의 교육과정의 목적이 구분되기 때문에 고교 이후 대학의 고등교육과정에서 전공 영역을 심화시켜 나가는 융합교육을 목표로 진학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분석하였다.

2) 본 원고는 참고문헌에 포함된 변자정(2015)의 연구를 요약한 것임.

기준 개발은 과학-예술의 융합이라는 독립적인 새로운 교과교육으로서 기준개발이라는 의미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융합 교육과정기준 개발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주요 문제와 그에 대답하기 위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학계 고교의 진로별 교육과정 속에서 보완교과는 무엇이며, 보완교과로서 과학-예술융합 교육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화의 시대에 필요한 융합과 과학-예술융합교육의 의미 탐색
- 고교 진로별 교육과정에서 보완교과의 개념, 위상, 기능 탐색

둘째, 진학계 고교에서 보완교과로서 과학-예술융합교육을 위한 요구는 무엇이며, 이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기준은 어떤 모습으로 개발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학-예술융합교육 및 교육과정에 대한 과학, 예술교육 전문가(교사, 강사 등)와 교육학 전문가들의 요구 조사
- 우리나라 교육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기준 개발(안) 및 과학-예술융합 교육을 구현할 수 있는 실현 방안 및 지원체제 제안

가. 문화의 시대

문화의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은 문화적 감성을 함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문화의 전통과 가치를 배우면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문화적 리터러시를 활성화하여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교육은 자신이 존재하는 현재의 자리를 만들어간 과거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현재를 반성적으로 바라보고 보다 나은 미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문화 시대의 교육은 자신의 내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자신과 다른 타인에 대한 이해를 길러내는 것이어야 하며, 여기서 타인에 대한 이해는 가치관이나 입장, 전공 분야가 다른 ‘이질적인 타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질적인 타자’와의 공감과 협력 활동은 현재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며, PISA 조사를 실시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강조하는 Key Competencies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池永眞義, 2014).

이질적인 타자와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결과물은 분야와 분야와의 경계를 넘어 상호작용하고 접

목하는 융합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특히 현재 산업 사회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영역에서 문화예술적인 콘텐츠 활용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문화예술적인 콘텐츠 마련은 예술이 가진 창의성, 상상력, 감성과의 융합을 통해서 많은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 따라서 문화 시대의 교육은 과학기술과 예술융합의 가능성, 그리고 적용 가능한 분야를 어떠한 범위에서 얼마만큼 어느 수준에서 적용하고 학습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의 마련이 핵심 사항이며, 그 기준을 세우는 첫 단계는 과학교육과 예술교육에서의 융합교육의 의미를 파악하는 일에서 시작된다.

나. 과학-예술융합교육과정과 진로별 교육과정

현행 교육과정은 진로탐색과정을 통해 학생의 요구와 교사의 조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보다 다양화되고 세분화된 과정이 가능해진 만큼 진로계열 과목의 심화학습만으로 교육과정을 운영, 편성하고 이외의 영역의 교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시수와 내용으로 학습하는 것이 진로탐색과정으로 인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공과목의 심화학습과 함께 전공교과외 영역의 보완적인 학습에도 관심을 기울여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전공교과외 영역의 보완적인 학습이란 전공영역의 심화를 돕는 학습을 말하며, 타교과 영역과 전공영역과의 관련성이나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 흥미와 관심을 파악한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다.

본 연구에서 융합의 대상이 되는 과학과 예술교육은 핵심영역이 과학기술 영역이며, 보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예술영역이다. 예술영역을 어느 수준에서, 어떠한 융합적인 내용으로, 얼마만큼 적용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탐구하였다. 진학계 고등학교는 학교 유형의 구분 없이 예술교육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학습의 수준과 내용의 범위, 깊이에 따라 교양교육의 초급 수준과 전공은 아니나 전공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중급 수준, 그리고 전공자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고급 수준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예술교육은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일반교양교육인 초급 수준으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예술계 특수목적 고등학교나 특성화 학교에서 전문적이고 심화된 내용이 포함된 고급 수준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속에서 누락된 예술교육은 전문가 수준으로 요구받지 않으나 보완적으로 필요한 중급 수준의 예술교육이다.

기존의 비예술 전공 과정별 핵심, 보완, 교양교과 영역과 수준

과정		[인문사회 과정]			[자연과학 과정]		
수준		하	중	상	하	중	상
영역	핵심	인문사회			자연과학		
	보완	자연과학			인문사회		
	교양	예술·체육			예술·체육		



예술을 중심으로 한 비예술 전공 과정별 핵심, 보완, 교양교과

과정		[인문사회 과정]			[자연과학 과정]		
수준		하	중	상	하	중	상
영역	핵심	인문사회			자연과학		
	보완	예술			예술		
	교양	자연과학·체육			인문사회·체육		

[그림 1] 예술 융합적 사고를 적용한 교육과정 영역 변화의 예

앞으로의 예술교육은 사회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미래 핵심가치와 예술교육이 추구해 온 본질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실천을 모색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의 예술교육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예술교육의 정당성 확보 측면에서 보완교과로서 활용되는 예술교육에 대한 논의, 시도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보완교과로서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의 설정 방법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개별적인 과학-예술융합과 관한 독립 과목일 수도 있으며, 현 교육과정의 교과 내에서 하나의 단원이거나 단원 안에 과학-예술융합의 내용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제안할 수 있다.

A 개별 과목 :과학기술 예술융합	B 개별 단원형 : 과학기술과 예술	C 단원내 내용 삽입형
통합단원 1	단원 1	구분 도입 전개 정리
통합단원 2	단원 2	단원1 ●
통합단원 3	단원 3	단원2 ●
통합단원 4	단원 4	단원3 ●
통합단원 5	단원 5	단원4 ● ●
통합단원 6	단원 6	단원5 ● ●
통합단원 7	통합단원 7	단원6 ● ●
		단원7 ● ● ●

주) ●표시는 과학-예술융합 내용을 의미함.

[그림 2] 보완교과로서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의 접근 유형

출처: 홍후조(2010). 연구 메모에서 수정·보완한 것임.

다.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기준 개발의 의미와 모형

본 연구는 핵심영역인 과학영역에 예술융합이라는 보완교과라는 개념을 심어 연계적이고 가교적인 소총론을 개발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홍후조(2015)의 가교 총론으로서 교육과정기준 개발 과정 모형을 따랐다. 목표설정의 과정 이전에 융합예술교육에 대한 인식과 그 필요성을 진단하고 교육목표를 명확히 하기 위한 요구분석의 단계를 추가였으며, 각 단계별 진행은 과학-예술의 융합교육에서 요구되는 특수한 학교, 학습자의 상황을 반영하는 Oliva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내용을 적용하였다. 또한 내용선정과 조직, 평가 및 운영지침에서 예술융합교육의 특수성이 반영되는 만큼 그동안 취급되지 않았던 영역과 요소가 요구되고, 비선형적 접근과 교과-교과간 사이를 꿰뚫는 내용조직을 강조하는 Eisner의 예술적 교육과정 개발모형을 참고 하였다.



[그림 3] 가교 총론으로서 교육과정기준의 개발 과정

출처: 홍후조(2015), 연구메모를 참고로 작성

2. 연구 방법

본 연구자는 일반적인 교육과정기준 개발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³⁾ 개발 절차에서 가장 먼저, 구성안 개발을 위해 기준 개발의 단계별 이론을 적용한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기준

3) 교육과정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개발 연구의 방법과 절차는 교육과정 적용 대상인 학습자나 교수자, 관련 전문가들로부터의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분석을 확인하고, 확인된 요구를 통해서 개발의 중점 사항과 목표를 선행연구 분석과 문헌 고찰을 통해서 설정한다. 설정된 목표를 바탕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 선정과 조직의 과정을 거쳐 초안이 마련된다. 초안은 개발하고자 하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에게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수정 보완이 이루어지는데, 학교교육과정의 경우 해당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고 구현하는 교수자와 교육전문가 집단이 관련 전문가가 포함된다. 또한 대부분의 기준개발 연구들은 수정된 기준 개발안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당 핵심 영역의 전문가 집단에게 심층면접이나 전문가협의회 등과 같은 검토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초안을 마련하고, 작성된 초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준 개발에 대한 요구분석과 의견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설문지를 다음이 표와 같이 개발하였다. 설문지는 초안을 바탕으로 요구분석 영역과 기준 개발 단계별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구하는 영역의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교육과정 전공의 박사 학위 이상의 전문가 검토와 타당도 검사를 거쳤다.

〈표 1〉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기준 개발 연구 설문지의 문항 영역별 내용

구분	영역	요소	문항	비고
요구 분석	과학기술과 예술융합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	과학-예술융합교육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기술과 예술융합의 필요성 과학기술과 예술융합에 가장 필요한 예술영역 예술과의 융합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특성화된 '과학예술'고교의 설립운영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ert식 5점 척도 밀줄 친 부분은 선택형 문항 Cronbach's α : 0.760
		과학-예술융합교육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기술과 예술융합의 실현가능성 과학과 예술의 융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과학-예술융합을 위한 공부의 비중 현재 융합인재교육(STEAM)에서 '인문 예술'의 구실 정도 	
기준 개발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기준 개발	기준 개발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ert식 4점 척도 밀줄 친 부분은 선택형 문항 Cronbach's α : 0.918
		성격 및 교육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의 성격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의 교육목표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의 하위목표 	
		기준 개발의 내용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내용체계 중 가장 큰 비중을 두고 가르쳐야 할 항목 	
운영상의 유의점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의 운영	기준 개발의 운영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의 교육청의 지원, 학교재량권, 평가와 개선에 관한 운영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ert식 4점 척도 Cronbach's α : 0.911

설문조사 실시기간은 2014년 9월~11월까지 2개월 동안 이루어졌으며 자료 수집은 e-mail 또는 직접 방문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개량화된 설문지를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초안의 의견조사를 바탕으로 수정된 기준개발안에 대해 과학과 예술 융합교육 전문가 6인으로부터 전문가협의회 의견을 받아 그 의견을 반영하여 기준개발의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3. 연구 결과

연구는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기준 개발의 요구 분석을 실시하고 분석 내용 결과에 따라 구성의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설정된 구성 방향에 따라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기준 개발의 초안을 작성하고, 그에 대한 동의 정도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동의정도와 의견을 중심으로 초안을 수정안을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전문가협의회의 의견을 거쳐 최종적으로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기준안을 개발하였다.

가.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기준 개발의 요구

연구는 교육과정기준 개발에 앞서 예술융합교육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요구분석의 과정을 거쳤다. 요구분석은 교육 전문가와 연구자, 그리고 현직 과학과 예술교사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과학기술과 예술융합에 대한 필요성과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 정도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 과학기술과 예술융합의 필요성

집 단	평균	표준편차	F값	사후검증*
과학교사	3.61	0.96	2.23	과학교사 ≒ 예술교사 ≒ 교육학
예술교사	3.93	0.94		
교육학 전문가	3.87	0.95		
계	3.80	0.95		

주) 이하 표 안의 사후검증은 One-way Anova 사후분석 가운데 Scheffe을 이용

〈표 3〉 과학기술과 예술융합 실현가능성

집 단	평균	표준편차	F값	사후검증
과학교사	3.27	0.94	3.97*	예술교사 ≒ 교육학 전문가 > 과학교사
예술교사	3.69	0.85		
교육학 전문가	3.62	0.97		
계	3.53	0.92		

* p<.05

위 표와 같이 과학기술과 예술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공 집단 간 차이 없이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과학교사와 교육학 전문가 집단 사이에서 유의확률 .047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상대적으로 과학교사 집단의 융합교육의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과학기술과 예술의 융합 가능성과 함께 현재 그 두 영역 간 융합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그 어려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나타내었다.

과학과 예술 간 융합의 어려움은 어디에서 오는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전체 질문자의 237명 중 21명이 “소양이 있는 가르칠 교사 없어서”(21.9%)라고 대답하였고 이와 비슷한 비율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학교나 시설이 없기 때문”(21.5%), 이라는 의견이 이어졌고 “두 분야 자체가 너무 다른 영역”이라고 보는 관점은 약 8.7%의 의견에 그쳤다. 이외 기타의 의견으로는 “입시와 관련성이 적어서” 혹은 “입시 위주의 학교교육 풍토가 융합교육을 가로막기 때문” 등의 입시위주 교육에서 오는 융합 교육의 어려움을 제기하는 의견과 “과학과 예술 간의 영역간 차이”를 제기하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전공 집단 간 차이는 .00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집단별로 교육학 전공자와 예술 교사는 융합교육의 학습기회 부족을 지적하는 것이 많은 데 반해 과학 교사의 경우는 “과학 공부할 시간조차 부족하기 때문에”(54.2%)라는 인식이 높았다.

과학기술과 우선적으로 융합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분야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전체 239명의 응답자 가운데 40%에 가까운 비율이 “디자인” 영역의 공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뒤를 이어 “영상(문화컨텐츠)”(27.2%), “미술”(16.7%), “영화(11.3%)”, “기타(2.5%)”, “음악(2.1%)”의 순이었다. “기타(2.5%)”로 대답한 응답의 내용은 “예술영역 자체의 장르적 구분이 없고 모두 고루 융합해서 배워야 한다” 등이 있었다. 응답의 집단 간 차이는 .00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예술과 비예술 전공자 사이에는 미술과 영상의 우선순위를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6.2%가 예술과의 융합이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로 공학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학(자연과학)>보건·의료>기타의 순이었다. 의견에 대한 전공 집단 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4> 과학기술에 융합할 가장 필요한 예술 영역

단위 : 명(%)

구분	응답자 수(%)						합계	χ^2
	음악	미술	디자인	영화	영상	기타		
과학	2(2.7)	11(14.9)	17(23.0)	13(17.6)	29(39.2)	2(2.7)	74(100)	24.628**
예술	0(0)	12(26.7)	23(51.1)	2(4.4)	8(17.8)	0(0)	45(100)	
교육학	3(2.5)	17(14.2)	56(46.7)	12(10.0)	28(23.3)	4(3.3)	120(100)	
계	5(2.1)	40(16.7)	96(40.2)	27(11.3)	65(27.2)	6(2.5)	239(100)	

** p<.01

<표 5> 예술융합이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

단위 : 명(%)

구분	응답자 수(%)				합계	χ^2
	이학	공학	보건·의료	기타		
과학	16(21.6)	49(66.2)	6(8.1)	3(4.1)	74(100)	11.076
예술	5(11.1)	37(82.2)	3(6.7)	0(0)	45(100)	
교육학	9(7.5)	96(80.0)	12(10.0)	3(2.5)	120(100)	
계	30(12.6)	182(76.2)	21(8.8)	6(2.5)	239(100)	

융합을 위해서 과학기술 공부 시간에 대비한 예술 공부의 시간적인 비중에 대해 응답자들은 과학기술 시간 대비 예술 공부 시간을 “20~30%” 수준을 적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집단 간 응답의 차이는 .00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과학 교사의 경우 “20~30%”(44.6%)와 “20%미만”(43.2%)의 답변이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많은 의견을 보였다.

현재 STEAM 교육에서 ‘인문·예술’영역의 구실 정도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은 다음 표와 같이 5점 만점에 평균 2.40 정도로 집단 간 차이 없이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6> STEAM 교육의 ‘인문 예술’ 영역 제 구실 정도에 대한 인식

집 단	평균	표준편차	F값	사후검증
과학교사	2.29	0.72	2.50	과학교사 ≙ 예술교사 ≙ 교육학 전문가
예술교사	2.29	0.79		
교육학 전문가	2.51	0.77		
계	2.40	0.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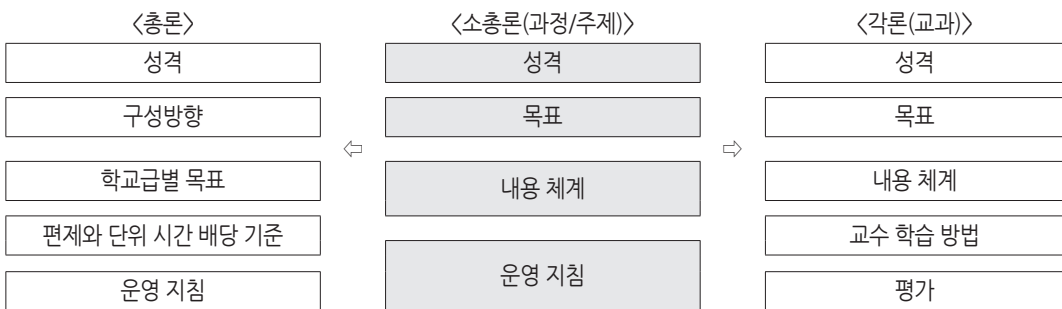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의 필요성 진술에 대해 평균 3.0 이상의 동의 정도를 나타냈다. 진술 중 집

단 간 차이를 보인 항목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예술의 미적 감각과 기예를 겸비한 창의적 인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라는 진술로 과학교사와 교육학 전문가 사이에 .02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과학교사의 경우 타 분야에서 생각하는 과학기술 인재의 관점과 달리 자신들의 전공 분야에서 예술적인 자질을 겸비한 인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낮고, 교육학 전문가는 융합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다른 집단에 비해 보다 높게 인식하고 교육과정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실천의 필요성을 높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술융합을 계기로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아지기 때문에”라는 진술에 대해서는 평균 2.78점으로 동의 정도가 낮아 근본적인 과학기술에 대한 낮은 흥미와 관심을 단순히 예술융합으로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아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나.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기준 초안

1)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기준 개발의 기초

이 절에서는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기준에 대한 요구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초안에 대한 구성 기초와 그 내용을 기술하였다. 국가 교육과정 총론의 경우 성격, 구성방향, 학교급별 목표,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을 제시하고 각론은 대체로 성격, 목표, 내용체계,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로 이어지는 구성을 갖추고 있는데,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기준은 그 중간자인 소총론으로 성격 및 목표, 내용체계와 운영지침의 네 영역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 4] 교육과정 총론, 소총론, 각론의 구성 요소 비교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기준 개발은 Bloom의 전통적 교육목표 분류학을 토대로 대영역의 구분을 하되, 창의적 지식 융합을 포함하는 고등수준의 사고 활동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소영역에서

Anderson & Krathwohl(2001)의 신교육목표분류학을 적용하였다. 인지적 영역은 소영역으로 인식·이해, 분석·종합으로, 정의적 영역은 수용·반응, 가치화의 절차로 기술하였으며 심동적 영역은 적용해서 창안하고 평가하는 실제적인 행동의 절차로써 구분하였다. 또 예술융합교육의 관점에서 교육목표에 대한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 미국 National Core Arts Standards(NCCAS, 2015)의 기준을 참고하였다. NCCAS는 예술교육과정에 대한 개념적인 틀로 잠정적이고 가교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도 예술적인 절차 기준을 참고하여 과학기술-예술융합의 관점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그것을 예술적인 문해력과 연결 지어 표현하고 창조, 생산하며 반응하는 과정을 교육목표 기준에 적용하였다.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기준은 그 대상이 공학이라는 특정 진로를 가진 ‘일부’ 학생들을 위한 것으로 그들의 사회적 효용성 측면에서 융합적 공학기술 발전을 이룩하는 인재, 학습자 측면으로 그들의 공학적 전문지식을 토대로 한 관심과 흥미를 따져 학습의 실행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과학과 예술융합이라는 개념 자체를 알고 실행하는 실재를 중요시 여기는 만큼 선정된 교육내용을 지식으로서 이해하는 앎과 앎을 통해서 깨닫는 가치와 태도, 그리고 실제적인 행함을 통해서 체득시켜 적용해 나가는 내용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또 내용선정에 있어서는 Eisner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내용선정 및 조직의 과정을 참고하여 교과-교과간 사이를 꿰뚫어내는 내용조직을 참고하였다. 내용 요소의 대영역 구분은 공학 전문가들의 시각을 반영한 김영민 외(2012)의 연구를 참고하여 공학계열에서 예술중심 ‘예술융합의 개요’, 융합의 심화된 영역을 체험하는 ‘예술융합의 세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해되고 체험된 내용을 실제적으로 적용한 ‘예술융합의 실제’로 적용하였다.

2)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기준 초안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기준의 초안은 본 교육과정기준 개발에 대한 요구와 기준개발의 기초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되었다. 먼저 기준개발의 성격은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은 일반 진학계 고등학교의 과학기술 계열 전공자를 위한 보완적인 (중급)수준의 예술교육으로, 과학기술과 예술 간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통합적인 교육과정이다. 이 교육과정은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예술의 미적 감각과 기예를 더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완성도 높은 과학기술의 문제해결 활동을 돕는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로 정의하였다.

교육목표와 그 하위목표, 내용체계 및 운영 지침은 다음과 같다.

〈표 7〉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기준의 교육목표 초안

구분	내용
인지적 영역	문화의 시대에 과학기술과 예술 융합의 중요성과 역할을 인식하고, 예술과 과학기술과의 융합에 관한 지식, 다양한 접근법 등을 알고 이해한다.
정의적 영역	과학기술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문제해결적 특성과 예술의 심미적인 상상력, 창의성을 융합시킨 조화로운 가치와 태도 및 소양을 갖춘다.
심동적 영역	과학기술과 예술의 융합에 관한 다양한 접근법을 익혀서, 예술적 기예를 적용하는 것이 창의적 문제해결에 도움이 됨을 실제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드러내 보인다.

〈표 8〉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기준의 하위목표 초안

대영역	소영역	하위목표
인지적 목표	인식·이해	과학기술에서 예술융합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인식하며 과학기술의 언어로써 예술융합에 대해 질문하고 정의한다.
	분석·종합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예술융합의 관점을 통해서 분석, 통합, 조직화한다.
정의적 목표	수용·반응	과학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예술융합적인 시각에서 대응하고 표현한다.
	가치화	예술융합의 관점으로 과학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의 축적을 통해 예술융합적인 태도를 내면화한다.
심동적 목표	적용	실제적 과학기술문제 상황에 대해 예술융합적 해결 방법을 적용한 설계와 제작을 실천한다.
	창안	예술융합적인 설계계획을 통해 실제적인 모델을 개발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한다.
	평가	예술융합의 교육 결과에 대해 토론하고 평가하며 개선한다.

〈표 9〉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기준의 내용체계 초안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I. 과학기술과 예술융합의 이론	1. 예술융합의 개념	1) 예술융합의 정의 2) 예술융합의 목적 3) 예술융합의 원리
	2. 예술융합의 발달	1) 예술융합의 과거 2) 예술융합의 현황과 미래 전망
II. 과학기술과 예술융합의 실제	3. 예술융합의 이론	1) 과학기술과 예술융합 분야 2) 과학기술과 예술융합 주제 3) 과학기술과 예술융합 방법
	4. 예술융합의 실제	1) 예술융합적 과학기술 문제의 정의 2) 예술융합의 과학기술 문제해결의 적용방법 3) 예술융합적 과학기술 문제해결 및 창안
	5. 예술융합의 진로	1) 예술융합의 학업 진로 2) 예술융합의 직업 진로

<표 10>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기준의 운영지침 초안

구분	운영 지침과 지원 사항
교육청의 지원	시·도 교육청 및 지역 교육지원청은 지역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활용 가능한 인사, 시설, 기관, 자료 등의 자원 실태를 파악하여 창의적으로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시·도 교육청 및 지역 교육지원청은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적자원과 제반 시설, 설비, 교재, 재료, 예산 등의 물적 자원을 지원한다.
	시·도 교육청 및 지역 교육지원청은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과 관련된 각종 교육 자료와 운영의 모범사례를 공유, 확산할 수 있도록 DB를 구축한다.
학교의 재량권	학교는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에 영역별로 권고된 교육내용 및 주제 등을 지역 및 학교의 특성과 교수자의 요구,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수정, 보완하여 편성 운영 한다.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은 교과목을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수준을 분화하여 편성 운영할 수 있다.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에도 예술융합 교육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과후 활동이나 방학중 프로그램으로 연계 운영한다.
	교사는 학교에 개설된 진로탐색과정에 따라 이에 알맞게 예술융합 교육의 내용과 활동을 재구성할 수 있다.
평가와 개선	학생성취와 교육과정 평가의 관점을 마련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학생의 지식과 태도가 반영되도록 평정척도를 작성하여 활용한다.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의 이수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평가 내용을 기록한다.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의 평가에는 운영 계획, 운영 과정, 운영 결과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 평가 결과는 차후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 계획 수립 및 운영의 개선 자료로서 활용한다.

3)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기준 초안에 대한 의견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기준 초안은 교육전문가와 현직 과학, 예술교육 전문가인 교과 담당교사들의 동의 및 의견을 얻어 수정·보완 되었다. 초안에 대한 의견조사는 성격 및 목표, 그리고 목표에 대한 하위 문항, 내용 체계, 운영 지침에 대한 동의 정도와 의견 수렴으로 이루어졌다. 각각의 항목에 대한 동의는 “전혀 부동의”, “부동의”, “동의”, “매우 동의”의 Likert 4점 척도로 조사하였고 F검정과 사후검정으로 Scheffe를 실시하여 각 집단 간 차이를 하고 전문가협의회의 의견을 받아 최종적인 검토 후에 마련되었다.

초안에 대한 의견 조사에서 성격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는 평균 2.92로 평균 3.00 이상에 못 미치는 수준을 나타내었다. 진술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은 성격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주요 세부 의견 사항으로는 “보완적인 수준”이라는 표현이 모호하고 “예술융합 교육과정”이라는 단어 자체는 모든 영역과 예술융합을 의미하지만, 본 연구에서 과학 전

공자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만큼 “과학-예술융합”이라는 표현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 중 과학 교사들의 의견으로 “예술이 수단이고 과학기술이 목적”으로 인식되는 표현과 예술과의 융합 자체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인지적, 정의적 목표의 진술에 대해서는 모두 3.00에 가깝게 동의를 하고 있었다. 다만 인지적 목표에 대한 동의 정도는 유의확률은 .003으로 과학교사 집단과 예술교사, 교육학 전문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인지적 목표의 진술에서 핵심 사항인 ‘과학과 예술과의 융합에 대한 필요성이나 중요도’를 과학교사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높게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정의적 목표에 대한 집단 간 동의 정도의 차이는 없었다.

〈표 11〉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기준의 인지적 목표에 관한 동의 정도

집 단	평균	표준편차	F값	사후검증
과학교사	2.86	0.45	5.926*	예술교사 ≙ 교육학 전문가 > 과학교사
예술교사	3.11	0.49		
교육학 전문가	3.11	0.55		
계	3.03	0.52		

* p<.05

〈표 12〉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기준의 정의적 목표에 관한 동의 정도

집 단	평균	표준편차	F값	사후검증
과학교사	3.08	0.43	1.831	과학교사 ≙ 예술교사 ≙ 교육학 전문가
예술교사	3.18	0.53		
교육학 전문가	3.24	0.65		
계	3.18	0.57		

〈표 13〉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기준의 심동적 목표에 관한 동의 정도

집 단	평균	표준편차	F값	사후검증
과학교사	2.84	0.50	3.183*	교육학 전문가 > 과학교사
예술교사	3.02	0.54		
교육학 전문가	3.06	0.68		
계	2.98	0.61		

* p<.05

내용체계의 진술에 대해서는 “예술융합의 발달”(2.98)을 제외하고는 평균 3.00 이상의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다. 이 중 예술융합의 개념이 .000, 이론은 .040, 실체는 .039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예술융합의 개념”에 대한 집단 간 동의 정도의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다른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는 항목과 마찬가지로 과학교사와 다른 두 집단 간의 차이였다.

**<표 14>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기준의 내용체계: 과학기술과 예술융합의 이론(1)
예술융합의 개념**

집 단	평균	표준편차	F값	사후검증
과학교사	2.79	0.58	12.14**	예술교사 > 교육학 전문가 > 과학교사
예술교사	3.11	0.39		
교육학 전문가	3.19	0.57		
계	3.05	0.57		

** p<.01

예술융합의 실체는 예술 교사와 교육학 전공자가 동일하게 3.20, 과학 교사의 경우 3.00으로 항목 중에 가장 높은 동의를 나타내었으며, 예술융합의 진로에 대한 동의 정도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내용 체계 영역 중 “예술융합의 실제”를 가장 큰(시간) 비중을 두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에 집단 간 차이 없이 가장 많은 동의를 받았다.

<표 15> 과학-예술융합 교육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두어야 하는 영역

구분	응답자 수(%)						전체	χ ²
	개념	발달	이론	실제	진로	기타		
과학	2 (2.7)	3 (4.1)	4 (5.5)	49 (67.1)	15 (20.5)	0 (0)	73 (100)	13.13
예술	4 (8.9)	1 (2.2)	3 (6.7)	33 (73.3)	4 (8.9)	0 (0)	45 (100)	
교육학	5 (4.3)	2 (1.7)	10 (8.5)	87 (74.4)	10 (8.5)	3 (2.6)	117 (100)	
계	11 (4.7)	6 (2.6)	17 (7.2)	169 (71.9)	29 (12.3)	3 (1.3)	235 (100)	

운영지침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 및 지역 교육 지원청이 각각의 자원 실태를 파악하여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 자료와 운영의 각종 사례를 공유, 확산하는 것에 대해 전공 간 차이 없이 평균 3.00 이상의 높은 동의

정도를 보였다. 교육청 지원과 관련 항목은 모두 전공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은 위의 표와 같이 개별 학교의 상황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러한 의견에는 과학, 예술 교사 집단보다는 교육학 전공자들의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초안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의견 조사 항목 전반에 걸쳐, 과학교사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과학의 본질적인 교육의 내용과 그 운영에 있어 혼란을 우려하는 부정적인 시각이 반영되어 소극적인 동의 정도를 나타내었고 교육학 전문가의 경우 융합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과 운영 사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4)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기준안에 대한 전문가 협의회 의견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기준 개발안 전반에 대한 전문가협의회의 주요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의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첫째,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기준 개발안은 ‘과학-예술융합’으로 무엇과 무엇이 융합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나타내어야 한다. 현재 과학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이며 논리적인 측면으로, 예술은 심미적이고 상상력, 창의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이것은 과학과 예술이 단순히 구분된 진술로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 진술해야 한다. 둘째, 목표 진술에 있어서 행동주의적 구분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또 그 구분을 적용한다면 그 이유를 기준 개발안 앞서 제시해야 한다. 또한 하위목표 역시 대영역과 소영역에서 중복되는 내용을 정리하고, 소영역의 구분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 내용에서 제시가 되어야 한다. 셋째 과학-예술이기보다 기술공학과 예술융합이 더 맞는 것 같다는 인상이 남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연구 본문에서 과학, 과학기술, 기술공학의 표현 구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다. 확정된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기준 최종안

수정안에 대한 전문가협의회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마련된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기준안은 다음과 같다.

1) 성격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은 일반 진학계 고등학교의 과학기술계열 학습영역(전공영역)의 심화를 돕기 위한 예술교육과정으로,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과학과 예술교과 간의 연계를 위한 교육과정이

다. 이 교육과정은 과학기술 분야가 요구하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과학적 지식에 예술적인 감각, 상상력과 문화 창조력을 더함으로써 과학기술 문제해결활동이 보다 창의적이고 완성도 높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2) 교육목표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기준의 교육목표는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영역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진술되었다.

〈표 16〉 확정된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기준의 교육목표

- | | |
|-----------|---|
| 가) 인지적 영역 | : 창조문화의 시대에 과학기술과 예술 융합의 중요성과 역할을 인식하고, 과학기술과 예술의 융합에 관한 지식, 다양한 접근법 등을 안다. |
| 나) 정의적 영역 | : 과학기술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문제해결적 특성과 예술의 심미적 감성능력, 창의성을 융합시킨 조화로운 가치와 태도 및 소양을 갖춘다. |
| 다) 심동적 영역 | : 과학-예술융합적 접근 방법을 익혀 과학기술 문제에 대해 예술적 감각과 다양한 (예술) 매체의 활용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 |

3) 하위목표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기준의 교육목표에 대한 하위 목표는 영역별로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다.

〈표 17〉 확정된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기준의 하위목표

- | | |
|-----------|--|
| 가) 인지적 영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식 이해: 과학과 예술 융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알고, 자신의 전공영역과 예술적인 아이디어 및 작업을 예측하고 사회, 문화적 그리고 역사적 맥락과 관련지을 수 있다. (2) 분석 종합: 과학기술적인 문제에 예술융합의 관점을 적용하여 파악하고 개인적인 경험과 사회, 문화, 역사적인 지식을 관련짓고 통합할 수 있다. |
| 나) 정의적 영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용 반응: 과학기술 문제에 대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관점 외에 심미적인 상상력과 창의성 관점으로도 반응하고 흥미를 가지고 표현한다. (2) 가치 화: 과학-예술융합의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의 축적을 통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태도와 함께 심미적이고 창의적인 태도를 익힌다. |
| 다) 심동적 영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적용: 실제적인 과학기술 문제 상황에 대해 예술적 감각과 창의성 관점을 반영한 과학-예술융합의 해결 방법을 계획하고 조작한다. (2) 창안: 사회 문화적 현상에서 개념, 지식, 기능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대안적 접근방식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해결방식을 제안한다. (3) 평가: 과학-예술융합의 결과를 통해서 융합이 전달하는 의미를 이해하고 토론하여 평가하고 개선한다. |

4) 내용 체계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기준의 내용 체계는 이론과 실제의 대영역과 대영역에 대한 소영역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표 18〉 확정된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기준의 내용 체계

대영역	소영역	하위목표
Ⅰ. 과학기술과 예술융합의 개념과 이론	1. 과학-예술융합의 개념	1) 과학-예술융합의 정의 2) 과학-예술융합의 목적 3) 과학-예술융합의 원리 4) 과학-예술융합의 현황과 미래
	2. 과학-예술융합의 이론	1) 과학기술과 예술융합 분야 2) 과학기술과 예술융합 주제 3) 과학기술과 예술융합 방법
Ⅱ. 과학기술과 예술융합의 실제	1. 과학-예술융합의 실제	1) 예술융합적 과학기술 문제의 정의 2) 예술융합의 과학기술 문제에 대한 적용방법 3) 예술융합적 과학기술 문제해결 및 창안
	2. 과학-예술융합의 진로	1) 과학-예술융합 관련 학업 진로 2) 과학-예술융합 관련 직업 진로

5) 운영지침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기준의 운영 지침은 교육청의 지원과 학교 재량권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되었다.

〈표 19〉 개발된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기준의 운영 지침


<p>가) 교육청 지원</p> <p>(1) 시·도교육청 및 지역 교육지원청은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 시설, 기관, 자료 등의 가용자원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가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을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한다.</p> <p>(2) 시·도교육청 및 지역 교육지원청은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과 관련된 각종 교육 자료와 운영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보급, 연수를 통해 확산시킨다.</p> <p>나) 학교 재량권</p> <p>(1) 학교는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에 영역별로 권고된 교육내용 및 주제 등을 지역 및 학교의 특성,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수정, 보완하여 편성 운영할 수 있다.</p> <p>(2)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은 학교의 공식적, 비공식적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p> <p>(3)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에도 과학-예술융합 교육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과후 활동이나 방학 중 프로그램으로 연계 운영할 수 있다.</p>

다) 평가와 개선

- (1) 학교는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의 학생성취와 교육과정 평가의 관점을 마련하고, 지식과 기능, 태도가 반영되도록 다양한 평가 적용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2)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의 평가에는 운영 계획, 운영 과정, 운영 결과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 평가 과정 및 결과는 차후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 계획 수립 및 운영의 개선 자료로서 활용한다.

4. 결론 및 제언

연구자는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기준 개발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과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과학-예술융합교육의 효과적인 실천을 위해 교육과정 내에서 융합교육에 대한 의미와 개념이 다양하고 폭넓게 자리 잡아야 한다. 둘째, 융합교육의 효과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융합의 대상이 되는 교과교육 간의 핵심, 보완 영역을 구분하여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융합교육을 위한 총론과 각론 간의 연계적이고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범교과적인 다양한 주제의 소총론이 필요하다. 넷째, 진학계 비예술전공자 집단에게도 보완적이고 연계적인 과학-예술융합교육의 수요가 있으며, 교육계는 이에 관해 교육과정적으로 대답할 필요가 있다. 과학-예술융합교육만이 아닌 융합교육 전체에서 예술교육의 보완적인 가치와 역할을 새롭게 인식하고, 기준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내용 활동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다섯째, 본 연구의 교육과정기준 개발은 과학-예술의 융합이라는 독립적인 새로운 교과교육으로서 기준개발이 아닌 다양한 영역에서 범교과 학습이나 통합적인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준 개발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다루지 못한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기준 개발이 적용되는 학습자 집단의 구체적인 요구분석을 통해 구성 요소를 보완하는 연구나, 내용체계의 상세화나 다양한 예술분야의 융합 가능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후속 연구로서 필요하다. 또한 과학-예술융합교육을 포함한 전체 융합교육의 관점에서 적용되는 다양한 학습자 집단의 요구를 면밀히 분석하여 세분화 시키고, 다른 특정 집단이나 주제 설정을 위한 교육과정기준 개발을 통한 검증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2011). 초·중·등 예술교육 활성화 기본 방안.
- 교육과학기술부(2010). 중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 김영민·이창훈·김기수(2012). 공학전문가가 인지하는 고등학교 공학 기술 교과 교육 목표와 내용 요소. 한국기술교육학 회지, 12(2), 221-249.
- 변자정(2015). 진학계 고교를 위한 과학-예술융합 교육과정기준 개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 이은형·김남연·김명정(2012). 예술과 통합한 유아과학교육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경험 실태와 인식. 한국교육문제연구, 30(4), 137-160.
- 홍후조(2015). 연구메모: 가교 총론으로서 교육과정기준의 개발 과정.
- 홍후조(2010). 국가교육과정기준의 연구 개발에서 학습자 집단의 요구분석을 위한 영역과 항목 설정 연구. 교육과정연구, 28(1), 143-175.
- Anderson, L. W., & Krathwohl, D. R. (2001). A taxonomy for learning, teaching, and assessing; A revision of Bloom's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Addison Wesley Longman, Inc.
- 池永 義(2014). 全ての校園種・科・領域に貢 できる美術 育の 創造は可能か ― 障がい理解 育とのクロスカリキュラム を通して ―. 美術科 究, 32, 49-66.
- The National Coalition for Core Arts Standards(NCCAS): A Conceptual Framework for Arts Learning. <http://nccas.wikispaces.com>에서 2015. 1. 14 검색.

필자소개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조사연구부장.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과정학 전공으로 박사학위 취득.
예술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음.

카자흐스탄 교육체제 현황과 발전 방향



정 금 배
둔촌고등학교장

1. 들어가며

소비에트 해체 후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교육 개혁을 단행하여 시장 경제 체제에 적합한 교육 정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교육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 체제에 관해서는 교육 체제 자율화, 사교육 부문 활성화, 교육 비용 개인 부담, 학제 및 커리큘럼 개편, 교육 기회 확대, 교육의 물적 기반 정비, 직업 교육 훈련 제도 개혁 및 강화 등과 같은 사안들이 추진되고 있다.

카자흐스탄 헌법 제2장 제30조는 교육과 관련된 몇 가지 기본 원칙을



밝히고 있다.

첫째, 중등 교육은 의무 교육이며, 국민에게 국가 교육 기관의 무상 중등 교육을 보장한다.

둘째, 국민은 국가 고등 교육 기관에서 경쟁 원리에 입각하여 무상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셋째, 사립 학교의 유상 교육은 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넷째, 국가는 일반적인 교육 의무 표준을 설정하고, 모든 교육 기관의 활동은 이 기준에 따라야 한다(Конституция, 1995).

이러한 목표 아래 카자흐스탄은 과거 소비에트 교육 체제를 바탕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한 교육 체제를 갖추어 가며, 최근 다양한 교육 개혁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취학 전 교육부터 우리나라의 초·중등학교에 해당하는 쉬콜라에 이르기까지 무상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의 다양화·개별화·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사교육 분야를 허용하여 최근 사립 학교(초·중·고·대학)가 활발하게 설립·운영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교육 체제를 연령별 구조로 나타내면 아래 표와 같다. 현 교육 체제는 소비에트의 교육 체제를 바탕으로 1997년 제정된 교육법에 근거하여 기본 골격이 정해졌다. 살펴 보면, 어린이는 6세까지 유치원에 다니고, 6세 또는 7세에 학교에 입학하여 11년 동안 의무 교육을 받게 된다. 한국의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초등 교육은 1학년~4학년까지이고, 이후 중학교에 해당되는 기본 교육 과정과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일반 중등 교육이 17세까지 진행된다. 17세가 되면 졸업 시험이자 고등 교육 기관 입학 시험인 전국 연합 고사(Unified National Test, UNT)를 치른다. 기본 교육 과정은 5년제이고, 진급 시험을 치르며, 9학년 이후에는 기술 학교로 이전하여 4년 과정을 마칠 수 있다. 직업 기술 학교는 3~4년제로, 졸업 후 대학 2, 3학년으로 편입이 가능하다. 고등 교육에 해당되는 대학 교육은 4년, 5년, 6년 등으로 과정의 성격상 각기 다른 기간이 적용되고 있으며, 그 원인은 소비에트 교육 체제와 서구 교육 체제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 연령별 교육 체제〉

연령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이후
수준	취학 전 교육				초등 교육 (1~4학년)				기본 교육 (5~9학년)						일반중등교육 (10~11학년)	고등 교육: 학사 석사 전문가과정	대학 이후 교육			
															중등전문교육 (3년)					
															초등직업교육 (2년)					

(출처: ЮНЕСКО(2008), p.98.)

교육 기관 수준별 체계가 반드시 위 방식대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법률에 의거 '의무 교육 대상 학령 아동이 최소 5명이 존재하는 경우에 학교를 개설'해야 하는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여러 단계가 통합된 학교로 가는 추세에 있다. 9학년을 마치면 학생들은 일반 중등 학교에 남겨나, 리찌이(직업 기술 학교), 김나지움(인문 중등 학교), 기초 직업 교육을 하는 초등 직업 기술 학교, 중등·고등 직업 교육을 하는 콜리지에 진학하기도 한다. 학생이 9학년 수료 후 콜리지에 입학했다면 중등 교육의 고급 과정을 마치고 고등 교육 과정에 입학하거나, 11학년 후 고등 교육 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콜리지 고학년 졸업자는 대학 2, 3학년에 입학할 수 있으며, 이후 학사 학위를 받게 된다(ОӘСР, 2007:17).

2. 취학 전 교육 체제

소비에트 시절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국영 기업의 재정 보조와 관리 하에 포괄적인 보육 및 유치원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모든 취학 전 교육 기관을 국가에서 무료로 운영했다. 그러나 독립 이후 국영 기업의 민영화 또는 몰락과, 경제 위기로 인한 정부 재정 감소, 유상 교육으로의 전환, 사립 교육 기관의 등장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커지면서 취학 전 교육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카자흐스탄은 독립 이후 심각한 경제 위기로 인해 취학 전 아동 교육이 전체적으로 하락하여 많은 수의 유치원이 문을 닫았다. 특히 독립 이후 취학 전 교육 기관에 대한 국가 지원이 최소 수준으로 제한되고 개인적 교육비 부담이 늘면서 빈곤 가정은 취학 전 교육 기회가 제한됨에 따라 교육 접근성 문제가 발생하



게 되었다.

취학 전 교육 연령층은 1세반~6세이다. 유치원은 연령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초급반(보육원)은 1세반~3세, 중급반(유아반)은 3세~4세, 입학준비반은 5세~6세이다. 집중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입학준비반이며, 아이들은 기초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본 교육 후 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유치원 교육은 무상 교육이 원칙이나 국가 재정 보조가 삭감되고, 사립 유치원이 많아짐에 따라 실질적으로 학부모가 학비를 지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Дамитов, 2008:6).

3. 초·중등 교육 체제

카자흐스탄의 초·중등 교육은 1학년~11학년까지 '쉬콜라'에서 이루어지며, 교육 수준에 따라 초등 과정(4년), 중등 과정(5년), 고등 과정(2년)으로 구분된다. 중등 교육 과정(lower secondary)은 일반 중등 교육, 초등 직업 교육, 중등 직업 교육을 모두 포함하며, 일반 중등 교육은 초등 단계, 기본 단계, 고등 단계의 3단계 교육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단계별 교육은 하나의 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각각 다른 기관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카자흐스탄 학생은 9학년(중학년)을 마치면 직업 기술 학교 진학 또는 정규 대학 진학을 결정하는데, 중등 교육 수료 학생의 30%는 직업 기술 학교에 진학하고, 70%는 대학교에 진학한다. 9학년과 11학년에서 진급 평가 시험이 이루어지며 9학년을 마친 첫 번 진급 시험에서 5점 만점에 2점짜리 평가가 하나라도 있으면 유급이 되며, 11학년 수료 후 졸업 시험에서 120점 만점에 40점 이상을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이 불가능하다. 또한,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학교 성적 심사 위원회를 거쳐 2회까지 조기 진급이 가능하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7:15).

카자흐스탄은 모든 국민에게 일반 중등 교육에 대한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며, 의무 교육으로 규정

되어 있다. 일반 중등 교육의 혁신 정책 방향은 정보화 및 교육 내용 혁신에 두고 있으며, ① 모든 학령 아동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제공, ② 일반 중등 교육에 대한 국가 의무 표준 실현, ③ 교육 내용 및 방법 개선, 학생 지식과 교사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체제 도입으로 학교 교육 질 향상, ④ 학생·교사의 보건 환경 보장 등을 주요 혁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최근 빠른 경제 성장과 교육열 상승으로 인하여 알마티 등 대도시 중심으로 학비가 월 500\$가 되는 사립 학교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일반 공립 학교 교육의 질이 하락하고, 카자흐어 교육 확대에 대한 사회적 반작용 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립 학교들은 현대적인 교육 시설과 우수한 교원, 체계적인 교육 과정으로 외국어, 수학, 물리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킬 뿐만 아니라 전인 교육을 목표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방과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대학교로의 진학률이 상당히 높다(손영훈, 2008).

카자흐스탄은 「2020년 중장기 교육 발전 프로그램」 등에 의거 12학년제로의 학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모든 학교를 12학년제로 전환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도시 학교의 2부제, 시골 학교의 3부제로 인한 학급 수 부족, 교원 수급 차질 등으로 당초 계획대로 실현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직업 교육 체제

카자흐스탄에서는 소비에트 교육 체제의 커다란 장점인 직업 기술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직업 교육 과정은 초등 직업 교육, 중등 직업 교육, 고등 직업 교육으로 구분되는데, 초등 직업 교육은 단기 직업 훈련 과정에 해당되며, 고등 직업 교육은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고등 교육을 말한다.

이 나라에서 직업 기술 교육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직업 기술 교육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과 사회 안정을 견인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로서, 청년 고용 안정을 촉진하고 이들의 주변화 과정을 억제하는 선순환 장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2007년 개정된 교육법에 따라 초·중등 직업 교육은 기술·직업 교육과 중등 이후 교육 체계로 개혁되었다(МИНИСТЕРСТВО, 2008).

초·중등 직업 교육 체계는 청소년·청년에게 국한되지 않고 성인에게도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건들이 제공되고 있다. 중등 직업 과정은 쉬콜라 9학년, 또는 11학년을 마치고 입학하게 된다. 이 과정은 중등 전문 직업 기술인 양성을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직업 훈련과 동시에 일반 중등 교육을 제공하는 것인데, 새로운 형태의 중등 직업 학교로 전문대학(콜리지)이 널리 운영되고 있다. 전문대학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높은 수준의 지적 활동을 요구하는 전문가들을 양성한다. 수학 기간은 보통 3~4년이며, 1년 반은 기본 과목을 이수하고 나머지 1년 반은 전공과목을 이수한다.

카자흐스탄의 직업 기술 교육, 중등 이후 교육 체계 관련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저수준의 교육 방법론, 현대적 교과서 부족, 특히 국가 언어로 된 특정 과목의 교과서 부족, 직업 교육 관련 학술 방법론 제공 기관 부재, 낡은 물적-기술적 토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완벽한 습득 어려움 등이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Агентство, 2008).

5. 대학 교육 체제

카자흐스탄 고등 교육 체계 발전의 주요 목표는 글로벌 수준의 고품질 교육 서비스에 대한 사회, 국가, 개인의 장기적인 전략적 이해 관계를 충족시키는데 있다. 카자흐스탄 헌법 제30조 제2항에, 시민들이 국립 고등 교육 기관에서 경쟁 원칙 하에 무료로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소비에트 공화국과 마찬가지로 카자흐스탄의 모든 대학은 국립 대학이었으나 최근 많은 변화가 진행되어 사립 대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카자흐스탄에서 전통적인 개념의 대학으로 처음 설립된 종합 대학은 1934년 설립된 알파라비 카자흐국립대학(초기 키로바 카자흐국립대)이었고, 1974년 카라간다국립대학이 설립되었다. 1997년 아스타나로 수도 이전 후 아스타나에 대통령 직속 관할인 유라시아국립대가 설립되었다(손영훈, 2008).

1992년 교육법과 1993년 고등교육법이 발표되면서 국립 대학의 단일 체제는 국립과 사립 체제로 양분되기 시작했고, 카자흐스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현재 고등 교육 기관 167개로서 이중 사립 113개, 국립 54개 학교로서 사립이 훨씬 압도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유럽연합에서 교육 체제 구조 조정을 위해 실시되었던 볼로냐 협약(The Bologna Process)을 채택하여 대학 교과 내용의 대부분은 볼로냐 협약의 3 단계 학위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즉, 학사(BA), 석사(MA), 박사(PhD) 학위로 개편되고 있는데, 대학원 제도는 2008년부터 미국식 학제인 석사 및 박사 과정으로 전면 개편되었고, 기존의 소비에트식 체제 즉 석사-준박사-국가박사 체제는 2010년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7:16).

현재 카자흐스탄 고등 교육은 국가경쟁력 발전 정책에 부합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아직 카자흐스탄 고등 교육 관리 체제는 경제의 선도적 발전을 견인하도록 인적 자원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해 있지는 못하다.

카자흐스탄 고등 교육 체제의 문제점은 우선 대학 교육이 학술 및 생산과의 연계가 매우 약하다는 것이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노후된 대학 시설이 중대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국립대학 기숙사 중 77%는 25년이 경과한 건물이며, 이들 건물에 대한 보수 공사 기간은 1~5년이나 소요된다. 기숙사 거주 대상 학생의 33%는 기숙사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대학 교육 체계의 부패 문제도 심각하다.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4%는 국립대학이 부패되어 있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54%는 대학의 부패 정도가 높다고 응답했고, 28%는 부정적인 ‘학위 취득’ 사태를 고발하고 있다(Дамитов, 2008:10).

6. 마치며

1990년대 초반에 카자흐스탄의 교육 체제는 국민 경제 위기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위기를 경험하였다. 공립 유치원과 중·고등학교가 폐쇄되기도 했으며, 사립 학교와 사립 대학이 확산되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독립 후 새로 제정한 헌법에 의거 소비에트 시기에 금지되었던 민족 교육이 부활됨에 따라 카자흐어, 우즈베크어, 위구르어, 타지크어, 투르크어 등으로 가르치는 학교들이 생겨났고, 혼합 언어 학교들의 수가 늘어났으며, 러시아어로만 가르치는 학교는 점차 감소했다.

소비에트 시기에 카자흐스탄 교육이 혼란을 일으킨 큰 원인은 사용 문자의 갑작스러운 변경이었다. 1929년 카자흐스탄 문자 체계가 기존 아랍어 알파벳에서 라틴어 알파벳으로 변경되었고, 1940년에 다시 러시아어 키릴 문자로 변경되었다. 1920년대 당시 문자의 알파벳이 변경됨에 따라 교육 체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는데, 과거 아랍어 문자를 이용해 카자흐어를 읽을 수 있었던 국민들이 갑자기 문맹이 되어버렸으며, 새로운 알파벳을 익히는 데 시간과 노력을 허비해야 했다. 그 정도의 엄청난 충격은 아니지만, 1990년대 독립 이후 카자흐스탄에서 진행되는 민족어 중심 언어 정책은 사회 통합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다민족 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러시아어와 카자흐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점차 카자흐어 우대 정책이 나타나고 있어, 고려인과 같은 소수 민족은 사회적 정치적 지위 불안과 주류 사회 진입의 어려움 때문에 러시아 이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성원용, 2009:24).



1990년대 카자흐스탄 교육 체제 발전 과정을 보면, 체제 전환기의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카자흐 민족의 정체성과 독자성을 유지하고 독특하고 풍부한 문화적 자산을 보존하는 데 일정 수준 성공했으며, 국민에게 자유에 대한 가치 확립과 독립에 대한 열망을 결집해 나가는데 기여했다. 1991년 독립 후 현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머지않아 카자흐스탄은 역동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정치적으로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국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성원용(2009). 카자흐스탄의 교육 현황과 발전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 손영훈(2008). “카자흐스탄의 교육 제도와 고려인”. 한국교육개발원 전문가협의회 발표 자료.
- 알마티한국종합교육원(2015). 알마티한국종합교육원 현황 안내. 알마티.
- KOICA카자흐스탄사무소(2015). 카자흐스탄 개발 원조(ODA) 현황. 알마티.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7).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대학 단지 조성 사업 타당성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Агент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2008). Казахстан в 2007 году.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Казахстана. Астана.
- Дамитов Б. К., др (2008). Национальный доклад о состоянии и развитии образования в Республике Казахстан(краткая версия). Астана.
- Конституция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30.08.1995 года “Конституция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АУКИ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2008b). Национальный отчет по развитию образов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год.
- ОЭСР (2007). Обзор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в области образование - Выс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в Республике Казахстан. ОЭСР.
- ЮНЕСКО (2008).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Субрегиональный отчет по среднесрочной оценке достижения целей Образования Для Всех(ОДВ). Алматы.

필자소개

현 둔촌고등학교 교장, 알마티 한국교육원 원장 역임. 미래핵심역량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을 위한 운영에 관심이 많음.

핵심역량 신장을 위한 ‘짜토론’ 수업 사례



미래학교 창덕여자중학교 수업사례를 중심으로



박 상 혜

청운중학교 수석교사

“학교 우등생이 사회 우등생은 아니다.”라는 말은 교사로서 나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이였다. 왜 학교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학생이 사회에서는 반드시 우수하다고 평가 받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학교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의 결과로 얻어지는 능력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과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식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일련의 논의(교과서 연구, 2015)들은 우리 교육에서 매우 의미 있는 노력이라고 하겠다.

역량 중심 교육의 필요성에 많은 교육 관계자들이 동의하고 있지만 역량 중심 교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즉 역량 중심 수업을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및 노력을 아직 부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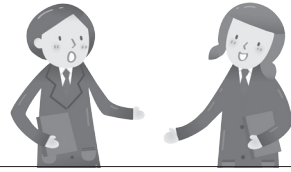
그래서 역량 신장을 위한 수업을 실천하기 위해 우선 두 가지 문제를 고민하였다. 첫째, 현재의 학생들에게 필요하며 실천 가능한 핵심역량을 구체적으로 찾아보았다.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핵심역량을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2015)이라고 제시하고 있고, 미국경영연합회에서 기업 관리자와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읽기, 쓰기, 셈하기의 3R과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Critical thinking and problem), 소통(Communication), 협력(Collaboration), 창의성과 혁신(Creativity and innovation) 등의 4C 능력(전성수, 2014)을 제시하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모든 역량들이 21세기를 살아 갈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하지만 그 역량들 가운데 현재의 우리 교육 상황에서 좀 더 필요하지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4C 능력 신장을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해 보려하였다. 둘째, 4C 능력을 구체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말하기’에 초점을 맞추었다. 학생들이 자신의 배움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대략 세 가지가 있다. 말과 글과 행동이다. 글로 표현하는 것은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한 편리한 방법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행동으로의 표현은 교육 현장의 여건상 많은 제약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새로운 배움의 표현 형태로서 점점 많이 사용되어 지고 있다. 그리고 말은 아주 기초적인 배움에서부터 심도 깊은 배움까지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그동안 발표하기, 토의하기, 토론하기 등의 형식으로 수업에서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수업 전의 준비 부족이나 형식의 번잡함 때문에 원활하게 자주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그 중요성과 의미를 잃지 않으면서도 간단한 형식으로 자신의 배움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 짹토론’의 형식을 활용하여 보았다. ‘ 짹토론’은 둘씩 짹지어 질문, 대화, 토론, 논쟁하는 수업을 말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 짹토론’이란 형식을 통해 핵심역량 그 중에서도 4C 능력을 신장키는 수업을 구상하고 실천해 보았다.

1. 짹토론 수업의 구성

짹토론 수업은 크게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첫 번째 영역은 짹 토론의 정의와 기능을 이해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영역은 짹토론을 직접 실천해보는 부분이다. 짹토론의 정의와 기능 영역에서는 짹토론의 의미와 짹토론과 비판적 사고력·문제 해결력, 소통 능력, 협업 능력, 창의성·혁신 능



력이 어떤 관계에 있는 지를 이론적으로 접근하였다. 짝토론의 실천 영역에서는 질문 중심 짝토론, 논쟁 중심 짝토론, 비교 중심 짝토론, 친구 가르치기 짝토론, 문제 만들기 짝토론(전성수, 2014 참조)을 학생들이 직접 실천해보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Critical thinking and problem), 소통(Communication), 협력(Collaboration), 창의성과 혁신(Creativity and innovation) 등의 4C 능력을 신장시켜 갈 수 있을 것이다.

〈표1〉 짝토론 수업의 구성

영역	수업 주제	역량
짝토론의 정의와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짝토론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의 의미 - 말과 토론의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짝토론의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짝토론과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 짝토론과 소통 능력 - 짝토론과 협업 능력 - 짝토론과 창의성·혁신 능력 	
짝토론의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 중심 짝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 만들기 - 질문 중심 짝토론 - 질문 중심 모둠 토론 - 질문 중심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 소통 능력 • 협업 능력 • 창의성·혁신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쟁 중심 짝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제 조사하기 - 논쟁 중심 짝 토론 - 논쟁 중심 모둠 토론 - 논쟁 중심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 소통 능력 • 협업 능력 • 창의성·혁신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 중심 짝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 대상 정하기 - 비교 대상 조사하고 질문 만들기 - 비교 중심 짝토론 - 비교 중심 모둠 토론 - 비교 중심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 소통 능력 • 협업 능력 • 창의성·혁신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 가르치기 짝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공부하기 - 친구 가르치기 - 배우면서 질문하기 - 입장 바꿔 가르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 소통 능력 • 협업 능력 • 창의성·혁신능력

영역	수업 주제	역량
<p>작토론의 실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만들기 작토론 - 문제 만들기 - 짝과 문제 다듬기 - 모둠과 문제 다듬기 - 문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 소통 능력 • 협업 능력 • 창의성·혁신능력

2. 작토론 수업의 실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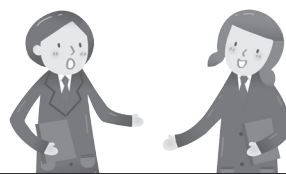
작토론 수업은 2015학년 1학기 매주 화요일 6,7교시(창의적 체험활동 중 자율활동 시간)에 중학교 1학년 4개 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수업 담당 교사는 국어, 영어, 사회, 과학과 교사 4명으로 각 교사별 4회용 프로그램 구안하여 분기별로 순회하면서 적용하였다.

가. 작토론 이해 과정

이 과정은 일 년 또는 한 학기 동안 실시되는 작토론 수업의 도입 단계이다. 작토론 수업의 필요성을 이해시키기 위해 친구의 의미, 말과 토론에 관련된 영상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 앞으로 학생들이 살아갈 세상에서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발표하도록 하고 그 중 비판적 사고력·문제 해결력, 소통 능력, 협업 능력, 창의성·혁신 능력을 중심으로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앞으로 실시할 작토론 수업에서 이러한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한다.

〈표2〉 작토론 이해 과정

핵심 개념	수업 주제	수업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토론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의 의미 이해하기 - 말과 토론의 중요성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된 우정에 관한 사례 제시 - 말의 중요성에 관한 동영상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토론의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판적 사고력의 필요성 이해하기 - 문제 해결력의 필요성 이해하기 - 소통 협업 능력의 필요성 이해하기 - 창의성·혁신 능력의 필요성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무엇일까?” 발표하기 - 교사의 4C 능력의 중요성 설명하기



나. 짝토론 실천 과정

짝토론 수업은 모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교사가 자유롭게 모형을 구성하고 그에 맞는 주제도 자유롭게 선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여기서는 수업의 모형을 질문중심 짝토론, 논쟁 중심 짝토론, 비교 중심 짝토론, 친구 가르치기 짝토론, 문제 만들기 짝토론으로 구분하고, 그에 적합한 수업 주제와 수업 방법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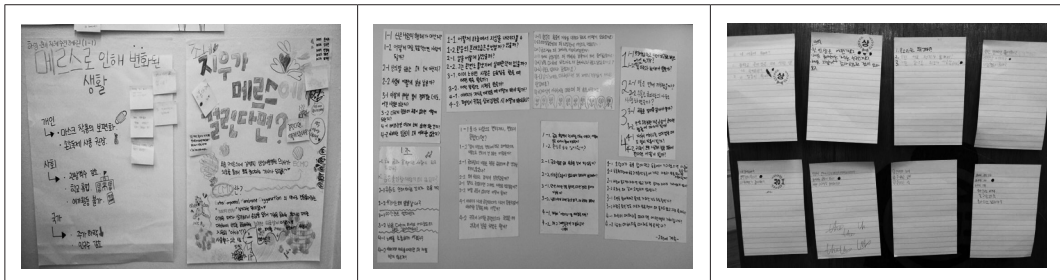
질문중심 짝토론은 주어진 텍스트(글, 그림, 영상 등)를 활용하여 궁금한 것을 질문으로 만든 후, 짝토론을 통해 좋은 질문을 선정하고, 선정된 질문으로 다시 모둠토론을 실시한 후 가장 우수한 질문을 선정해서 발표하는 것이다. 좋은 질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력·문제 해결력, 소통 능력, 협업 능력 그리고 토론과 발표 과정에서 소통·협업 능력, 창의성·혁신 능력이 신장될 수 있다. 논쟁 중심 짝토론은 가치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하여 한 쪽의 입장을 비판하고, 다른 한 쪽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대변하는 토론을 진행해 가는 것이다. 상대 입장을 비판해가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력·문제 해결력, 서로 간의 의견 차이를 조율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력, 소통 능력, 협업 능력, 창의성·혁신능력이 신장될 수 있다. 비교 중심 짝토론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고 그 대상을 비교하는 토론을 진행해 가는 것이다. 대상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력, 비교 대상에 대한 토론과 발표 과정에서 소통 능력, 협업 능력, 창의성·혁신능력이 신장될 수 있다. 친구 가르치기 짝토론은 주어진 텍스트를 학생 스스로 공부한 후 친구에게 가르쳐주고 서로 역할을 바꾸어서 다시 가르쳐주는 것이다. 가르쳐 줄 내용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력·문제 해결력, 가르쳐 줄 방법에 대한 고민 과정에서 창의성·혁신능력, 가르치는 과정에서 소통 능력, 협업 능력이 신장될 수 있다. 문제 만들기 짝토론은 주어진 텍스트를 활용하여 문제를 만들고, 짝과 함께 문제를 다듬어 좀 더 좋은 문제를 만드는 것이다. 문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력·문제 해결력, 창의성·혁신능력, 짝과 함께 문제를 다듬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력·문제 해결력, 소통 능력, 협업 능력이 신장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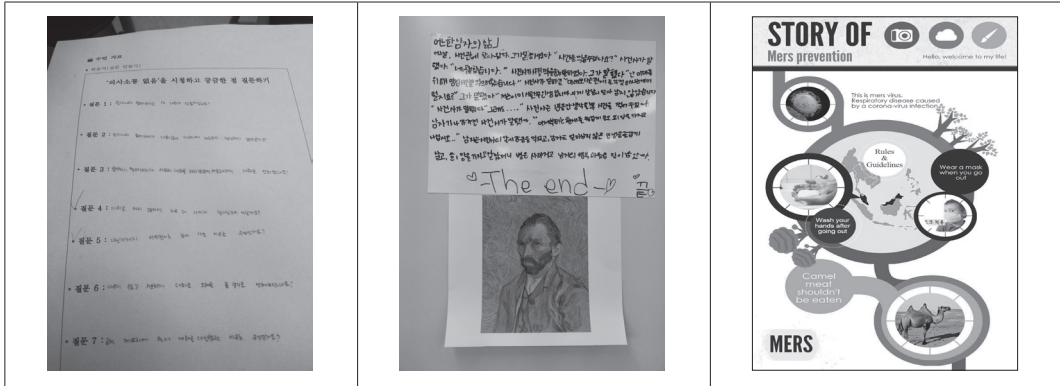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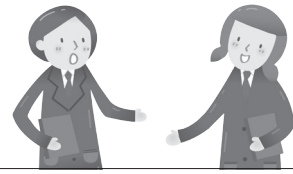
〈표3〉 짝토론 실천 과정

수업 유형	수업 주제	수업 방법
• 질문중심 짝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상한 그림 보고 질문 만들기 - 여러 가지 형태로 보이는 그림으로 질문 만들기 • 사료(史料)로 질문 만들기 - 역사 연구의 자료인 사료에서 궁금한 점을 질문으로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 만들기→질문 중심 짝토론→질문 중심 모둠 토론→질문 중심 발표

수업 유형	수업 주제	수업 방법
• 논쟁 중심 짝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명 망토 기술 규제를 결정해 주세요! - 투명망토가 만들어졌을 때 발생할 사회적인 파장을 고려하여 기술규제 정하기 누구를 남길 것인가? - 지구 멸망 시 우주선에 탑승시킬 사람 정하기 	▶ 논제 조사하기→논쟁 중심 짝 토론→논쟁 중심 모둠 토론→논쟁 중심 발표
• 비교 중심 짝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콜라 먹을까? 제로 콜라 먹을까? - 칼로리가 낮고 질병 위험이 적으나 맛이 없는 제로 콜라를 먹을 것인가 맛있는 콜라를 먹을 것인가? 남자 Vs 여자 - 남녀 간에 능력의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기 나의 뇌구조와 부모님의 뇌구조 그리기 - 나와 부모님의 뇌를 그려 비교하기 	▶ 비교 대상 정하기→비교 대상 조사하고 질문 만들기→비교 중심 짝토론→비교 중심 모둠 토론→비교 중심 발표
• 친구 가르치기 짝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 홍보대사 되어 설명하기 - 우리 문화재를 공부하여 짝한테 가르쳐주기 우리 동네, 외국인에게 소개해 볼까요? - 우리 동네를 외국 관광객에게 안내하기 	▶ 내용 공부하기→친구 가르치기→배우면서 질문하기→입장 바꿔 가르치기
• 문제 만들기 짝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스기사에 제목 만들기 - 신문에 나온 기사나 사진의 제목을 지우고 새로운 제목 만들기 영어 단어나 어구 문제 만들기 - '겨울왕국'의 주제가 'Let It Go'의 동영상을 보고 내용에 대해 문제 만들기 - 동화 'The Ugly Duckling' 읽고 단어, 어구에 대해 문제 만들기 	▶ 문제 만들기→짝과 문제 다듬기→모둠과 문제 다듬기→문제 발표

〈표4〉 짝토론 결과 자료 모습





다. 짝토론 수업 결과

2015학년 1학기 짝토론 수업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수업을 체험한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5〉 짝토론 설문 결과

설문 내용	답지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1. 나는 짝토론 수업이 재미있다.	3	0	15	24	18	60
결과 비율	5.0%	0.0%	25.0%	40.0%	30.0%	100.0%
2. 나는 짝토론 수업이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3	5	19	18	15	60
결과 비율	5.0%	8.3%	31.7%	30.0%	25.0%	100.0%
3. 나는 짝토론 수업이 나의 의견을 말하고 친구의 의견을 듣기 때문에 친구와 친해지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1	9	12	16	22	60
결과 비율	1.7%	15.0%	20.0%	26.7%	36.7%	100.0%
4. 짝토론 수업을 하면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쓰세요.	말하는 능력, 친구들과 친해짐,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들음, 밝아지고 자신감 생김, 상상력, 새로운 공부 방식, 자신감, 적극적으로 질문, 발표 능력 등					
5. 짝토론 수업 시간에 공부했으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을 쓰세요.	친구 알아보기, 친구와 이야기 하면서 재미있게 보내기, 대인관계, 진로, 사람의 심리 등					

짝토론 수업에 대하여 학생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짝토론 수업이 친구와 친해지는데 매우 도움이 되었고(36.7%), 대체로 재미있으며(40.0%), 또한 공부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3. 효율적인 짝토론 수업을 위한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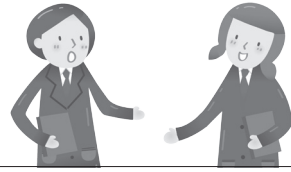
한 학기 동안 짝토론 수업을 실시하면서 앞으로의 효율적인 짝토론 수업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았다.

첫째, 어떤 수업이나 마찬가지로이지만 짝토론 수업의 성공 여부는 교사의 철저한 준비에 있다. 짝토론은 앞서 이야기한대로 수업 모형이나 주제가 무궁무진하다. 그러므로 교사의 노력에 얼마든지 의미 있고 흥미 있는 수업을 구상하고 실천할 수 있지만 반면에 아직 수업 매뉴얼이 정선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교사의 준비가 부족하면 알맹이가 없는 의미 없는 수업이 될 수도 있다.

둘째, 짝토론 수업의 성공 여부는 자유로운 수업 분위기 조성에 있다. 짝토론 수업의 목적인 4C 능력은 그 성격상 다른 능력과 달리 제약적인 분위기에서는 결코 신장될 수 없다. 그러므로 짝토론 수업을 실시하는 교실은 항상 학생 주도의 허용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셋째, 짝토론 수업의 결과 신장되는 4C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4C 능력은 가시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평가 방법이 아닌 새로운 평가 방법 즉 새로운 형태의 과정 평가 등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 현장에서 짝토론을 실시하기 위한 수업 시간의 확보 문제이다. 각 교과별로 분절되어 있는 현행 교육과정 상 교과 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짝토론 수업시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당연한 현실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최근에 『짝 토론의 이해와 실천 (Principles and practice of Pair Discussion)』이라는 과목이 신설되었고, 이를 선택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교육과정상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한국교과서연구재단(2015. 12). 교과서 연구 제82호.
- 교육부(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 전성수(2014). 최고의 공부법. 경향BP.

필자소개

전 창덕여중 수석교사를 거쳐 2016년 3월부터 청운중학교 수석교사로 근무 중 교직 생활을 하면서 얻은 현장 경험과 대학원에서 습득한 교육 이론을 접목시켜 학습자가 흥미를 느끼면서도,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수업을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역사교사로서 문화재를 학습 소재로 삼아 학습자의 역사적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수업을 꾸준히 연구, 실천하고 있다.

대한민국 5일 장터 이야기



이 수 길

「5일 장터」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5일 장터를 찾아서

● 5일 장터란 어떤 장소인가?

우리나라에서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의미로 두 가지 형태를 가리키고 말한다. 하나는 상시적으로 전통방식의 점포들이 모여 시장을 이루고 장사를 하는 곳을 말한다. 다른 하나는 지역에서 5일마다 사람들이 모여 장을 이루고 장사를 하는 형태를 말한다. 한 지역의 군에서 5개의 5일장이 5일마다 돌아가면서 장이 선다. 이러한 장을 가리켜 5일장이라고 한다. 5일장은 끝에

오는 숫자가 1일/6일에 서는 1-6장, 2일/7일에 서는 2-7장, 3일/8일에 서는 3-8장, 4일/9일에 서는 4-9장, 5일/10일에 서는 5-10장 등으로 돌아가며 시골장이 선다. 5일장은 상시적으로 장사하는 전통시장 안에서 또는 그 주변에서 장사를 하려고 사람들이 모인다. 지역에 따라서는 5일 장터를 만들어 놓고 장날에만 사람들이 모여 장사를 하고 평소에는 장사를 하지 않는 곳도 있다.

● 5일 장터를 순례하게 된 동기

우리나라의 5일 장터는 인구의 감소, 대형마트의 형성, 교통의 발달 등으로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런 이유로 면단위의 시골장터는 시/군 단위로 통폐합 되어 급변하고 있다.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 5일 장터는 대한민국의 서민생활의 문화이며 저력이다. 또한 한국의 고유한 정서인 정 문화가 살아 숨 쉬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 까닭에서 사라지고 있는 문화를 기록하고 교육적인 자료로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었다. 사라지고 있는 문화에 대한 아쉬움과 중고교 학생들의 교육적인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대한민국 방방곡곡 5일 장터를 순례하고 기록하게 되었다.

● 5일 장터 순례한 지역

2008년부터 시작하여 2015년까지 주말과 방학을 이용하여 535개 지역의 5일 장터를 찾아다니며 취재하고 촬영하여 장터문화 교육 자료를 만들었다. 전국의 5일 장터를 순례한 장소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 53개, 광주광역시 3개, 대전광역시 2개, 대구광역시 1개, 부산광역시 7개, 인천광역시 2개, 울산광역시 8개, 경상남도 70개, 경상북도 95개, 강원도 44개, 충청남도 56개, 충청북도 36개, 전라남도 102개, 전라북도 47개, 제주도 9개 등이다. 이 중에는 사라진 장터를 현장에서 목격한 곳이 35개 정도이고 10여 명 이내의 상인들이 시골장터를 지키고 있는 모습의 장터도 많았다. 실제로 5일 장터로서 활성화 되고 왕성한 시골장터는 시/군 단위이다.

5일 장터에서 만난 사람들

● 신발 팔아 6남매 대학 졸업 시킨 어머니

전라남도 진도장터에서 만난 박유순(73) 어머니. 신발 팔아 6남매 모두 대학까지 보낸 장사의 신이다. 진도장터에 들어서자마자 흥겨운 노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 나이가 어때서”를 열창하면서 즐겁게 장사하시는 박 씨. 행복바이러스를 전파하면서 신바람 나게 장사하는 모습에 장터를 찾은 손님들도 덩달아 흥이 난다. 박 씨는 2남 7녀를 둔 딸부자자다. 딸 6명을 줄줄이 낳고 아들 2명을 연달아 얻고 마지막으로 아들 하나만 더 낳겠다고 한 것이 결국 딸을 낳았다. 농사지으면서 장터에서 신발장사로 자식 6명을 대학까지 가르친 위대한 어머니. 남편을 일찌감치 여의고 홀로 9남매를 먹이고 키우고 가르치기 위해 죽을힘을 다해 살았다고 한다. 그는 “처음 신발 장사를 할 때에는 고생했지만 자식 먹여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슬기롭게 극복하고 살았다”고 했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장터에서 만난 사람들과 나눈 정과 맺은 인연으로 살 수 있었다고 한다. 박 씨는 “장터는 내



보금자리이고 삶터다. 이 장터에서 돈 벌어서 키운 자식들이 지금은 모두 성공해서 나에게도 잘 해 준다.”고 행복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다.

● 60년을 빙튀기 일로 살아오신 어머니

전라남도 광양시에 빙튀기 인생 60년을 살아오신 천하여장부 어머니가 계시다. 배금선(82)씨는 16살에 결혼해 1남 5녀를 두었으나 37살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자식들을 키워야 했다. 남자들도 힘든 빙튀기 일을 하면서 자식들과 먹고 살아온 세월이 무려 60년. 그야말로 강인한 모성애로 먹고 살아야 하는 절박함으로 장터를 지켜왔다. 장날이면 어김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 장터로 나가 손님들을 맞이한다. 60년을 한결같은 ‘장인정신’으로 살아온 배씨는 광양시에서 주는 ‘장한 어머니상’도 수상했다. 배씨의 둘째 딸과 사위, 넷째 딸도 장터에서 빙튀기 장사를 한다. 며느리는 장날마다 시어머니와 빙튀기 기계를 힘차게 돌리며 고부간의 정을 돈독히 하고 있다. 배씨가 ‘빙이여~!’를 외치면 지나가던 사람들도 가던 길을 멈추고 귀를 막고 얼굴을 찡그리며 구수한 냄새가 나는 곳으로

몰려든다. 이것이 시골장터의 맛이다. 60년 전통의 빙튀기 기술과 노하우를 머느리가 2대째 물려받을 준비가 완료됐다. 이들은 장터의 삶을 낙으로 생각하며 자신의 일에 만족감과 자부심을 갖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 가족처럼 여기며 산다.

● 3대째 100년의 전통을 잇는 대장간 3형제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 장터에 효자 3형제가 100년의 전통을 잇는 대장간이 있다. 대장장이들의 삶은 그야말로 고달픔의 연속이고 쇠망치 하나로 인생을 걸고 살아오신 분들이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대장간이 이곳에서는 젊은 3형제가 조상님들의 빛나는 열과 장인정신을 이어받으려고 하던 일을 그만두고 푹푹 뭉쳤다. 장남 류성일(51) 씨, 차남 성필(49) 씨, 3남 성배(47) 씨가 감동의 주인공들. 그들의 부친이 세상을 떠나시고는 효자 3형제가 쇠망치를 들고 쇠를 녹이고 농기구를 만들고 있다. 3형제는 “생전에 하지 못한 효도를 이렇게라도 해서 평생 갚아드리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효자들의 훌륭한 모습에 편한 마음으로만 있을 수 없는 어머니는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쇠망치와 뜨거운 화덕 앞에서 고생하는 아들들이 대견하



기도 하고 한편으로 마음이 아프기도 하다고 한다. 남들처럼 넥타이 맨 공무원의 모습을 보고 싶었다는 어머니. 이들 3형제가 시골장터에서 우리의 깊은 정과 효는 아직도 뜨겁게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5일 장터를 통해서 본 우리 정서

● 효(孝) 사상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손에 들고 어깨에 메고 끈에 묶어 끌고 장사해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장터의 삶을 살아오신 어머니들의 모습에서 감사의 마음과 효도의 마음을 유발시킨다. 보따리 속에 농산물을 팔아 자식들을 먹이고 키우고 가르쳐야 하는 부모의 마음이 듬뿍 담겨 있다.

추우나 더우나 좋으나 싫으나 보따리와 함께 장터 바닥에 퍼질러 앉아 장사하시는 어머니들. 예나 지금이나 어머니들의 보따리 속에는 자식이 담겨 있다. 그런 어머니들이 대한민국의 저력이고 우리들의 ‘엄마’라고 하는 점에서 자식들 낳아주는 늘 자식을 위한 소리 “엄마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런 엄마의 마음들이 따뜻하게 가슴속으로 파고 들어 효도하는 마음으로 울려 전이되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5일 장터 어머니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효심을 불러일으키고 스스로 깨우쳐 부모에 대한 효행을 할 수 있는 마인드를 형성 시킨다.

● 장인(匠人) 정신

앞장 5일 장터에서 만난 사람들에서 언급한 장터에서 만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장인정신을 복돋아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강인한 헝그리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인드를 형성 시킨다. 60년을 한 가지 일에만 종사하면서 살아오신 빙튀기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도 먹고 살아야 한다는 프로의식을 바탕으로 한 장인정신을 본받아야 한다. 또한 100년 전통을 있는 대장간의 3형제들의 형제애와 가족애를 배우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효도하고 직업정신

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게 하는 좋은 사례에서도 배워야 한다.

특히나 지금 이 시대에 젊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헝그리정신으로 무장한 직업정신이다. 13세에 쇠망치를 들고 80대 중반까지 오로지 쇠를 녹이고 쇠망치를 두들겨 농기구를 만들며 살아오신 대장장이들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장인이다. 이처럼 5일 장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삶의 지혜와 강인한 정신을 배울 수 있다.


● 정(情) 문화

현대인들의 생활패턴은 오로지 나만 생각하고 앞만 보고 살다보니 이웃을 못 보고 주변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졌다. 그러다보니 같은 아파트동에 살면서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서로 인사를 안 하고 스쳐지나가며 산다. 그래서 옆집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모르고 사는 것이 현대인들의 현주소이다. 그런 삶의 패턴에서는 진정성 있는 사람과의 정을 나누는 ‘인정’이 살아 숨 쉴 수가 없다. 우리의 고유한 정서라는 것조차 무색진다. 그런데 시골 5일 장터에는 고유한 정서인 ‘정(情) 문화’가 살아 숨 쉬고 있다.

물건을 깎고 깎아주는 맛, 덤으로 얹어주는 맛, 모르는 사람과도 국밥집에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웃을 있는 맛, ‘뽕이여~!’ 소리를 들으면 귀를 막고 얼굴을 찡그리고 몸을 움츠리며 순간의 행복을 느끼는 맛, 가마솥에서 모락모락 김이 새어나오는 국밥집 앞에서 줄서서 기다리는 맛 등이 우리의 허물없는 정서와 사람 사는 냄새이다. 그런 정이 우리 사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5일 장터에서 우리의 고유한 정서를 재발견하고 느껴야 한다.

● 교육을 위한 장터사진 순회전

교육을 목표로 한 전국의 중고교 방문 순회전시회를 작가의 모교인 인천 제물포고교에서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서울로 이동해 58회전(2016년 3월 현재)이 진행 중이다. 각 학교교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순항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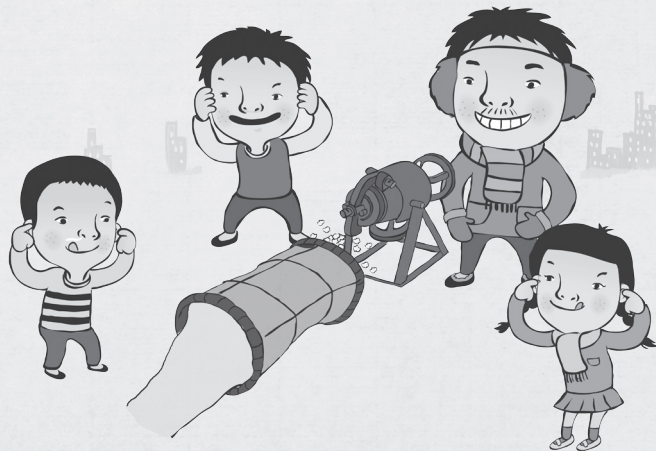
사라지고 있는 5일 장터는 대한민국 서민들의 생활문화이고 부국강병으로 만들 수 있게 한 저력이다. 따라서 자료화하는 작업과 교육으로 연결하는 작업은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심화과정의 일환으로 순회전시를 겸한 강연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5일 장터를 통한 인성교육’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필자소개

부산경상대학교/동명대학교/경남정보대학교 외래교수 및 겸임교수 역임.

부산사진문화상수상(2012) 전국 중고교 순회전 58회전 중.

저서 사진집; [모정의 세월(2012)], [장인정신(2013)], [희로애락(2014)], [장터포토에세이 “문득 삶이 그리운 날에”(2015, 티핑포인트)], 일본어교재 15권 출간 컬럼 “장터 사람들” 연재; 부산일보 25회, 제주신문 7회, 광주일보 15회, 전주매일신문 5회



친구

무덤가에서...



김 원 길

시인, 안동지례예술촌장

1973년 어느 봄날 나는 미당을 뵈러 상경하여 그때 그가 이사장으로 있던 한국문인협회 사무실로 찾아 갔다. 당시는 사무실이 종로의 파고다 공원 서쪽 길 건너에 있었다. 이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응접 소파에 몇 사람이 둘러 앉아 바둑판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미당이 누군가와 바둑을 두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기다리다가 판이 끝나자 뒤에서 슬그머니 그의 코트 자락을 당겼다. 뒤를 돌아본 그는 뿔 듯이 반기며 일어나 내 손을 잡고 흔들었다. 미당이 내 결혼식 주례를 하러 안동엘 다녀간 후 첫 만남이었다.

“언제 올라 왔나?”

“이제 막 오는 길입니다.”

“춘당께서도 안녕하시교?”

“네, 사모님 평안하십니까?”

“문협에 무슨 불일 있나?”

“아뇨, 선생님 뵈러 왔습니다.”

“그럼, 우리 나가, 어디 가서 낚술이나 한잔 하지...”

그러더니 좌중에게 나를 소개했다.

“모두들 인사하시오. 안동에서 올라온 김원길 시인이요. ‘취운정 마담에게’ 알지요?”

나는 거기서 김윤성, 오학영, 이문구, 유한근 등 낯익은 문인들과 악수를 나누었다.

미당은 “난 손님과 나가니 그리 아시유.” 하곤 내 소매를 끌고 거리로 나왔다. 파고다 공원 정문에서 남쪽 큰길 건너 조금 가면 골목 안에 ‘청계옥’과 ‘대련집’이란 밥집들이 있었는데 미당은 거기가 좋다며 나를 청계옥으로 데리고 갔다. 좌정을 하고 맥주로 목을 축이고 나자 “작품 가져 왔지?” 하고 물었다.

나는 원고지에 볼펜으로 쓴 4행시 한편을 건넸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어디 소리 내서 한번 읊어 보시지?”

해서 조금 쑥스러웠지만 감정을 실어 읊어 드렸다. 제목은 ‘친구 무덤가에서’였다.

살아 누운 것과 죽어 누운 게 무에 다른가
친구 녀석 무덤가에 나란히 누워
강아지풀 입에 물고 눈 감아 본다.
나 일어날 때, 벗이여, 그대도 깨어나게나

듣고 있던 미당이 물었다.

“자네 내 시 ‘소연가’ 아는가?”

“네, ‘머리에 석남꽃을 꽃고~’ 좋던데요?”



“그건 신라 때 설화인데 애인의 죽음에 상심한 사내가 자결을 하는 순간 미리 죽은 여인이 놀라 깨어나고 그 바람에 죽었던 사내도 또 깨어나 서른 해나 함께 더 살았다는 이야긴데 자네 시의 끝 구절을 읽으니 이 설화가 떠오르네. ‘나 일어날 때, 벗이여, 그대도 깨어나게나’...”

그리곤 당신의 시 ‘소연가’를 큰 소리로 외우는 것이었다.

“머리에 석남꽃을 꽂고
네가 죽으면
머리에 석남꽃을 꽂고
나도 죽어서

나 죽는 바람에
네가 놀래 깨어나면
너 깨는 서슬에
나도 깨어나서

한 서른 해만 더 살아볼 꺼나
죽어서도 살아서
머리에 석남꽃을 꽂고
서른 해만 더 한 번 살아볼 꺼나”

미당은 술이 거나해지자 그걸 함께 읊자고 해서 우리는 듀엣으로 또 한 번 더 낭송하고 나의 ‘친구 무덤가에서’도 외워질 때까지 낭송하는 진풍경을 빚었다. 이 날 이후 나와 미당의 만남은 늘 2인 시 낭송회가 되곤 했으니 내 평생 이런 파격적 교류를 나눈 사람은 미당이 첨이자 마지막이었다.

이 4행시 ‘친구 무덤가에서’를 미당에게 보일 때는 제목이 한자로 ‘省墓’였다. 그래서 이듬해 나온

내 첫 시집에도 ‘雀墓’로 실려 있다. 그런데 이것을 10년 후 두 번째 시집에 다시 실을 땐 ‘친구 무덤가에서’로 바꾼 것이다. 사연은 이렇다.

첫 시집을 내자 나는 그것을 문단의 이름 있는 대 선배들에게 증정본으로 보냈다. 나를 가르치신 분, 내 시를 심사해 주신 분, 그리고 뵈진 못해도 교과서에서 작품을 읽은 유명한 문인들께 보내드렸다. 구상, 박재삼, 최승범 같은 이들이 축하 엽서를 보내왔다.

그런데 어느 날 韓正東이란 이름이 적힌 봉투가 배달되어 왔다. 놀랍게도 동요 ‘따오기’의 작자, 아동문학가 한정동 선생이 나의 시 ‘성묘’를 ‘친구 무덤가에서’로 제목을 고쳐서 한지에 붓글씨로 써서 보내신 것이었다. 내가 책을 보내드릴 때도 따로 편지글을 넣지 않았지만 그도 말없이 글씨만 써서 보냈다. 나는 그가 내 시의 제목을 바꾸어 쓴 뜻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었다. 4행시 녀 줄이 모두 쉬운 한글로써 동시 같은 느낌인데 제목만 한문이니 어울리지 않는다는 가르침이었다. 역시 아동문학가였다. 나는 속으로 감사하며 10년 후 제 2시집에 그의 뜻을 받들었다. 나는 그 때도 말없이 시집만 보내 드렸고 그에게선 회답이 없었다. 그때 그는 이미 너무 노쇠하여 답장도 보낼 수 없는 처지였으리라.

나의 이 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시에 대해서) 평론은 말이 없지만 나는 이 시를 대견히 여기고 있음을 고백한다. 이 시처럼 죽은 자의 무덤에 가서 쓴 다른 시들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조선 선조 때 예조정랑을 지낸 백호 白湖 임제林悌가 황진이의 무덤을 지나다가 읊은 시조가 있다.

청초 우거진 골에 자는다 누웠는다



홍안은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혔나니
잔 잡아 권할 이 없을 새 그를 숲어 하노라

그리고 현대에 오면 김광균이 친구 최재서의 무덤을 찾아 와서 쓴 ‘망우리에서’란 짧은 시가 있다.

아. 이제 오느냐고
별써 가느냐고
친구는 무덤 속에서 쓸쓸한 얼굴을 한다 (“망우리에서” 전문)

보라, 두 시는 하나같이 죽은 자를 애석해하고 그리워하고는 있지만 그뿐, 그냥 무덤 속에 누여 두고 있다. 죽음을 어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 시에서는 친구가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잠든 것인 양 받아들이고 “나 일어날 때, 벗이여 그대도 깨어나게나”라며 죽음을 부정하고 부활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정녕 헤어지고 싶지 않은 우정의 애뜻함을 보이고 있다.

임제와 김광균의 것과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렇듯 시는 앞서 사람이 쓴 것과 어딘가 달라야하고 조금이라도 새로워야 작은 감동이나마 보탬 수 있지 않는가 한다.

필자소개

《월간 문학》에 ‘취운정 마담에게’(1971), 《시문학》에 「꽃 그늘에서」 외 5편으로 등단(1972). 시집 《개안》(1974), 《내 아직 적막에 길들지 못해》(1984), 《들꽃다발》(1993), 《아내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한다》(2009), 해학모음집 《안동의 해학》(2002)을 냈다.

중등학교에서 국어, 대학교에서 문장론, 비교문학을 강의하다가 임하댐 건설로 고향 지레마을이 수몰될 때 교직을 포기, 선대의 고가들을 뒷산으로 옮겨 문예창작마을 ‘지레 예술촌’을 조성하고 고택문화보존회를 창립하는 등 전통 생활체험에 힘써 옥관문화훈장을 수훈하였다.



오늘의 교과서 출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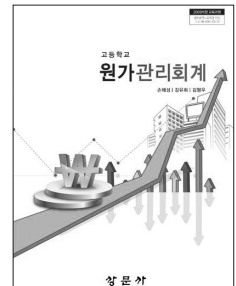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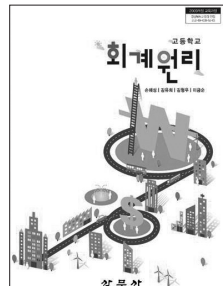
상문사

손해성 대표



Q 상문사는 국어과인 고등학교 문학, 가정과학, 통합국어 교과서와 함께 회계원리, 원가관리회계 교과서를 개발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교과 분야에 집중하고 계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A 1969년 상문사가 설립될 당시 사회는 매우 가난한 시대여서 직장에 취업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회 환경이었습니다. 당시 취업을 위해서는 경리에 필요한 부기와 주산을 배워야만 취업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이 분야의 도서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70년대 우리나라 기업의 실태는 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취업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기에 이에 맞추어 교재 및 교과서를 오늘날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국어과는 이 지역에 국어 교과서를 집필할 훌륭한 인재가 많아 국어 영역의 교과서를 연구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Q 1990년대 이후 고등학교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고등학교 교과서 개발에만 참여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또 90년대 이후 고등학교 교과서의 변화 양상과 미래 교과서의 모습을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는지요?

A 본사의 교과서 검토에 참여는 제5차 교육과정부터이며 당시 실업계 교과서 8종을 제출하여 6종을 교육부 검토에 합격시켰으며, 오늘날까지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70년대부터 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강의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업계열의 고등 및 대학 도서를 200여 권 이상 집필하였습니다. 85년부터 현재까지 상업계열 교과서는 계속 집필하였으며 한 번도 불합격되지 않았습니다. 교과서 집필자 중 최장수 집필자입니다. 90년 이후 고등학교 교과서는 이 시대에 맞는 교육과정이 수립되어 이에 따른 전공 학자들이 깊이 연구할 과제라 생각됩니다.

Q 교육에서 교과서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교과서 개발에서 '질 향상'을 위한 독특한 단기적, 혹은 장기적 계획이 있으신지요?

A 교과서는 학교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교육 자료입니다. 학교 교육의 기본이 되는 것은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맞추어 엮으므로 무엇보다 교육 과정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세계 각국은 공통으로 기본 공통 교육 단계인 초·중등학교의 교과서 개발에 많은 예산을 들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교육 내용 및 방법을 교육 개혁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은 다음 세대의 국가 사회를 짊어지고 나아갈 인재를 육성하고 학생 개인으로는 인간 형성의 기초를 닦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교과서는 이처럼 초·중등 교육을 수행하면서 학교에서 배울 주된 교과서는 기본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 선진 여러 나라에서는 초·중등 교육의 충실을 기할 목적으로 교육 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교육 제도의 차이가 있으나 공통으로 교육 내용을 개성이 풍부한 다양한 교과서를 발행하고 있으나 구성 내용 및 체제 등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가 국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정부는 민·관·학계가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연구·개선해 나갈 때 우리나라의 교과서가 더욱더 질 좋은 교과서로 발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2015개정 교육과정 적용 교과서를 개발하면서 개정 교육과정이 강조하는 사항(핵심역량 구현, 창의융합 인재 양성, 학습경험의 질 개선을 통한 행복한 학습 추구 등)을 반영한 창의적인 교과서 개발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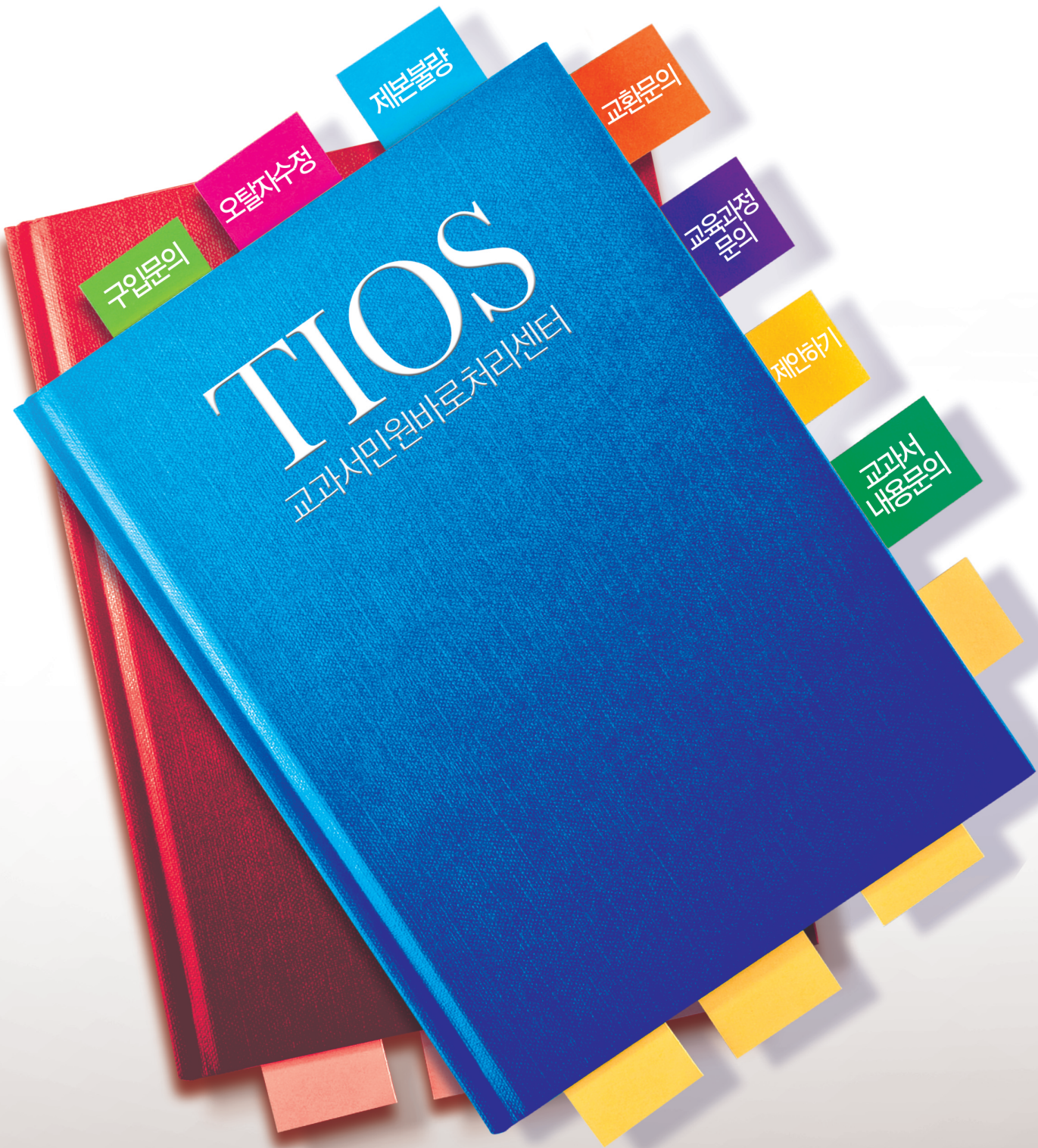
A ‘2015개정 교육과정을 충실히 구현하는 교과서’는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 등을 충실히 구현하여, 학생의 능력과 진로를 고려한 교육내용과 교수·학습방법을 다양한 교과서를 개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바른 인성과 창의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양성에 적합한 교과서’의 개발은 수업을 통해 인성교육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제시하고 학생의 참여와 협력 및 체험학습이 강화된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창의 융합적 사고력을 신장하기 위해 인문·사회·과학 기술적 기초 소양함양이 가능하도록 교과서를 구성하며, 교과 역량 함양이 가능하도록 교육내용과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방법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과 연계되어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유발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과서’ 개발은 교과의 필수적인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학생 스스로 학습하고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생의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실생활의 사례를 학습 내용에 포함하여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며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교과서가 개발되어야 합니다.

Q 마지막으로 그동안 교과서 발행사로서의 고충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또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교과서 발행의 보람을 공유해 주십시오.

A 교과서 개발에 참여한다는 것은 기업의 수익정보보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들이 필요한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는 뜻에서 매우 의미 있는 무한한 보람을 느낍니다. 



구입문의

오탈자수정

제본부량

교환문의

교과서정량문의

제안하기

교과서내용문의

TIOS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교과서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One-stop으로!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TIOS

교과서는 어디서 사야 하지? 교과서 불량은 어디 가서 신고하지?
사소한 일이지만 많이 답답하셨나요? 교과서 관련 민원을 One-stop으로
처리하는 포털사이트, TIOS를 방문하세요.
교과서에 관한 문의부터 오탈자 수정, 제본불량 신고, 그리고 새로운 제안까지-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TIOS가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약속 드립니다.

교과서 민원 처리는 Yes, TIOS!

● TIOS란?

TIOS는 Textbook Information One-stop Service의 줄임말로,
교과서 관련 민원 업무의 One-stop 처리가 가능한 교과서 관련
포털 사이트입니다.

● TIOS이용방법

TIOS는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쉽고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1566-8572

www.교과서114.com
www.textbook114.com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2016학년도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 교과서별 구입처

교 과 서		구입처	전화번호
국정	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국어활동, 듣기·말하기·읽기, 쓰기 포함) 	(주)미래엔 textbookmall,mirae-n.com 1800-88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학(수학익힘책 포함) 	(주)천재교육 www.chunjae.co.kr 1577-09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사회과탐구, 사회과부도 포함) • 도덕(생활의길잡이 포함) 	동아출판(주) www.dongapublishing.com 1644-0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과목 (학교, 봄, 가족, 여름, 나, 이웃, 가을, 겨울, 우리나라) • 과학(실험관찰 포함) 	(주)비상교육 www.visang.com 1544-0544
검·인정	초등 중등 고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교과서 이외의 검·인정교과서 (인정교과서 중 서울, 경기, 울산, 경남에서 개발된 교과서는 해당 교육청에 문의) 	(사)한국검인정교과서 www.ktbook.com 031-8071-7981

□ 서울지역 직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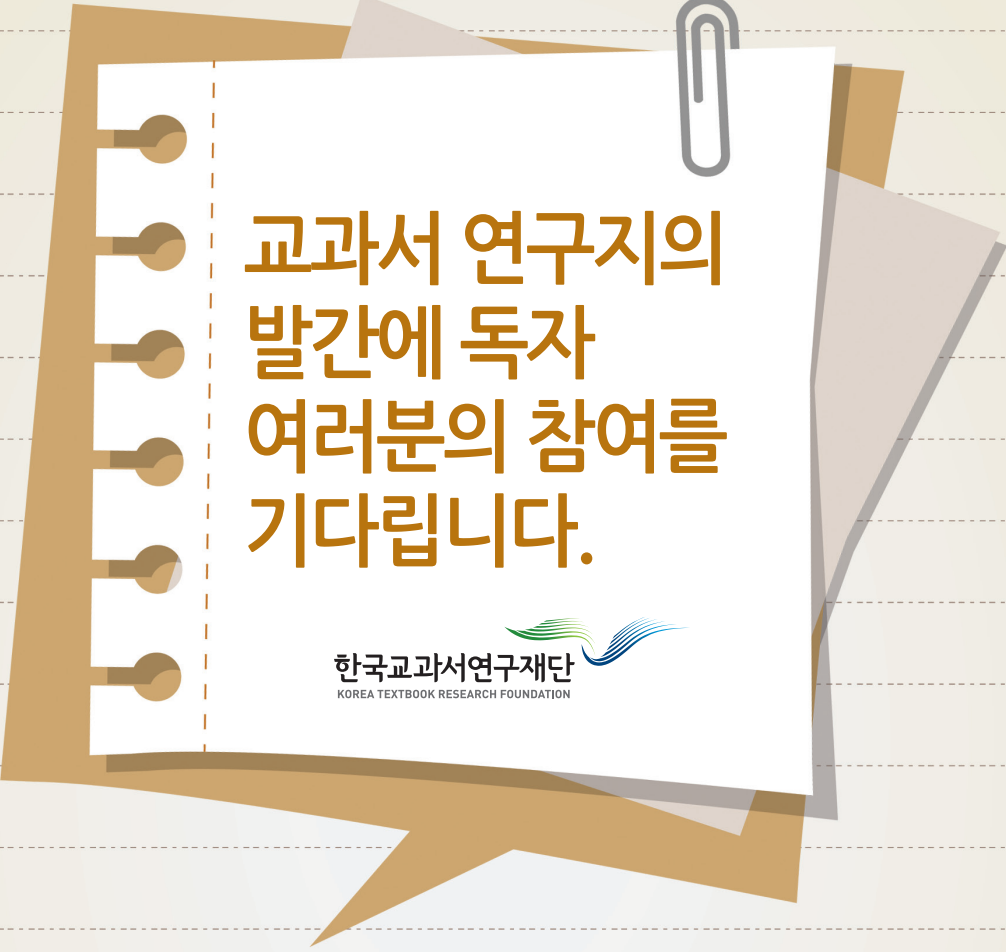
(주)미래엔 직매장 - 초등학교용 (주)미래엔 국정교과서만을 판매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321 (주)미래엔빌딩 1층 (☎ 02-3475-4097)
- 지하철 : 7호선 논현역 5번 출구에서 직진 도보 5분소요

각 지역별 교과서 지정 판매서점

지역별	상 호	전화번호	판매도서	
서울	강 남 구	서울문고(코엑스점)	02-556-6002	국정
	강 남 구	영풍문고(코엑스몰)	02-6002-2707	국정
	강 동 구	동 북 문 고	02-477-8200	국정, 검정, 인정
	강 동 구	예 립 문 고	02-447-8600	국정
	관 악 구	(주)북선커뮤니케이션	070-4700-1975	국정
	구 로 구	(주)리브로(구로점)	070-4726-2841	국정, 검정, 인정
	노 원 구	그랜드문고	02-938-1065	국정
	노 원 구	(주)노원문고(중계점)	02-2091-0633	국정, 검정, 인정
	도 봉 구	예 일 문 고	02-995-5206	국정
	동대문구	영풍문고(청량리)	02-3707-1860	국정
	서 초 구	교보문고(강남)	02-530-0313	국정
	서 초 구	서울문고(센트럴시티)	02-530-0718	국정, 검정, 인정
	성 북 구	영풍문고(미아)	02-2117-2880	국정
	송 파 구	교보문고(잠실)	02-2140-8821~2	국정
	양 천 구	교보문고(목동)	02-2062-8801	국정
	영등포구	교보문고(영등포)	02-2678-3501	국정
영등포구	영풍문고(여의도)	02-6137-5254	국정	
용 산 구	(주)대교문고	070-4619-5225~6	국정, 검정, 인정	
종 로 구	교보문고(광화문)	02-397-3551	국정, 검정, 인정	
종 로 구	영풍문고(종로)	02-399-5625	국정, 검정, 인정	
종 랑 구	관 악 도 서	02-2207-7802	국정	
부산	금 정 구	영풍문고	051-590-8300	국정
	부산진구	교보문고	051-806-3501	국정
	부산진구	영광도서	070-4020-2533	국정, 검정, 인정
	사 상 구	태학도서	051-313-1718	국정
	사 하 구	문학서점	051-241-5555	국정, 검정, 인정
중 구	문우당서점	051-241-5555	국정	
해운대구	영재서적	051-703-0708	국정	
대구	수 성 구	(주)세원출판유통(범어점)	053-423-0517~19	국정, 검정, 인정
	중 구	영 풍 문 고	053-428-6700	국정
인천	남 동 구	교보문고	032-455-1000	국정
	부 평 구	부평문고	032-529-0077	국정
광주	동 구	종합도서	062-222-4354	국정, 검정, 인정
	서 구	영풍문고	062-364-0210	국정
대전	서 구	세이박스	042-611-8061	국정
	중 구	(주)계룡문고	042-222-4600	국정, 검정, 인정
세종	세 종	세 이 박 스	044-864-4433	국정
울산	울 산	영풍문고	052-228-1051	국정

지역별	상 호	전화번호	판매도서	
경기	광 명	일지서적	02-2613-2744	국정
	구 리	동원서적	031-563-4621	국정, 검정, 인정
	김 포	열린문고	031-982-2007	국정
	부 천	(주)경인문고 소풍점	032-329-1677	국정, 검정, 인정
	분 당	교보문고	031-776-8004	국정
	분 당	리브로	031-783-8900	국정
	성 남	공손서점	031-703-7279	국정
	성 남	중원문고	031-736-2600	국정
	수 원	(주)경기서적(장안구)	031-248-6300	국정
	수 원	영풍문고	031-267-5555	검정
	시 흥	한가람문고	031-404-0161	국정
	안 산	대동서적(주)	031-406-6666	국정, 검정, 인정
	안 양	교보문고	031-466-3501	국정
	용 인	수지문고	031-265-4031	국정
	의 정	송문당	031-846-2666	국정, 검정, 인정
	부 산	정글북	031-922-5000	국정, 검정, 인정
일 산	더북스삼성	031-8015-4451	국정	
강원	동 해	제 일 서 점	033-521-3131	국정
	춘 천	교 학 사	033-254-4133	국정, 검정, 인정
충북	청 주	유 신 상 사	043-252-5945~6	국정, 검정, 인정
	충 주	이 학 사	043-847-3493	국정
충남	천 안	국 민 도 서	041-558-0004	국정
전북	전 주	홍 지 서 림	063-288-5311	국정, 검정, 인정
전남	목 포	책사랑문고	061-279-2504	국정
	순 천	중 앙 서 림	061-723-9902	국정, 검정, 인정
경북	경 산	성암교재사	053-811-8222	국정
	경 주	현 대 서 점	054-742-4885	국정
	포 향	학 원 사	054-249-3396	국정, 검정, 인정
경남	김 해	근 비 도 서	055-343-7893~4	국정
	마 산	영 풍 문 고	055-240-5690	국정
	진 주	대 양 서 적	055-741-2835	국정
	창 원	창 원 서 적	055-282-1544	국정
제주	제 주	현 대 서 점	064-748-1177	국정



교과서 연구지의
발간에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
KOREA TEXTBOOK RESEARCH FOUNDATION

● 참여 분야

[현장교육], [논단], [단상], [제언],
[교과서 편집자의 변], [독자의 소리]

● 교육과정과 교과서 관련 연구활동

- 교과 운영과 교과서 활용 사례 연구 활동
- 교과서와 관련된 제언 또는 단상
- 기타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등

- ▶ 보내실 곳 : bjj819@textbook114.com
- ▶ 문의전화 : 02-6206-6362 「교과서 연구」 담당자 변자정

교과서가 우리의 미래를 바꿉니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교과서정보관 이용 안내

“이제 교과서 원문 DB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정보관

교과서 원문 이용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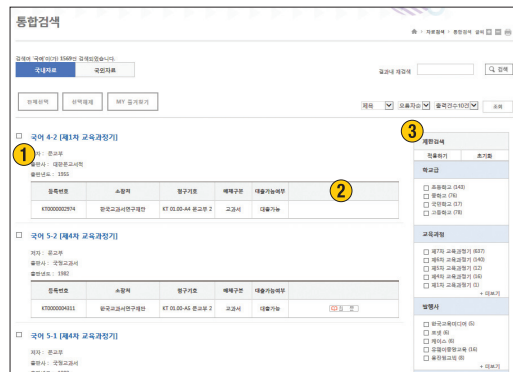
메인페이지 원문검색 안내

- 1 페이지 주소창 - <https://www.kotry.kr>를 통해 한국 교과서연구재단 교과서정보관 홈페이지에 접속.
- 2 도서관 협약유무 확인 - 협약도서관이 아니면 이용할 수 없으며, 메인페이지에서 협약도서관 안내를 통해 원문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 (도서관안내 > 교과서정보협력망 > 협약도서관안내)
- 3 검색어 입력 - 원하는 교과서를 검색하기 위한 검색어를 입력. (ex. 국어, 검정, 6차교육과정 등)
- 4 원문검색 - 원문만 검색결과에서 보고 싶은 경우, 간략 서지정보 화면의 제한검색에서 '원문'의 '있음'을 체크한 후 상단의 '적용하기'를 선택.



검색결과 간략화면 안내

- 1 간략서지정보 - 결과가 보여지는 결과 화면. 원문이나 목차 등의 부가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가능여부 옆에 목차/원문/참고문헌 아이콘이 게재됨.
- 2 원문 아이콘 - 원문이 존재하는 서지에 대해서 나타나는 아이콘. 클릭하면 해당 도서의 원문을 볼 수 있으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함.
- 3 제한검색(Facet) - 키워드 등을 통한 검색결과에서 학교급, 교육과정, 발행사, 저자별, 년도별, 원문 유무 등으로 검색결과를 제한하여 볼 수 있음.



검색결과 상세화면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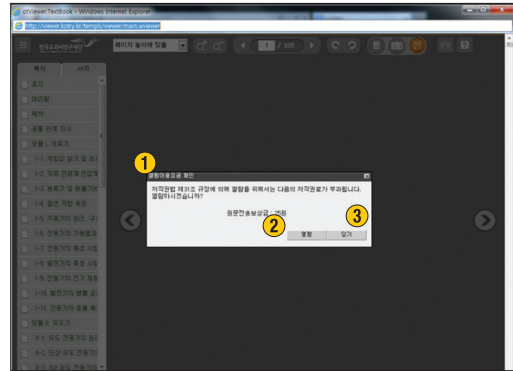
- 1 상세검색 결과 - 간략서지정보에서 선택한 서지의 상세내용이 보여지는 화면. 해당 도서에 대한 정보 및 MARC보기, 즐겨찾기 추가, 자료예약 등이 가능함.
- 2 소장 정보 - 해당 서지의 소장자료 정보 확인. 등록번호, 소장처, 대출가능여부 등 확인 가능.
- 3 유사컨텐츠 - 해당 도서와 유사한 컨텐츠를 모아서 볼 수 있으며, 자료명을 선택하면 해당 도서 정보로 이동.
- 4 부가정보 - 목차, 초록 등의 부가정보를 보여준다.



교과서가 우리의 미래를 바꿉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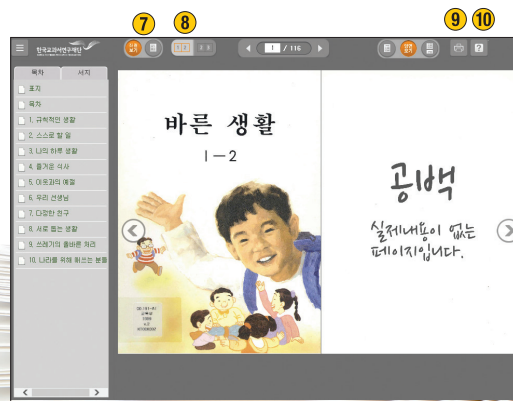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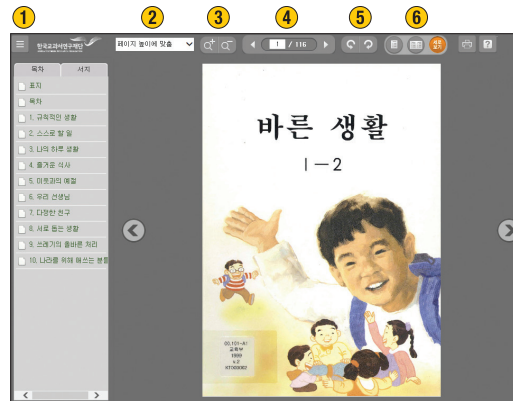
원문이용시 이용요금 확인

- ① 열람이용요금 확인 - 원문 선택시 저작권법 안내, 이용요금에 대한 안내 확인.
- ② 열람 -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료가 부가됨을 안내 받고 지불의사가 있을 경우 '열람'을 선택하여 원문을 열람.
- ③ 닫기 -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료가 부가됨을 안내 받고 지불의사가 없을 경우 '닫기'를 선택하여 창을 닫음.



원문뷰어 이용

- ① 목차 및 서지정보 - 원문의 목차 및 서지정보표시 (목차 선택시 해당 페이지 이동)
- ② 화면배율 선택 - 페이지 높이에 맞춤/페이지 너비에 맞춤/50%/100%/200%/300% 선택
- ③ 확대/축소 - 원문 이미지 확대 및 축소
- ④ 페이지 이동
 - 이전 페이지 (◀) / 다음 페이지 (▶) 이동
 - 해당 페이지 직접 이동시 페이지 번호 입력 후 엔터
- ⑤ 회전 - 원문 이미지 회전(좌우 회전)
- ⑥ 보기 설정 - 원문 이미지 페이지 보기 설정 *단면보기/양면보기/세로보기 선택
- ⑦ 제본 설정 - 원문 이미지 제본 설정 * 좌철보기/우철보기 선택
- ⑧ 제본페이지 설정 - 원문 이미지 좌우 정렬설정 변경
- ⑨ 도움말 - 통합 뷰어 이용 안내
- ⑩ 인쇄 - 원문 이미지 출력





교과서정보서비스 원문 협약 체결 안내

-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 구축한 원문DB를 이용하기 위한 교과서정보서비스의 원문 협약 절차 안내입니다.
- 우리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지난 2013년부터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교과서 전문도서관 구축 사업을 통해 교과서를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국립중앙도서관 또는 국회도서관의 원문서비스와 같은 방식으로 제4차 교육과정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기까지의 교과서(4,850권)를 원문 DB화 하여 도서관 보상금 제도를 통해 서비스 중입니다.

대상

전국의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특수도서관(자료실), 학교도서관 등

협약 절차 안내

- ①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협약 체결
- ② 협약 완료 후 재단으로 이메일 통보 또는 협약 관련 담당자에게 전화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유순기, 02-6206-6357, editor@textbook.ac)
- ③ 공문서에 의한 협정방식을 원하는 기관은 담당자에게 협약서 및 등록서 전송 요청
- ④ 협약서 및 등록서를 작성 후 재단 관리자에게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전달
- ⑤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도서관보상금관리시스템(<http://www.kotry.kr/libfee/>)에 접속하여 도서관기호 및 등록서에 작성한 비밀번호를 이용해 로그인
- ⑥ 사용하고자 하는 좌석의 IP정보를 입력 후 담당자에게 통보

참고

- 기관 내에서 비공인IP(사설IP)를 사용하는 경우, 공인IP 및 비공인IP를 모두 입력하여야 합니다.
-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원문 뷰어는 별다른 설치 과정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인쇄를 하고자 할 경우 과금을 위한 activeX 설치가 필요합니다.)
- 개인납부 방식을 사용하는 기관은 자체 프린터 기기 및 과금장치업체와 연결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관리자가 기관 및 IP정보를 확인 후 접속에 대한 허용을 하여야 원문 이용이 가능합니다.
(재단 및 관리자의 사정에 따라 허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협약체결 기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동국대학교, 수원박물관, 신라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목원대학교, 한국스포츠개발원, 경기대학교, 용인대학교, 부산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그리스도대학교, 목포대학교, 서울도서관, 부산외국어대학교, 한영신학대학교, 국립특수교육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경북대학교, 충북대학교, 안동대학교, 나사렛대학교

호두가 1등 이 되는 세계상

천재교육이 앞장서겠습니다.

“엄마, 독도에 코끼리바위가 살아요.
코끼리바위가 팽이갈매기를 매일 업어줘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우리 독도엔 코끼리바위가 있습니다.
이제 독도도 교과서로 배웁니다.
우리의 독도는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하니까요.
독도 사랑도, 독도 공부도 우리가 1등입니다.

 천재교육





미래엔은 가능성이이다



미래엔은 상상력이다



미래엔은 즐거움이다



미래엔은 에너지다

생각에서 생활까지

교육 문화 콘텐츠에서 에너지 사업까지
미래엔은 오늘도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67년 전통의 미래엔 교과서
- 인쇄사업



- 미래엔 아이세움 학습만화
- 미래엔 에듀 학습 참고서



- 와이즈베리·북폴리오
- 현대문학



- 미래엔 디지털 콘텐츠
- 미래엔 에듀케어



- 미래엔 서해에너지
- 미래엔 인천에너지



- 목정미래재단
- 교과서 박물관